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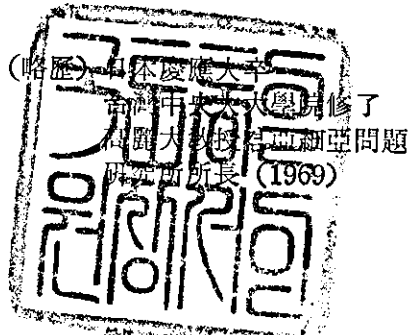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것임.

北韓調查研究

# 北韓의 人民民主主義 革命路線과 對南 戰略

研究執筆責任

金 俊 燁



刊行責任

鄭 大 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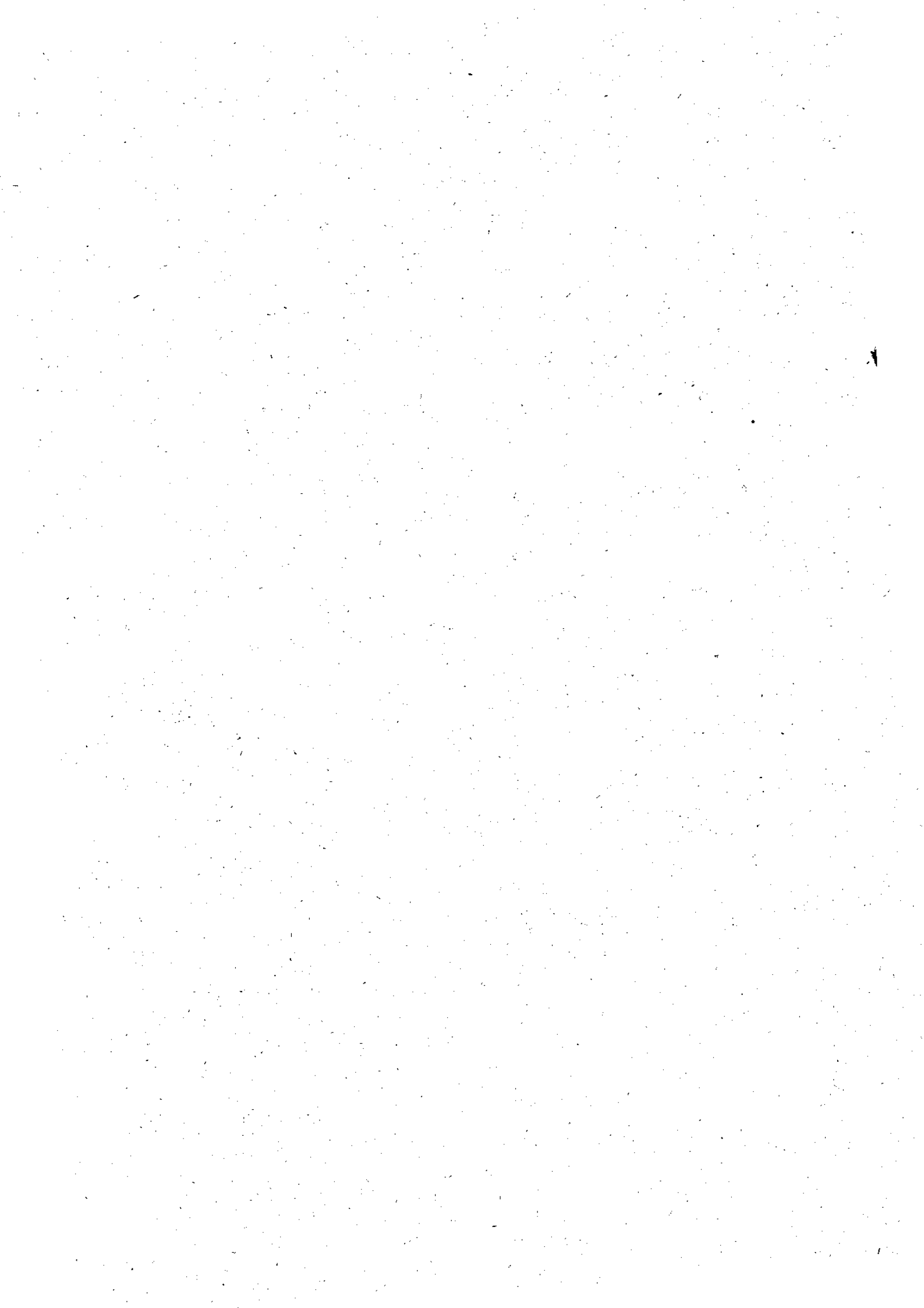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一. 序 論.....	1
二. 人民民主主義의 理論的 背景.....	3
1. 前期理論.....	5
2. 後期理論.....	22
가. 프롤레타리아獨裁宣言.....	22
나. 후르시쵸프時代의 理論.....	38
三. 毛沢東의 新民主主義論.....	59
四. 中·소의 對立樣相.....	77
1. 中共·소련의 理論檢討.....	79
2. 對立과 妥協.....	100
五. 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과 對南戰略.....	131
1. 理論的 背景.....	133
2. 基本戰略.....	155
3. 對南戰略의 構造.....	171
六. 結 論.....	201





## 一 . 序 論

70年代를 맞이하면서 國際情勢는 強大國들의 實利追求의 現實主義的 外交로 말미암아 對決의 時代는 사라지고 平和指向的인 時代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開催된 1970年 11月의 北韓勞動黨 第5次 黨大會는 앞으로 展開될 韓國에서의 赤化革命戰略은 이른바 〈人民民主主義革命〉임을 明白히 하였는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슬로건은 그들의 人民革命戰略의 質的變化를 意味한다해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의 對南戰略이 人民革命戰略임에는 變함이 없으나 그 內容은 時間과 空間을 前提로한 狀況에 따라 差異點을 露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研究課題인 〈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과 對南戰略〉을 研究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接近方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 이데올로기와 實踐을 中心으로 分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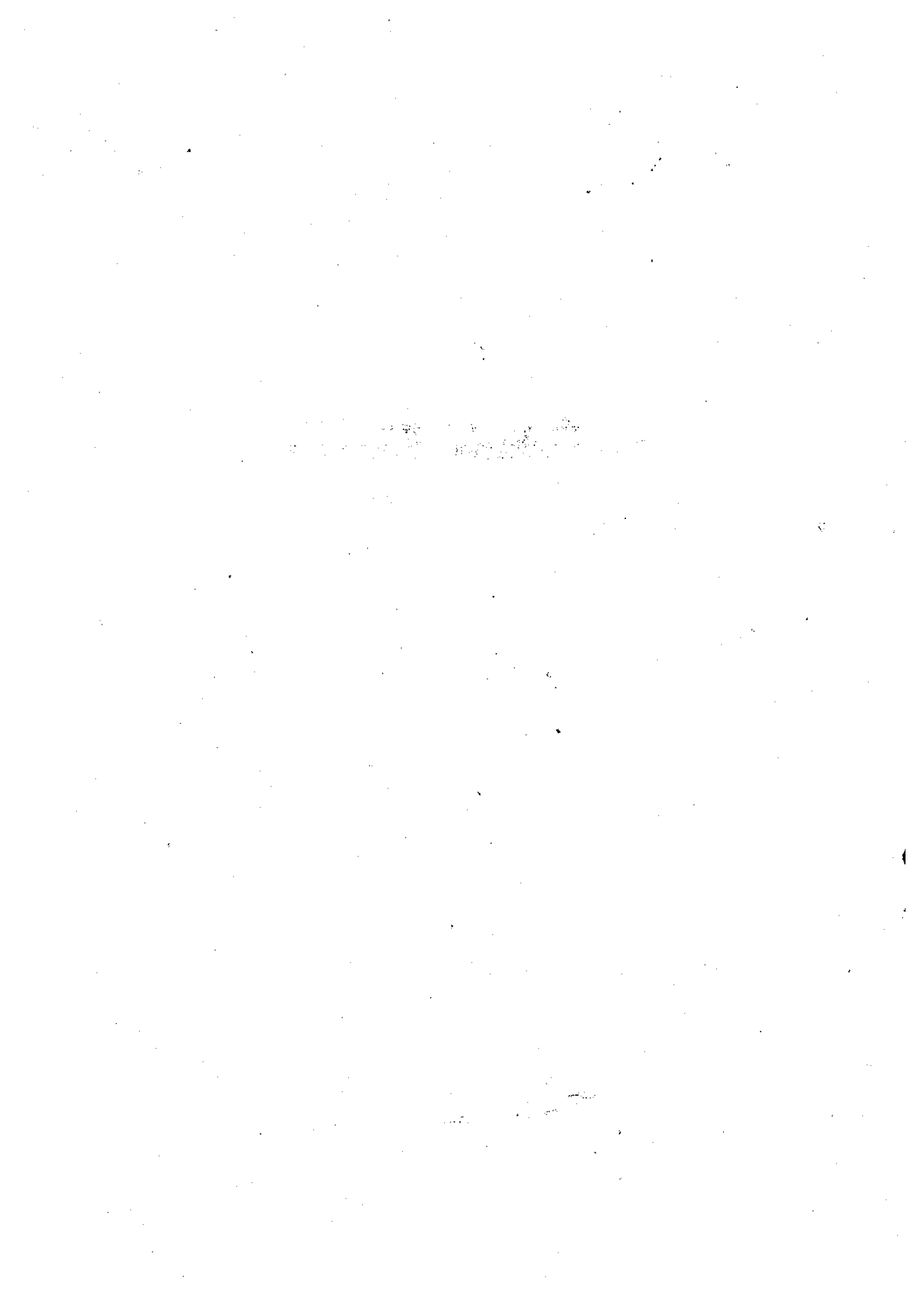
또한 이 問題를 北韓에만 局限시켜 考察한것이 아니라 國際共產主義運動全體의 脈絡에서 考察했기 때문에 當然히 蘇聯, 中共 및 東歐諸國에 關해 考察하지 않을 수 없었다.

即 代表的인 共產主義者들의 人民民主主義 理論에 관한 檢討와 그本質을 究明한 다음 人民民主主義革命이 各國에서 어떻게 展開되었는가를 아울러 分析하였다.

이러한 背景的 知識을 前提로 한 다음 北韓이 展開한 人民民主主義革命의 イデオロギ的 側面을 核心으로 北韓의 政治가 어떻게 展開되어 있는가를 解明하는 것이 本研究에서 意圖한바다.

本研究에서 取扱한 範圍는 大體로 1945年부터 1972년까지에 이르고 있으나, 研究를 추진하면서 昐착한 最大의 難點은 역시 資料의 不足이였음을 率直히 突吐하지 않을 수 없다.

## 二、人民民主主義的理論的背景



Dimitrov

## 二. 人民民主主義의 理論的 背景

### 1. 前期理論

소聯圈의 統一된 이데올로기로써의 人民民主主義理論이 定立된 것은 1948年 12月 5日 불가리아 労働者黨 第5次大會에서 한 디미트로브 (G. Dimitrov) 의 演說이 있는 後의 일이었다. 스탈린의 衛星國體制의 確立을 위하여 重要한 意義를 가지는 人民民主主義의 理論은 소聯에서 前·後 二期를 거쳐 비로소 單一的 官用理論으로써의 地位를 획득하게 된다. 즉 前期는 1945年부터 1948年까지 이며 後期는 1949年 以後의 時期이다. 이제 北韓을 떠나 소聯 內에서 이 理論이 展開된 過程을 개관하기로 한다.

第二次大戰에서 나치스獨逸의 敗亡과 聯合國間의 協定締結에 의하여 獨逸軍의 占領下에 있던 東歐 및 東南歐一帶가 붉은 軍隊의 勢力下에 들어가게 되자, 이 地域의 여러 나라에는 1944~1945에 걸쳐 새 政權들이 수립되었다. 모스크바의 影響下에 있던 이 政權들의 性格은 얼마後 그 代辯人들에 의하여 흔히 新民主主義, 때로는 人民民主主義라고 規定되었다. 人民民主主義라는 用語를 최초로 使用한 것은, 익살맞게도 1948年 여름 콤민프름에 의하여 人民民主主義의 敵으로 낙인을 찍힌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Tito) 가 1945年 유고슬라비아祖國戰線會議에서 한 演說에서의 일이었다.

初期에는 人民民主主義라는 用語보다는 이미 1930年代에 毛沢東이 定式化한 新民主主義라는 用語가 빈번히 使用되어 왔으나 1948

1945. 유고슬라비아祖國戰線會議에서 티토 演說

년에 들어서면서 新民主主義라는 用語는 이렇다 할 公的 說明이 없는데 人民民主主義라는 말로 바뀌고 그後 東歐와 亞細亞의 共産 党政權들은 人民民主主義를 公稱語로 삼았다. 그러나 東歐의 共産 主義者들이 <新民主主義>란 用語를 毛沢東으로부터 借用했던 것인 지는 疑問이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은 中國共産主義運動에 관한 자세한 知識이 없었고, 설사 있었다고 해도 아직 延安에 집거하고 있던 毛沢東의 權威를 빌리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東歐의 新政權들은 1917年の 러시아와는 相違한 條件과 歴史的 背景에서 發生하고 있는 自國의 革命的 變革을 馬스·레닌主義의 國家·社會理論의 테두리 안에서 說明하여야 하는것이 當面한 課題였다.

그런데 馬스·레닌主義理論의 最高權威者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던 스탈린 自身도 이 新政權들의 性格에 關係 一定한 定義를 내리지 못하고 모호하게 東歐의 民主化란 말을 強調하고 있었다. 모스크바로부터 明確한 指示가 없었던 때문에 東歐의 共産主義者들도 共産黨 및 非共産主義政黨의 聯立政權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새로운 國家形態에 對해 統一的인 馬스·레닌主義的 規定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소聯軍의 進駐를 背景으로 實質적으로 聯立政權을 支配하고 있던 디미트로브(불가리아), 비에루트(Bierut) 및 코를까(Comulka)(和蘭), 라코시(Rakosi) 및 레바이(Revai)(헝가리), 고트발트(Gottwald)(체코슬로바키아) 등 各國 共産黨指導者들은 共産主義의 理想論과 聯關시켜 新政權의 本質을 說明

하려고 試圖는 했었으나 그들의 說明은 断片的이었고 理論的 明確性을 欠如하고 있었다. 헝가리 共産党的 指導的 理論家로 지목되고 있던 레바이 (J. Reuai)가 後에 와서 党幹部들에게 솔직하게 告白한대로, 初期에 <党은 人民民主主義의 性格과 그 未來의 發展에 關해 統一的이오, 明析하고, 정밀한 立場을 取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 主要한 理由는 맑스·레닌主義에 있어서의 소위 <過渡期> 理論과 특수한 國際情勢의 制約때문에 스탈린이 그의 衛星國들에 대한 明確한 性格規定을 보류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資本主義와 共産主義와의 中間에는 하나의 <過渡期>가 가로 놓여 있고 이 過渡期政權의 本質이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規定은 맑스·레닌主義의 革命理論에서는 核心的 問題로서 提起되어 왔다

1875年 맑스는 그의 고타 <<綱領評論>>에서 <資本主義社會와 共産主義社會와의 사이에는 前者의 後者에로의 革命的 轉化의 時期가 가로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이 時期는 政治上의 過渡期에 해당하여, 그 國家는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的 獨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단한 說明을 제시한바 있다. 맑스의 이 古典的 命題는 러시아의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부르조아지에 대한 暴力的 抑壓의 側面을 강조하는 方向으로 再解釋되었다. 즉 레닌은 資本主義에서 共産主義에로의 過渡期에는 多樣한 政治形態가 나타난 것이지만 <그 本質은 오직 하나,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일 것이다>라고 斷定하고 이것은 부르조아지를 抑壓하기 위한 暴力

組織이라는 點을 역설하면서, 맑스主義를 단순히 階級鬪爭의 理論에  
다 局限시키는 것만으로는 不充分하며 <階級鬪爭의 是認을 프롤레  
타리아트의 独裁의 是認에까지 확장하는 사람만이 맑스主義者>라고  
 했다. 레닌은 十月革命後 러시아에 樹立한 소비에트制度를, 맑스  
 가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의 典型으로 보았던 <<파리·공문>>과  
 同一視한 以後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소비에트制度라는 等式이  
 共產主義者들 間에 適用되었고 이것은 스탈린에 依하여 계승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第二次大戰直後 東歐各國에서 수립된 政權들의  
 性格을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라고 規定할 수는 없었다. 첫째로는  
 이 地域에 수립된 政權들은 히틀러의 侵略에 反對하여 抗爭한 社  
 會民主黨, 農民黨 등 非共產主義 政治勢力과 共產黨과의 聯立政權이  
 었다. 共產黨은 유고슬라비아를 除外하고는 少數派였지만 이들은  
 소聯軍의 支援下에 어디서나 聯立政權內에서 要職을 차지하고 있었  
 다. 이에 대해 한동안 資本家들도 政治勢力을 유지하고 있었고  
 勞動階級の 多大數는 社會民主黨의 組織下에 있었으며, (헝가리, 체  
 코슬로바키아等) 農民들은 反共的인 農民黨을 支持하고 있었다 (헝가  
 리, 폴란드, 불가리아等). 이러한 東歐의 初期政權들을 <소비에트  
 政權>,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라고 規定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소聯의 軍事力을 배경으로 모스크바의 統一戰線戰略에 의  
 해 수립된 政權들을 <부르조아独裁>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  
 러하여 大戰後의 특수한 情勢下에서 수립된 이 特특한 形態의 새  
 政權들의 性格을 어떻게 規定하고 概念化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맑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가 해결해야 할 理論的 課題였다. 여기서 모스크바와 東歐의 共產主義者들이 새로히 내세운 概念이 곧 <人民民主主義였다.

人民民主主義에 關한 初期의 理論上의 共通點은 첫째로 人民民主主義制度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도, 부르조아獨裁도 아닌) <第3의型> 내지는 <새로운型>의 政權이요 <소비에트制度>와는 相違한 것이라는 說明이었다. 이를테면 더미트로브는 1946年 <불가리아는 소비에트共和國이 되지 않고 人民共和國이 될 것이다. 여기서 政府의 機能은 광범한 人民의 多大數-勞動者, 農民, 職人 그리고 人民의 知識分子들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이 共和國에서 는 어떠한 獨裁도 없을 것이다>라고 言明했다. 폴랜드의 비에루트는 <이 特殊한 制度는 어떤 既成의 모델을 士臺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소비에트社會主義制度와도 유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西方의 古典的 經濟體制(資本主義-筆者)와 유사한 것도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둘째로, 이들은 人民民主主義制度를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하나의 過渡期的 政權形態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었으나, 人民民主主義制度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거치지 않고 社會主義에로 넘어가는 獨特한 길로 說明하고 있었다. 더미트로브의 말을 다시 빌리면 불가리아의 <社會構造, 그리고 그의 國內的·國際的 情勢에 關한 科學的 分析에 의하면 불가리아는 獨自的인 길을 따라,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없이 社會主義로 移行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번번히 声明했고 그 基礎를 마련했다 > 고 했다. 보다 明確한 說明을 試圖한 共產主義者는, 訝물까인데 그는 人民民主主義에 関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社會主義로 發展하는 폴란드의인 길..... 이 概念은 폴란드의 發展에서 暴力的 革命的 蜂起는 必要치 않고, 가장 곤란한 過渡期의 政治形態로써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必要를 배제하고 있다는 點에서 主要하다. .... 우리의 民主主義는 바로 우리의 經濟制度가 社會主義經濟와 資本主義經濟의 많은 特性을 가지는 것처럼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많은 要素와 더불어 自由主義的 부르조아民主主義의 많은 要素를 갖추고 있다. 우리의 民主主義形態 및 우리의 社會制度를 우리는 <人民民主主義>라고 부른다.

暴力革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없이도 社會主義로 移行할 수 있다는 以上の 一聯의 論點들은 맑스·레닌主義의 正統的 革命理論에 배치되는 것이다. 東歐의 共產主義者들은 그 論點를 소聯의 支援下에서 統一戰線傘下의 聯立政府들이 平和的으로 社會主義의 土台를 닦을 수 있다는 可能性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나 人民民主主義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고 規定하지 못한데는 몇개의 政治的 考慮가 숨어 있었다. 즉 첫째는 人民民主主義制度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體制로 規定한다면, 社會發展<法則>으로 보아 客觀的 條件이 아직 未熟한 소聯의 衛星國들을 프롤레타리아트獨裁國家인 소聯과 同位의 水準에 놓게 되어 先進的 소聯의 權威를 훼손할 수 있다는 憂慮가 아닐 수 없었다. 다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말은 東歐諸國의 民族主義的 感情과 특히 統一戰線內的 非共產主義者들의 感情을 손상하게 된다는 配慮였을 것이다.

셋째로 東歐共產主義者들은 對파시스트戰爭過程에서 형성한 民族

統一戰線을 기반으로 하여 人民民主主義政權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強調하는 反面, 소聯軍이 解放戰에서 한 役割과 人民民主主義制度를 수립함에 있어서 제공한 소聯의 戰後支援을 副次的으로 是認은 했으나 그것을 크게 評價하지는 않았다. 그 理由는 東歐의 戰後變革은 어디까지나 戰爭中の 友誼와 團結을 土台로 東歐各國의 民主主義政黨들이 <自發的>으로 조직한 聯立政府에 의하여 斷行되고 있는것이며, 소聯의 強壓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印象을 주는데 必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點에 關해서는 뒤에 再論하기로 한다.

그런데 人民民主主義制度에 關하여 누구의 것보다도 權威있는 說明은 소聯의 學者들로 부터 나왔어야 했다. 소聯에서 人民民主主義의 理論的 解明을 처음 試圖한 사람은 바르가 (E. S. Varga), 트라이닌 (I. P. Trainin), 레온체브 (A. Leontiev) 등 当代 第一級の 學者들이었다. 헝가리 出生의 바르가는 소聯 經濟學界의 泰斗로써 世界政治經濟研究所所長의 地位에 있었으며, 트라이닌은 科學아카데미 法律研究所長이었고, 레온티브는 저명한 經濟學者였다. 이들은 1947年 거의 같은 時期에 東歐新政權들에 關한 論文을 소비에트學術誌에다 發表했던 것이다. 바르가는 自己의 論文의 제목 그대로 이 新政權들을 <새로운 型의 民主主義> (Democracy of a New Type) 라고 불렀고, 트라이닌은 <特殊한 型의 民主主義> (Democracy of a Special Type) 이라고 規定했다.

인민민주주의 1948/1949년  
공정

바르가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의範疇를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알바니아에 局限시키면서 그 特徵을 맑스·레닌主義的 社会經濟理論의 背景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社会經濟体制: 이 나라들에서 封建的 殘滓, 즉 大土地私有制는 清算되었다.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는 아직 存続하고 있지만, 工業·運輸·信用 등의 企業은 国有化되었다. 이 나라들은 一般的 意味의 資本主義國家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社会主義 國家도 아니다.

(2) 政權의 性格: 國家의 權力(強壓機構)은 <獨占的 부르조아지 의 利益이 아니다. 都市와 農村의 勤勞人民들의 利益에 봉사한다.> 이 나라들의 社会組織은 프롤레타리아獨裁도 부르조아獨裁도 아닌 <人類의 歷史上 完全히 새로운> 것이다.

(3) 土地改革의 重要性: 大地主들의 土地를 國家가 몰수하여 土地 없는 農民 또는 土地를 적게 가진 農民들에게 分配하므로써 이들은 <새 政權의 忠實한 支持者가 되었다.>

(4) 階級鬭爭: 階級鬭爭에 있어서도 이 나라들과 資本主義 나라들 間에는 <原則上的 差異>가 存在한다. 낡은 부르조아 國家에서 는 官僚·裁判官·警察·常備軍은 資本家階級의 손 안에 들어있는 支配道具이지만 여기에서는 國家의 權力機關이 反對로 勞動階級의 手に 서 있다.

(5) 議會民主主義: 共産黨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認識은 勞動階級

그의 ~~이론~~ 경제학자들 { E.S. Varga (바르가)  
 소련 { I.P. Trainin (트라이닌)  
 A. Leontiev (레온티에프)

의 政治的 支配는 소련에서와 같이 <오직 소비에트權力を  
 통해서만> 實現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새로운 型의 民主主義國家들이 出現함에 따  
 라 勞動階級은 <議會民主主義의 外形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政治的 支配를 수립할 수 있다.

(6) 이 나라들은 소련과의 긴밀하고 友好的인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이 나라들이 비단 소련軍의 승리에 의하여  
 獨逸占領軍으로부터 解放되었고, 이 나라들이 슬라브國家인  
 까닭만은 아니다. 主要한 理由는 <그의 現社會制度가 이 나  
 라들을 소련에 接近시키고 있으며>, 大國中 오직 소련만이  
 이 나라들의 社會制度와 現政權을 유지 發展시키는데 關心이  
 있고, <外部로부터의 反動的 攻擊에 대해 外交的 支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要約한 바르가의 所論의 核心은 東歐의 人民民主主義制  
度가 맑스·레닌主義에서 規定된 부르조아民主主義 (= 부르조아獨裁)  
 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프롤레타리아獨裁와 混同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人民民主主義制度가 소비에트制度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點을 分析한데 있다. 共產主義者로써의 그의 理論的 究明  
 이 社會主義者를 포함한 西歐民主主義者들의 見解와 相違한 것은  
 不可避한 일이지만, 그의 설명은 확실히 맑스·레닌主義의 正統的  
이데올로기로부터의 偏向이었다. 이러한 偏向이 모스크바에 의  
 하여 許容된 것은 東歐에서 共產主義者들이 아직 單獨으로 政權을

① 勞働者의 勞力은 政權은 勞働者를 爲하여 成長하지 못했고  
 ② 非共産主義者들은 刺戟을 하지 않았으며 統一戰線을 一時的으로 利用하여 政治的 要請 때문이었다.

트라이닌의 要請 때문이었다. 한편 트라이닌은 여러 點에서 바르가의 理論을 답습은 했지만, 바르가와는 強調點을 달리하고 바르가의 說明을 보충하면서 自己의 新 理論을 展開했다. 그는 人民民主主義의 國家範疇을 확대하여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이에 첨가했다. 그리고 그는 眞實로 唯一한 <새로운> 民主主義는 소비에트 民主主義 밖에 없다는 뜻에서 <새로운 型>이란 말의 使用을 보류하고 이것을 <特殊한 型> 또는 <人民>이란 말과 바꾸었다. 그는 바르가 보다는 新政權들의 概念을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概念에 더욱 接近시켜 說明했다. 그의 說明에 있어서 바르가와 相違한 點만을 例挙하면 다음과 같다.

- ✓ (1) 人民民主主義의 起源: <特殊한 型>의 民主主義는 그 起源을 스페인 人民戰線 (1935~3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36年 8月의 스페인 共産黨綱領은 許多한 社会的·經濟的 改革을 제시하면서도 소비에트 制度의 導入을 要求하는 直前に 그쳤다.
- ✓ (2) 新政權의 特性: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의 경우 革命的 變革이 가능했던 것은 <官僚的·軍事的 機構의 파괴는 한 나라의 革命에 先行하는 必要條件>이라는 레닌主義原則을 固守했던 때 문이다. 이 두 나라는 <파시스트 및 親파시스트分子들>을 權力機關에서 축출했었다.
- ✓ (3) 經濟政策: 私的 所有은 존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려되는

것은 아니다. 부르조아지는 政治-經濟에서 指導的 役割을 상실하고 있으며, 어떤 私企業的 創發性도 經濟의 最高高地를 장악한 政府의 統制에 복종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부르조아分子가 반드시 다 파시스트는 아니므로 勞動階級の 政策은 急進的 부르조아分子들을 反動分子들과의 鬪爭에서 利用하는데 있다.

(4) 階級鬪爭 : 統一戰線의 조직은 勞動階級이 階級鬪爭없이 그 目標에 도달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權은 全民族的 努力이 勤勞大衆의 利益과 一致하는 方向으로 向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이다.

(5) 소聯과의 差異 : 十月革命後의 소비에트政權과 東歐新政權들과의 差異는 共產主義者들이 強調點을 바꾼데서, 찾아 볼 수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獨裁에 관한 맑스·레닌主義理論의 妥當性을 인정하면서도 <現在의 現實的인 歷史的 條件에서 가장 重要한 課題는 民主主義의 成果를 광범한 民族的 기반 위에서 수호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新政權들이 共產黨에 의한 은폐된 獨裁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惡質的 流言이오, 中傷>이다.

(6) 革命의 成功要因 : 比較的 少數의 프롤레타리아를 가진 이 나라들에서 革命이 成功한 要因은 ㉔ 改良主義的 (右派) 社會主義集團의 脆弱性과 ㉕ 共產主義者들의 指導的 地位獲得 및 이들의 紀律있는 組織體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㉖ 決定的

要因은 <소聯의 存在>라는 事實에 있다.

위에서 看取할 수 있는 바와 같이 人民民主主義制度에 관한 소비에트學者들의 初期理論에는 그 名稱, 起源, 性格規定 및 内容 分析上의 統一点이 없었다. 스탈린과 그의 衛星國共產黨幹部들은 東歐諸國은 장차 소聯型 共產主義國家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意圖와 計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新政權들의 本質을 說明함에 있어서 統一的인 理論을 定立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러가지 理由가 있었다. 그 첫째는 衛星國들 間의 政治情勢에는 過渡期的 差異가 있었다는 點이다. 이를테면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의 경우는 社會民主黨 또는 農民黨, 共產黨으로 구성된 事實上의 聯立政府가 1948년까지 존속되어온 反面,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에서는 共產黨의 一黨獨裁體制가 完成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議會民主主義의 樣式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들(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等)이 있는가 하면 아직 王政이 保存되고 있는 나라(루마니아)도 있었다.

한편 社會發展面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는 先進工業國의 水準에 도달해 있었고, 共產黨은 相當한 數의 組織勞動者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封建的 殘滓가 남아있는 農業國이었고 多數派인 農民黨은 強한 反共產主義的 性向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第二次大戰以後에 나타난 多樣하고 복잡한 東歐諸國의 情勢를 소비에트·맑스主義의 테두리 안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나 <勞動者·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나 하는 過渡期에 關한 既成理論



人及反共主義의 女流 (終- 邦交編을 終지 못하고 邦交編)  
 1944, 蘇聯占領下의 政治情勢에는 過渡期를  
 示했다. 是時에 在는 時  
 1945, 第2次大戦直後의 國際關係였다.  
 1946, 蘇聯占領下의 政治情勢

에다 適用시키기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새로운 過渡期를 說明하  
 여야 할 必要性은 中대한 理論上의 諸問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는 第2次大戦直後의 國際關係였다. 對파시스트戰爭 中에 美  
 · 英 · 蘇 등 聯合國間에 서명된 諸協定과 各國의 最高指導者가 單獨  
 으로 發表한 一聯의 聲明, 聲明들은 大戦後의 東歐諸國들을 <民主主義>  
 의 方向으로 발전시킬 것을 約束했던 것이다. <民主主義  
 >란 막연한 政治的 概念을 루즈벨트와 처칠은 歐美式 代議民主  
 主義로 해석했고, 이와는 反對로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 (=

프롤레타리아獨裁)로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944~  
 1947年 동안에 소聯占領下의 東歐에서 鞏固化되어가고 있던 新政權  
 들의 本質을 소聯側은 그의 戰時同盟員들로부터 은폐하려고 애썼  
 다. 만일 共產主義者들이 新政權들을 프롤레타리아獨裁 또는 그것  
 을 指向하는 政權이라고 宣言한다면 적어도 初期에는 國際的 紛爭  
 을 일으킬 危險性이 있었고, 各國共產黨은 소聯軍의 銃劍에 依支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暴露하는 結果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新政權을 프롤레타리  
 아獨裁와 관련시켜 그 性格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非共產主義者들을  
 <民主主義>라는 希望的 기대에 붙들어두면서 이들을 利用할 기회  
 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非共產主義政黨들의 去勢, 土地改革의 強行, 大産業의  
 國有化 등 共產黨의 權力基盤을 굳혀가는 過程에서는 이것을 <社會

主義>나 <프롤레타리아革命>이니 하는 概念으로 說明하는 것을 삼갔다. 모스크바가 特別히 留意한 것은 各衛星國共産黨들로 하여금 非共産主義者들의 警戒心을 해이시키기 위하여 黨의 最少綱領만을 提示케 한 點이오, 맑스·레닌主義의 最大綱領을 公言하는 共産主義者들은 <左翼的 偏向>이라고 해서 批判했다. 이것이 이른바 <共産主義者들의 戰術的 偽裝>으로 불리우는 路線이었다. 레바이는 後에 와서 헝가리 共産黨의 偽裝戰術을 회고하면서 이 時期의 鬪爭에서 <우리들의 속셈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옳았다> (It was correct not to show our cards)고 告白했던 것이다. 要컨대 이 時期는 共産主義者들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의 戰術的 禁慾 時代였던 것이다.

셋째 理由는 經濟理論上의 考慮였다. 新政權들은 大産業과 金融機關들을 國有化하므로써 經濟의 소위 <社會主義的 部門>을 창설하기는 했지만, 한편 小企業의 私營을 존속시키고 土地改革을 통한 自作農의 土地私有用을 當분간 許容하므로써 <社會主義的> 所有와 <資本主義的> 所有가 混合共存하는 經濟制度가 出現했다. 이 制度를 소聯의 學者들은 大戰後의 特有的 現象으로 보고, 이것을 부르조아民主主義, 프롤레타리아獨裁의 어느 한 範疇에다 잡아넣지를 못하고 있었다. 한편 外部의 일부 素朴한 觀測者들은 소聯勢力圈內에서 發生한 一時的 混合經濟體濟를 마치 소聯과 西方側의 妥協可能性問題에 대한 解答인양 錯覺했고, 이 新經濟體制야 말로 集産主義經濟와 個人的 自由의 理想을 결합시킬수 있는 契機가 될

社會主義的 經濟  
資本主義的 經濟  
混合經濟

이것이 어떻게 成長하여 社會主義로 移行할 것인지에 關해서는 說明이 모호했다. 그리하여 東歐의 共產黨들은—특히 自主的 性向을 가진 黨幹部들은—社會主義를 指向함에 있어서 소비에트의 결과는 별도의, 自國의 <獨自의인 路>을 追求한다고 主張했던 것이다. 소비에트의 결과는 相違한, 各國의 獨自의인 路를 걸어 社會主義에 도달한다는 것은 正統的 맑스·레닌主義의 理論과 政策으로부터의 <偏向>의 自由를 시인하는 것이오, 소聯의 指導를 거부하고 소聯으로부터 離脫現象을 초래할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었다. 1947年 9月의 콤인포름 (Cominform) 創設은 그러한 偏向과 危險性을 제거하고 東歐諸國을 스탈린主義에 의하여 劃一化, 衛星國化하자는 劃期的 措置였다.

世界政治의 角度에서 본다면 콤인포름의 創設은 世界가 兩大陣營으로 分裂하고 冷戰이 激化하는 事實의 公公然한 表現이었다. 大戰直後까지 존속되었던 小聯과 英·美間의 戰時同盟國으로서의 一般的 友誼는 급속히 사라지고, 소비에트社會主義와 資本主義世界 사이의 基本的 差異點을 力說하는 소리가 갑자기 높아갔다. 벌써 1946年 2月 스탈린은 最高소비에트 代議員選舉演說에서 大戰의 發生原因을 맑스主義的으로 分析하면서 資本主義制度를 은근히 비난하고, <소비에트社會秩序는 어떤 非소비에트社會 秩序보다도 優越한 組織形態요 社會>라는 것을 再強調하기 시작했다. 希臘에서 共產主義者들의 게릴라戰과 스탈린의 占領地域의 소비에트化 推進등 一聯의 膨脹主義政策에 直面하여 1946年 3月 처칠은

것이라고 <期待와 願望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이다.

바르가와 트라이닌으로 代表되는 소비에트學者들의 人民民主主義理論에 있어서의 一致點은, 이 制度가 社會主義에로 移行하는 過渡期的 性格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한 點이다. 그리고 그들은 <勞動者>나 <勞動階級>이니하는 이름에서 一括해서 불리우는 共産黨이 聯立政府에서 차지하고 있는 重要的 地位(警察, 宣傳等)를 正當化하기 위하여 東歐共産黨들의 對파시스트戰爭에서의 탁월한 抵抗業績을 들었다. 그러나 共産黨의 抵抗業績이 특출한 나라도 있었지만 (유고슬라비아), 보잘것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었다. 東歐諸國의 聯立政權에서의 共産黨이 차지한 높은 地位는 決定的으로 소聯軍의 進駐라는 要因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余他的 要因들은 단순한 虛飾이 아니면 副次的인 役割을 한데 不過했다. 그러나 소비에트의 理論家들은 소聯의 武力을 배경으로 소비에트化의 土臺를 닦고 있던 東歐諸國의 現實을 은폐하기 위하여 소聯軍의 進駐라는 外部的 條件보다는 各國共産黨의 對파시스트戰爭에서의 抵抗이라는 主体的 條件을 더 強調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人民民主主義政權을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 移行하는 過渡期的 政權으로 인식은 하면서도, 이것을 부르조아獨裁도 프롤레타리아獨裁도 아닌 <새로운> 또는 <特殊한> 또는 <第三의> 政權形態라고 規定했던 것은 맑스·레닌主義의 過渡期理論에다 混亂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르가와 트라이닌은 다 같이 人民民主主義制度의 發生과 現況分析에만 重點을 두었고,

홀튼(Ful-ton)에서 소聯의 〈鐵의 帳幕〉을 공격하면서 美·英의 제후를 호소하는 有名한 연설을 했다. 그리하여 트루만·독트런과 마샬計劃으로 美國은 소聯의 膨脹主義에 대항했고 소聯은 英·美에 대한 치열한 이데올로기 攻勢를 전개하면서 그 勢力圈內에서의 〈人民蜂起〉를 선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소聯의 官用理論家들은 世界를 〈美國을 피수로 하는 帝國主義陣營과〉과 〈소聯을 先頭로 하는 民主主義陣營〉으로 兩大分하여 國際政治를 分析했고, 東歐圈에 대한 積極的인 소비에트化 - 〈民主主義陣營〉의 鞏固化에 着手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위한 強力한 機構가 바로 콤민포름이었다.

西方側에 대해 이미 이데올로기戰爭과 政治戰爭을 公公然히 선포한 以上, 소聯은 더 주저할 것이 없었다. 人民民主主義制度를 프롤레타리아獨裁도 아니요 부르조아獨裁도 아닌 第三의 型이라는 機會主義的 解釋은 더 以上 必要치 않았다. 이러한 情勢에서 스탈린의 兩大陣營論을 추종하면서 既成 이데올로기는 修正을 避할 수 없이 되었고 人民民主主義에 關한 새로운 解釋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聯과 그 衛星國들 間의 發展上의 差異, 各衛星國의 特殊性, 社會主義로 가는 獨自的인 길에 對한 強調는 弱化되고, 兩者間의 〈本質的 同一性〉을 強調하는 人民民主主義의 後期理論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 2. 後期理論

### 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宣言

人民民主主義에 관한 後期理論이 公式的으로 提唱된 계기는 1948年 티토( Tito )의 유고슬라비아가 <民族主義的> 偏向으로 몰려 1948年6月 콤민포름에서 追放된데서 나타났다. 콤민포름의 <<決定書>>는 유고슬라비아共産党的의 <反소의 態度>를 공박하면서 同党的의 路線을 철저한 스탈린主義의 觀点에서 다음과 같이 批判했다.

国内政策에서 유고슬라비아 共産党指導者들은 勞動階級의 立場에서 離脱하고 있고, 階級 및 階級鬭爭에 關한 맑스主義理論에서 袂別하고 있다. 그들은 自国内에서 資本主義的 分子가 成長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農村에서 階級鬭爭이 尖銳化하고 있다는 事實을 否認한다. 이러한 否認은,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 넘어가는 過渡期에는 맑스·레닌主義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階級鬭爭이 더욱 尖銳化하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의 平和的 成長理論을 내세웠던 부하린型 機會主義者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消滅한다고 하는 機會主義的 敎說의 直接的 結果이다.

..... <農民은 유고슬라비아 國家에 가장 견고한 基礎이다>라고 주장 하므로써 그들은 勞動者階級의 指導的 役割에 關한 맑스·레닌主義理論으로부터 離脱하여 人民主義的, 富農的 政党的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콤민포름의 對유고슬라비아 非難은 동시에 소聯圈內에서의 人民民主主義에 關한 初期理論을 全的으로 否認하는 것이었다. 人民民主主義를 부르조아獨裁도 프롤레타리아獨裁도 아닌 <第三의 길> 또는 <獨自의 인 길>이라고 規定했던 東歐諸國中에서도 유고슬라비아 共産党的의 敵對階級에 대한 抑圧은 가장 甚했고 유고슬라비

아의 聯邦憲法은 소聯憲法과 가장 類似했다. 콤민포름의 <<決定書>>는 티토一派가 共產黨의 役割을 輕視했다고 한다. 즉 <黨은 國家에서 主되는 嚮導 및 指導勢力이오, 그의 獨自的 綱領을 가지고 또한 非黨的 大衆속에 解消될 수 없는 勢力>이라는 맑스·레닌主義의 理論에도 不拘하고, <유고슬라비아 共產黨은 이러한 맑스·레닌主義의 黨에 關한 敎訓을 修正하고 있다>고 批判했던 것이다. 그러나 當時의 유고슬라비아의 政治權力은 東歐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共產黨에 集中되고 있었던 것이며, 소聯에서 말하는 소위 프롤레타리아獨裁 權力과 다를바가 없었다. 티토가 소聯에 대해 叛旗를 든 根本原因은 스탈린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民族的 모욕과 國家的 支配策動에 있었다. 티토가 <階級鬪爭>과 <黨의 指導的> 役割을 無視했다는 콤민포름의 批判內容은 스탈린의 大國主義政策을 正當化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상의 造作이었다.

유고슬라비아가 콤민포름에서 追放되면서 東歐의 諸共產黨內에서는 自立的 共產主義者들을 <右翼民族主義的 偏向>, <티토主義>로 불아 肅清하는 一大旋風이 일어났다. 이들은 비단 이데올로기의 偏向뿐만 아니라 때로는 <國家叛逆>의 罪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이 肅清旋風에 편승하여 各黨內에서는 치열한 權力鬪爭이 전개되어 陰謀와 讒조에 의하여 民族主義와는 無關한 많은 黨幹部들이 処刑을 當했다. 이 티토主義 肅清은 1936~38年의 소聯內의 大肅清과 흡사하여 結局은 누가 누구인지를 區別할 수 없는 修羅場을 연출했던 것이다. 3~4년에 걸친 이 混亂이 얼마나 甚했던가는 다음에 表示하는 各國共產黨의 肅清의 규모에서 感知할

수 있다.

波 蘭	체코슬로 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東 獨	불가리아
370,000 名	550,000 名	200,000 名	200,000 名	300,000 名	90,000 名

이것은 平均으로 보아 每黨員 4 名中 1 名에 해당한 것이다. 그리하여 헝가리의 前內務相 라이크 ( L. Rajk ), 불가리아의 前副首相 코스토프 ( T. Kostov ), 체코슬로바키아의 前外相 클레민티스와 前副首相 슬란스끼 ( R. Siansky ), 루마니아의 前黨政治局員 파우케르 ( A. Pauker ) 와 파트라스카누 ( L. Patrascanu ), 東獨의 前黨政治局員 메르케르 ( P. Merker ), 波蘭의 前黨書記長 고물까 ( W. Gomulka ) 등 허다한 黨最高幹部들은 死刑, 投獄 逐出의 悲運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中 라이크, 코스토프 등의 屍體에는 스탈린死後, <名譽回復>이란 榮光이 주어졌고, <帝國主義의 道具> 고물까는 再起의 기회를 가졌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罪人>의 烙印을 찍힌대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東歐에서 <티토主義者들>이 소탕되고 스탈린의 支配體制가 強制되고 있던 政情을 反映하여 人民民主主義 理論도 社會主義建設에서의 소聯의 歷史的 經驗, 소聯의 國際的 役割, 各國 共產黨의 指導的 役割 階級鬭爭의 主要性을 強調하는 方向으로 修正되기 시작했다. 이 人民民主主義의 後期理論에다 새로운 座標를 Dimistrou 설정했던 理論家는 디미트로브였다. 즉 1948年 12月 디미트로브는 불가리아 勞動黨 第五次大會를 계기로 從來의 理論의 未備와 誤謬를



批判하고 새로운 理論体系의 定立을 試圖했던 것이다. 그는 人民民主主義國家의 性格을 다음 몇가지 內容에 의하여 새로 規定하였다.

✓ (1) 소聯의 貢獻: 人民民主主義國家는 第2次大戰에서의 소聯의 歴史的 勝利와 獨逸파시스트 勢力의 敗亡의 結果로, 그리고 勞動階級の 指導下에서 전개된 民族的 自由와 獨立을 위한 大衆의 鬪爭에 의하여 發生했다. 그리하여 東歐의 여러나라들은 帝國主義體制에서 離脫하게 되었다.

✓ (2) 人民民主主義國家의 4大特徵

a. 人民民主主義國家는 勞動階級の 指導下에 있는 勞動하는 圧倒的 多數人民의 國家이다.

✓ (3) 소聯에 依存하여 社會主義로 移行: 파시스트 侵略國의 敗亡, 資本主義의 一般的 危機, 소聯의 力量의 成長 등 一聯의 條件에 의하여 人民民主主義國家는 소聯과 余他 人民民主主義國家들에 依存함으로써 소비에트政權을 形成하지 않고도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로 移行할 수 있다.

✓ (4)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機能: 人民民主主義政權은, 勞動階級の 指導下에 資本主義的 要素를 清算하고 社會主義 經濟를 조직하고 있는 歴史的 現段階에서는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하지 않으면 안된다.

✓ (5) 黨의 任務: 人民民主主義國家는 이미 社會主義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内外의 敵과 싸우면서 社會主義建設에 必要한

# 민족주의는 혁명 투쟁의 적 (디미트로브)

↳ 민족주의가 혁명 투쟁의 1의 선봉

① 민족주의 = 일당독재

조건들을 창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노동

② 소련의 후진

階級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共産党的 主要한 任務이다.

③ 소련의 발전

(6) 민족주의에 대한 鬪爭: 人民民主主義는 國際主義를 支持한다.

④ 민족주의의 해체  
본질

民族主義는 國際主義와 兩立할 수 없다. 우리 黨은 偉大한

⑤ 민족주의의 抹殺

스탈린을 先頭로 하는 國際主義에서 우리나라의 獨立의 保障과

에 대한 7개의  
호를

번영과 社會主義에로의 前進를 直視한다. 우리는 民族主義를

그것이 어떤 暇面을 쓰던간에 共産主義의 敵으로 생각한다.

왜 그런가는 유고슬라비아內的 티토民族主義集團의 反共産主義的

實踐이 역력히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民族主義를 反對

하는 鬪爭은 共産主義者들의 第1의 任務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要約 引用한 디미트로브의 理論은 東歐諸國內에서의 共産党的 一黨獨裁, 소련의 優位, 소련의 統制, <社會主義> 制度樹立, 自主性 抹殺에 대한 歷史的 宣言이었다. 디미트로브는 自己의 主張을 제시할때 소련共産黨과 <무엇보다도 스탈린 同志로부터 個人的으로 받은 時時切하고 극히 貴重한 助言>에 感謝한다는 말을 덧붙였던 것이다. 디미트로브의 演說을 前後해서부터 社會主義로 가는 <獨立的 道>이란 말은 東歐에서는 이미 사라졌고 소련의 歷史的 經驗을 배워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갔다. 이 디미트로브의 演說은 東歐의 衛星國化를 위한 '基礎作業의 完了, 스탈린主義의 國際化에 대한 出發信號였다. 이러한 情勢變化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各國 共産黨指導者들은 理論的統一을 試圖하는 말을 부랴부랴 發表했던 것이다.

디미트로브의 演說은 決코 突發的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이에 앞서 1948年 8月 波蘭의 党政治局長이었던 민츠 (Hilary Minc) 는 콤민포름 機關紙에 기고한 <人民民主主義 波蘭에서, 社会主義 波蘭으로>라는 그의 論文에서, 資本主義와의 妥協이 不可能함에도 不拘하고 <中間의 路>이니 <第三 路>이니를 追求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렬히 攻擊하면서, 이것은 <第三의 路> 이 아니라 <第一의 路>, 즉 <資本主義의 路>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社会主義에 關한 소비에트의 經驗은 <世界史的 意義를 가지며 社会主義의 路를 扞한 모든 民族들의 前例가 된다>고 스탈린主義를 찬양했던 것이다. 한편 헝가리의 라코시 (M. Rakosi) 도 農業集團化를 強調하면서 <만일 우리의 農業이 그대로 資本主義的 路를 따라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人民民主主義의 모든 目的에 대한 威脅으로 될 것이다>라고 쓰면서 社会主義 建設이 進展되면 <소聯의 社会主義建設의 모든 特徵은 適用될 수 있다>고 스탈린主義化를 선포했다. 디미트로브의 演說이 東歐 各共産党的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하나의 既定 코스를 따라간데 不過했다.

디미트로브의 演說을 起點으로하여 소聯에서는 그가 제시한 理論的 修正의 方向을 따라 만콤폴스키 (B.S. Mankovski.), 유진 (P. F. Yudin), 파르베로브 (N.P. Farberov) 등의 學者들이 人民民主主義의 새로운 敎說을 定式化하는 作業에 着手했다. 그리고 科學 아카데미 經濟學研究所에는 피구르노브 (P.K. Figurnov) 教授 밑

에 人民民主主義研究部를, 그리고 法律研究所에는 만콤포스키教授 밑에 相互研究部를 新設하고 學者들을 動員하여 討論會를 조직했다. 이것은 소聯이 그의 衛星國體制로서의 人民民主主義制度에 関한 理論 確立에 얼마나 큰 精力을 기우렸던가를 立證하는 것이다.

人民民主主義에 関한 官用理論確立의 첫 試圖는 파르베로브의 著書 〈人民民主主義에서의 公法〉 ( Gosudarstvennoye Pravo Stran Narodnoi Demokratii—Public Law in People's Democracy—Moscow, 1949 )에서 表示되었다. 소聯邦法律研究所가 이 冊을 出版하고 高等教育省은 이것을 大學法律研究所學生들의 教科書로 檢認定했다. 그의 著書는 東歐의 人民民主主義國家들의 分析에 注重하여 構成되었고, 蒙古人民共和國에 関해서는 그 特殊性과, 相違한 歷史的條件에 留意하면서 別個의 章에서 取扱했다. 이에 의하면 人民民主主義國家인 蒙古人民共和國은 封建制度에서 資本主義段階를 뛰어넘어 곧 社會主義에로 移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맑스·레닌主義의 社會發展法則에 符合되지 않는 例外를 인정하자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事實上 그法則의 普遍妥當性を 否認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政權의 性格에 関해서는 〈社會主義的이고 民主主義적인 人民의 權力과는 하등의 共通點이 없으며 ..... 獨逸의 히틀러, 伊太利의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그리고 希臘의 팔라다시로스政權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파시스트의 秘密警察政權〉이라고 덮어놓고 酷評하므로써 스탈린의 立場을 支持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에 関해서는 執行當時

의 資料不足 때문에 省略했다는 말은 北韓이 소聯의 學者들의  
큰 關心거리가 아니었음을 示唆하는 것이었다.

소聯의 學者들은 새로운 人民民主主義理論을 구성하기 위하여 맑  
스, 레닌, 스탈린을 無數히 引用하면서 討論을 거듭했다. 이러  
한 討論에서 그들은 人民民主主義가 本質적으로 프롤레타리아 独裁  
政權이라는 結論에 도달했던 것인데 이것은 소聯衛星國들 내에서  
共産黨이 支配權을 확립했다는 現實을 이데올로기적으로 確証한 것  
이었다. 科學아카데미 法律研究所에서의 討論에서 만콤포스키는 이러  
게 말했다.

人民民主主義 國家의 階級的 本質은 무엇인가? 人民民主主義  
國家는 프롤레타리아 独裁의 새로운 形態이다. .... 人民民主主義  
國家와 소聯의 差異點은 國家体制의 本質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本質을 表示하는 政治形態에) 있는데 不過하다.

人民民主主義에 관한 소비에트의 初期理論에서는 共産黨의 優位를  
솔직하게 是認하지는 않았지만 後期理論에서는 例外없이 勞動階級과  
그 前衛인 共産黨이 革命過程과 그리고 그 後의 社會主義 建設期  
에서 수행하는 役割을 強調하였다. 물론 이때 共産黨은 統一戰線  
에 立脚한 聯立政府의 構成員사이에서의 指導的 勢力으로 定式化  
되었던 것이다.

初期理論을 修正하는 過程에서 붉은 軍隊가 수행한 第二次大戰에  
서의 解放의 役割은 점점 높이 評價되었고 그 反面 美英軍의 役  
割은 無視되었을 뿐만 아니라 大戰後에 있어서는 危險한 存在로  
規定되었다. 만콤포스키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다.

人民民主主義 革命은 소聯이 파시스트 獨逸과 그 衛星國들을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격파한 공로로 可能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聯의 偉大한 役割은 이에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소聯軍은 中歐 및 東西歐諸國에서 英美의 內政干涉을 事前에 방지했고 또한 內亂도 事前에 방지했다.

소聯의 學者들은 그 衛星國들이 소聯이 取했던 <社會主義의 路> 과는 別途의 路를 扞하는것을 막기위하여 <소聯의 經驗의 國際的 意義>와 소위 社會主義에로의 移行期의 基本法則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만콥스끼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聯에서의 社會主義建設의 經驗은 人民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는 엄청나게重要하다. .... 새로운 社會主義國家의 建設, 한 나라의 工業化와 集團化 그리고 階級으로서의 富農의 除去 및 人間에 依한 人間의 착취의 除去의 經驗은 中歐 東南歐 나라들에게는 각별히 重要하다. 물론 이 나라들에서 社會主義建設은 수 다한 特殊性을 內包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階級鬭爭의 法則을 포함한 基本法則, 發展의 一般的 準則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

이와같이 <소聯의 經驗>을 無誤謬의 真理로 強調하는 소聯의 學者들도 레닌의 말은 無視할 수 없어서 各國의 發展上의 特殊性을 認定하기는 했어도 그것은 事實上 無意味한 말이었다. 파르베로브는 보다 솔직하게도 <나라의 數々만큼 社會主義로 가는 길이 많다>고하는 主張은 不正確한 것이며, <이러한 主張은 소聯의 經驗의 國際的 意義와 過渡期에 關한 基本法則의 否定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므로써 各國의 <特殊性>을 無視해 버렸다. 그가 느끼는 바로는 <人民民主主義諸國은 소聯이 社會主義에 도달하기 위하여 取한 路과는 區別되는 어떤 새로운 路를 따라 前進하는

것은 아니다 > 라고 말함으로써 人民民主主義 政權이 소비에트政權의 模写版임을 自認하고 말았다.

스탈린主義의 모델을 過渡期の 普遍的 法則으로 定式化해놓고 소聯의 經驗을 따르라는 方向으로 人民民主主義의 理論이 修正되자 衛星国指導者間 들에는 소聯의 經驗을 배우는 것이라기 보다는 소聯에 盲從하자는 뜻의 主張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들은 소聯의 方法은 最大限 그대로 適用하고 自國의 特殊性은 最少限度에 局限시키는 競争을 버렸다. 그리하여 스탈린의 著書들은 살아있는 古典으로 崇仰되고 스탈린主義型 重工業優先政策, 農村의 強制集團化政策, 中央集權的 計劃機構, 統治樣式이 疑心할 수 없는 真理로 채택되었다. 소聯에의 從屬을 正当化하는 人民民主主義에 관한 이상의 理論的 修正과 副一的 實踐에 의하여 東歐諸國의 모습은 소聯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갔고 이 나라들은 소聯에 盲從하는 衛星國으로 轉化했다. 이제 東歐의 스탈린主義化는 完成을 向하여 줄다름치게 된 것이다.

人民民主主義의 後期理論이 이 時期에 出現한 것은 두말 할 必要도 없이 새로운 現實에 맞춰 既成 이데올로기를 修正해야 할 時代的 要請에 의한 것이었다. 즉, 콤민포름이 創設되고 티토가 이로부터 逐出되기까지의 期間中에 各國 共產黨은 그 反對派를 完全히 去勢했고 自己들의 權力을 鞏固化했던 것이다. 人民民主主義의 前期理論이 歷史의 第一段階에서의 戰略的 理論이라면, 그 後期理論은 다음段階, 즉 <社會主義의 基礎建設> 段階에서의 戰略的

스탈린 = 우익 -31- 김=31/김은라, 홍  
홍=31/김은라, 홍  
홍=31/김은라, 홍  
홍=31/김은라, 홍

理論이었다. 第一段階를 통과하는 동안 東歐諸國間에서 差異는 消滅되었고 그대신 類似性이 두들어지게 들어났다. 이제 共産黨들은 人民民主主義를 廣範한 民族統一戰線위에 수립된 人民의 政權이라고 接양할 必要는 없었다. (當當하게 프롤레타리아 獨裁, 즉 共産黨에 의한 一黨獨裁를 公布할 때가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人民民主主義理論의 戰略性과 共産黨의 過去의 戰術을 솔직하게 公表해도 이제는 무방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장 대담하게 그리고 明確하게 公表한 스탈린主義者는 헝가리 共産黨의 指導的 理論家요 政府의 人民文化相이었던 요제프·레바이 (Joseph Revai) 였다. 그는 黨理論誌 <<타르사들머 제물레>> (Tarsadlmi Szemle)誌 1949年 3~4月號에다 黨幹部들에 대한 行動指針으로써 <<우리의 人民民主主義의 性格에 關하여>>라는 論文을 發表했다. 人民民主主義의 <謀略>에 關한 古典的 論證의 위치를 찾아하게된 이 重要한 論文은 東歐諸國이 스탈린主義化 過程에서 사용한 共産黨의 獨裁權確立方法과 欺瞞戰術을 솔직하게 事後 公開하였다. 그리하여 증대에 是 <反動的>非共産主義者들에 의하여 虛偽捏造된 것이라고 非방해은 一聯의 歷史的 事實들을 그는 眞實으로써 再確認 立証했던 것이다.

레바이는 우선 第2次大戰後의 헝가리 共産化過程에서 헝가리 共産黨을 소聯과 소비에트軍隊가 支援했다는 事實에 의하여 <우리의 힘, 즉 우리黨과 勞動階級의 힘은 커졌다>고 하고, <이에 덧붙혀 우리가 強調해야 할 事實은 우리는 未來의 길을 明確히 取할



수 있도록 소聯共産党 (불세비끼 党) 으로부터, 그리고 스탈린 同志의 가르침으로부터 決定的 鼓舞와 後援을 받았다 > 고 말  
이 있다. 이러한 말은 소聯이 東歐諸國의 內政에 한번도 干涉한  
바가 없다는 共產主義者들의 종래의 主張이 거짓이었음을 자진하  
여 是認하는 것이었다.

레바이는 1947年 가을과 1948年 여름에 열린 두차례의 콤포민  
포름會議로부터 헝가리共産党은 路線上的 指命을 받았다고 밝혔다  
즉 첫會議는 <人民民主主義가 資本主義分子들은 말살하는 바로  
最終段階에서 停止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쳤고 둘째번會議는  
社會主義的 改造는 都市에 局限될것 (産業의 國有化)이 아니라  
農村地域에까지 擴大 (農村의 集團化)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했다. 그리하여 헝가리를 <社會主義>國家로 改造함에  
있어서 <소聯은 우리의 모델이오, 人民民主主義의 길은 外面的  
形態에 있어서는 소聯의 길과 다르지만 本質的으로는 다르지 않  
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레바이는 共産党指導者들이 非共産主義政黨들과 合心에서  
<協同>하고 同盟할 생각은 전혀 해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1947年까지 存続한 統一戰線路線이 하나의 欺瞞戰術이었다는 것도  
그는 숨기지 않았다. 共産党이 최초로 <부르조아 政黨>과 제휴  
했던 것은 <封建制>와 <大資本>을 清算하기 위함이었으나  
다음의 目標는 <資本主義의 殘滓>와 <富>, 즉 <부르조아  
政黨> 그 自体를 清算하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고향  
단기

-33-

① 共産黨의 指導者들이 非共産主義政黨들과 合心에서  
② 다음 目標은 資本主義의 殘滓와 富 (부르조아 政黨)

셋째로, 그는 農村集團化를 공언했다. 그에 의하면 土地改革에 의하여 소위 <부르조아 革命的 課題>는 완수됐지만 그것이 最終目標이 아니라는 것이다. 黨綱領에서는 오직 <變裝된 形態로 表現되고 그 眞名이 言及되지 않은 農村의 社會主義的 發展, 즉 農村의 集團化>를 明示하기 위하여 綱領을 改正해야 겠다고 했다.

넷째로, 레바이는 共產黨一黨에 의한 權力独占을 公公然히 主張했다. 人民民主主義政權이 아직 小農黨, 農民黨 등과 共產黨과의 聯立政權이라고 해서 權力을 共產黨이 余他的 政黨들과 共同으로 行使한다든가 이것을 勞動階級과 勞動農民들 사이에 分割하는 것은 決코 아니라는 點을 明白히 했다. 그에 의하면 人民民主主義 國家가 勞動者, 農民의 國家요, 이 國家가 勞動階級の 同盟의 基礎 위에서 건설된 것은 事實이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항가리는 勞動階級만에 의하여 統治되고 있다>고 프롤레타리아 獨裁=一黨獨裁의 事實을 숨김없이 밝혔다. 그는 이것을 보다 具體적으로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勞動階級과 農民階級の 同盟을 기초로하여 建設되고 있으나 兩者를 混同해서는 안된다. 形式的으로는 權力을 指導勢力들 사이에서 分割하는 要素가 있지만, 事實에 있어서 權力을 장악하고있는 것은 勞動階級뿐이요, 事實에 있어서 國家機構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黨 뿐이다. 農民階級과 權力行使를 같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半은 私有財產制를 半은 協同化(集團化)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傍點은 筆者)

要件에 農民階級은 動搖하는 分子이기때문 믿을 수 없고, 따라

人民民主主義의 實現을 위한 努力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 權力行使를 같이 할수 없다는 이 論理는 <人民民主主義政權은 勞動者 農民의 政權>이라는 共產主義者들의 一貫된 主張을 公公연히 否認하는 것이오, 勞動階級の 同盟이 하나의 虛構라는 點을 精確하게 公言하는 것이다.

끝으로 레바이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第一의 機能이 社會主義 經濟 文化를 건설하는 課業에 集約된다고 主張했다. 이 建設過程에서는 소聯에 依支할 수 있고 따라서 內亂을 防止할 수 있다고 소비에트軍事力의 役割을 그대로 定認하는 한편, 必要할 때는 <彈壓과 暴力>의 手法을 使用하는 일을 無視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強調했다. 이러한 人民民主主義를 그는 dami트로브의 規定을 따라 <소비에트形態를 取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獨裁>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人民民主主義의 前期理論과 後期理論과의 差異를 念頭에다 두면서 人民民主主義가 처음부터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아니었지만 <처절한 階級鬪爭을 通하여> 黨綱領에서는 言及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獨裁가 되었다고, 共產黨에 의한 非共產主義政黨들의 暴壓的 除去를 事後 公開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東歐에서의 스탈린主義 確立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써의 人民民主主義의 後期理論이 定式化되는 過程에서 運命的으로 犧牲을 당한 者는 東歐의 스탈린主義化를 否認하는 方向으로 人民民主主義를 解釋했던 그 初期理論의 提唱者들이 아닐 수 없다.

스탈린은 理論上的 誤謬를 犯할 수 없는 絶對화된 存在였다. 따라서 모든 過誤의 責任은 余他の 人物에게로 歸着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소聯에서는 1947年 末頃부터 라주진 (B.A.)

Lazutkin), 코로빈 (E.A. Korovin), 오스트로비쟈노브 (K.V. Ostrovityanov) 등의 새로운 學者들이 바르가와 트라이닌 등의 理論을 闡發하는 運動을 시작했고 科學아카데미 經濟研究所 所長職은 바르가에서 오스트로비쟈노브에게로, 그리고 法律研究所 所長職은 트라이닌에서 코로빈으로 넘어갔다.

바르가에 대한 批判은 1946年初에 발간 한 그의 著書《第2次 大戦後の 資本主義經濟의 變化》와 關聯된다. 이 冊에서 바르가는 以後의 資本主義發展을 樂觀적으로 展望했다고 해서 1947年5月 黨路線을 代辯하는 學者들로부터 맹렬한 批判을 받고 그 職位의 대부분으로부터 추방되었던 것이다. 權力的 壓力에 굴복한 그는 1949年3月 《푸라우다》紙에다 公開書翰을 發表하고, 여기서 <새로운 世界大戰을 사수하는> 西方帝國主義者들이 自己의 著書를 利用하면서 소聯에 대한 <어리석은 宣傳>을 일삼고 있다고 西方側을 비난했던 것이다. 결국 1953년에 와서는, 그는 自己의 처음 理論을 스탈린主義의 方向으로 修正한 후 이 冊의 題를 《第2次 世界大戰後の 帝國主義 經濟 및 政治의 基本問題》로 바꿔 그 改正版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知的 彈圧이 시작되고 있던 1948年10月, 科學아카데미 經濟研究所의 學者들은 討論會를 조직하고 <經濟學에 있어서의 研究事業의 欠陥과 課題>라는 論題를 걸고 바르가에 대한 理論鬭爭을 벌였다. 新所長 오스트로비쟈노브는 自己의 報告를 통해 <바르가同志의 誤謬는 이미 소비에트新聞들에서 批判되어 왔다. 이 誤謬는 人民民主主義나라들을, 國家資本主義의 要素가 우세하다는 點

을 들어, 世界資本主義經濟의 一部로 特徵지운데 있다>고 그 先任者를 批判했다. 오스뜨로비짜노브의 報告를 토대로 란트바르트 (M.V.Rantbart), 루빈슈타인 (M.I.Rubinstein) 등의 理論家들이 계속 바르가 攻擧에 나섰다. 란트바르트는 바르가가 <資本主義의 一般的危機>를 論하지 않았고, <階級과 党的 立場에서 問題를 研究하지 않았고 植民地와 그 母國間에 尖銳化하고 있는 矛盾>을 分析하지 않았다고 公박을 加했다. 한편 루빈슈타인은 바르가가 <압스·레닌主義를 改良主義的으로 歪曲했다>느니, 資本主義는 <國家的 役割>에 의하여 平和的으로 發展할수 있다고 主張했다느니 하는 非難을 퍼부었다. 이들의 바르가批判은 그의 이른바 <부르조아 客觀主義>, <코스모폴리타니즘> (世界主義) 에로 集中되었는데, 要컨대 스탈린主義者들의 觀點에서 볼때 바르가는 党性이 欠如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党的 批判에 굴복한 바르가는 1949年 <帝國主義에 關한 著作에서의 改良主義的 傾向이>라는 글을 <<經濟學雜誌>> (Voprosy Ekonomiki, No 3, 1949) 에 發表하고 철저한 自己批判을 公開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自己에 대한 批判은 必要하고도 正確했으며, 自己의 過誤는 이러한 批判의 正確性을 극작 是認하지 않은點에 있다>느니, 自己의 理論上의 <誤謬는 全體系를 形成하였다>느니 말하면서 自己自身の <認識上의 誤謬>, <方法論의 誤謬>를 스스로 指摘했다. 바르가와 달리 트라이닌이 이러한 모욕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多幸히 일찍 死亡했던 때문

이다.

以上에서 說明한 一聯의 政治的 理論的 鬭爭 過程을 통하여 스탈린主義者들이 定立한 人民民主主義의 後期理論을 극히 간명하게 그리고 平易하게 說明한다면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 (1) 人民民主主義制度는 <英雄的인 소비에트軍隊가 國際파시즘을 擊破한 結果로 出現하였다.>
- (2) 人民民主主義는 소비에트制度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形態이다. 이것은 소비에트制度와는 形式上 若干의 差異는 있지만 本質的으로는 同一하며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機能>을 遂行한다.
- (3) 人民民主主義國家들은 소聯의 <經驗>을 모델로 社會主義를 建設해야하며, 이것을 無視하고 獨自의인 길을 扞한다는 것은 異端이다.
- (4) 소聯이 치열한 階級鬭爭을 통하여 <부르조아分子들>과 <富農>을 暴力으로써 殲滅하면서 <社會主義>를 建設한것 처럼 人民民主主義國家들도 社會主義의 <樂園>에 도달하자면 國內의 <階級敵>들과 <帝國主義의 앞잡이> 들에 대해 加열한 階級鬭爭을 전개해야 한다.
- (5) 人民民主主義 國家들은 社會主義의 基礎를 建設함에 있어서 소聯의 <指導>와 <援助>를 받아야 한다.

나. 후루시초프時代之 理論構成

그런데 1953年 3月 神格化된 獨裁者 스탈린이 死亡한 후 소聯 勢力圈內의 政治權力 構造에는 大變動이 일어났다. 크레믈린에서는 치열한 權力鬭爭을 거치는 過程에서 베리아, 말렌코프, 블로토프, 카카노비취, 불가닌 등이 소비에트의 權座에서 肅清 脫落되고 후루시초프時代之가 出現했다. 그리고 1956年의 소聯共産黨 第20次

○ 테리키아  
○ 말렌코프  
○ 슬로트프  
○ 카카노비취

불가닌

肅清, 脫落

후루시초프時代之

大會에서 후루시초프가 죽은 스탈린의 個人崇拜 作風을 공격하고 스탈린이 저지른 一聯의 무서운 犯罪行爲를 폭로하자 스탈린은 일시에 神의 地位에서 惡魔의 地位로 轉落했다. 不滅의 真理로 崇拜되어 온 그의 理論은 그의 後繼者들에 依하여 公的으로 批判되었고 그에 依하여 処刑되었던 一部の 犧牲者들은 死後에 나마 <名譽回復>이란 이름에서 無罪判決을 받았다. 그리고 많은 獄中罪囚와 強制勞動收容所의 生存者들로 釈放되었던 것이다.

후루시초프의 非스탈린化運動은 소聯의 衛星國家들을 크게 자극했다. 스탈린과 그 代行者들에 依하여 가혹한 經濟的 收奪을 당하고 無慈悲하게 抑壓되어 온 衛星諸國의 人民들은 새로운 政治的 變動에서 自己들의 再釈放의 길을 개척하려 했다. 그리하여 1956年 10月에는 波蘭의 工業都市 포즈난에서 勞動者들의 暴動이 일어났고, 11月에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反스탈린的 革命이 폭발했다. 이 騷亂의 渦中에서 第一級의 스탈린主義者들은 各國黨으로부터 逐出되고 고틀카, 데지등 스탈린主義者들의 迫害에 의하여 追放되었던 黨幹部들이 國家의 最高權力者로 登場했다. 波蘭의 事態는 소聯·波蘭兩國 指導者들의 타협과 무마工作에 의하여 流血없이 鎮定되었다. 그러나 헝가리의 蜂起는 一大反소革命으로 擴大되어 드디어는 소聯軍의 出動으로 처참하게 鎮壓되었다. 후루시초프가 点火한 非스탈린化運動은 소聯內에서는 全体主義的 統制를 완화하는 內政改革의 意味를 지닐수 있었다. 그러나 소聯의 衛星國 人民들에 있어서는 反스탈린主義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聯으로부터의 解放이란 欲求로 發展할 수 밖에 없는 論理的 必然性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聯勢力圈의 瓦解를 意味하는 그러한 欲求는 소聯共産党的 新 指導層에 의해서는 受諾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탈린死後에 露呈된 衛星國들의 動搖, 폭발 또는 流血의 悲劇은 지금까지의 人民民主主義理論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虛構였음을 立證하기에 充分했다. 그러나 후루시초프의 登場 以後 소聯과 그 一部衛星國 안에서는 <自由化>, <解氷>이란 이름에서 注目할만한 政治的 變化가 일어났고 소聯의 衛星國들에 대한 支配樣式도 完化되었지만 人民民主主義理論은 別로 修正되지 않았다 후루시초프時代의 人民民主主義理論은 基本的으로는 스탈린 時代에 定立된 그 後期理論, 즉 前述한 디미트로브의 理論을 답습하면서 精密化되고 體系化되었다. 단지 重大한 理論上的 變化가 있다면 스탈린時代에는 <資本主義에로의 復歸>, <파시스트>, <帝國主義의 走狗>등의 非難을 받아온 티토의 유고슬라비아가 <國家權力이 勞動階級에 屬해있고……帝國主義勢力의 陰謀에도 不拘하고……그 民族的 獨立을 유지하고 있는> 社會主義國家의 取扱을 받았다는 點이다.

후루시초프時代의 官用理論은 소聯科學 아카데미 經濟研究所 發行 <<經濟學教程>>에 잘 淸명되어 있다. 人民民主主義革命의 出現을 論함에 있어서 同書는 무엇보다도 對獨戰에 있어서의 소聯에 依한 <勝利의 鬪爭>, 東歐의 <解放>을 強調하였다. 이 理論은 人民民主主義革命을 두 段階로 区分하고 第一段階를 反帝國主義 反封建



革命으로, 그리고 第二段階를 社会主義革命으로 규정했다. 그 第一段階라는 것은 共産党, 非共産主義政黨으로 조직한 民族統一戰線위에 聯立政府가 수립되고 生産手段의 制限된 私有가 容認되던 1945 ~ 1948年의 期間에 해당하며, 第二段階는 共産党的 一党独裁가 確立되고 産業의 国有化와 農業集團化가 급속히 強行되던 1948年 以後의 時期에 해당한다는 것은 明白하다. 同書는 第一段階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反帝·反封建革命은 새로운 型의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이요,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의 第二段階의 歷史的 特徵을 이루는 것이다. 이 革命은 資本主義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独裁를 수립하는 것을 直接의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型의>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을 普通的 부르조아 民主主義 革命과 엄격히 區別하면서 이 革命의 特徵에 <世界帝國主義體制 全体를 弱화시키고, 그 基底를 뒤흔들고 있다>는 點과, <社会主義革命으로 轉化하는데 가장 有利한 條件들을 造成한다>는 點에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要컨대, 人民民主主義의 第一段階의 意義를 政治的으로는 反帝國主義的이요 經濟的으로는 社会主義를 指向하는 革命이라는 點에서 찾고 있다. 이 革命을 특히 부르조아革命이라고 規定한 것은, 封建的 土地所有制(地主制)를 清算하고 土地를 農民에게 分配하여 一時 그들의 私的 所有로 만든 土地改革때문이다. 이러한 土地改革을 맑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에서는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의 任務>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土地改革의 目的은 農民들에 依한 土地의 私的 所有를 永続化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貧農과 中農을 共産党的 一時的 同調勢力으로 만들고, 共産党的 權力이 鞏固化되면 이 權力에 依하여 分配했던 土地를 集團化하는데 있다. 이것을 《經濟學教程》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土地가 적은 農民이나 가지지 못한 雇傭農에게 土地를 分與함으로써 그들은 人民政權의 편에 끌어들였다. 土地改革은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의 任務를 完成하는 것인 동시에 社會主義建設으로 移行하기 위한 條件의 하나이다.

이러한 反帝·反封建의 革命, 즉 <새로운 型>의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의 승리를 실현시킨 國家權力을 레닌이 이미 1905年의 러시아에서 豫見했던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라고 規定하면서 《經濟學教程》은 이렇게 쓰고 있다.

勞動階級에 의하여 指導되는 反帝國主義, 反封建革命의 勝利는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가 수립되었던 것을 意味한다. 그리고, 이獨裁는 革命을 '일고나가 革命의 第二段階다시 말하면 社會主義革命으로 곧장 移行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反帝國主義, 反封建革命과 社會主義 革命과는 하나의 사슬에서의 두 개의 고리며, 單一 革命過程의 두 段階다.

여기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란 概念은 1905年 레닌에 依하여 처음으로 提示되었던 獨特한 理論으로써, 前述한 德米트로브의 演說에서는 言及되지 않았다. 이상의 說明은 衛星國의 變化過程을 사후에 이데올로기적으로 合理化, 體系化하기 위하여 이 레닌의 革命理論에다 既成現實을 들어 맞춘 것임은 再論할 余地가 없다.

후루시초프時代는 스탈린時代의 後期理論과 마찬가지로 革命이 第一段階에서 第二段階으로 移行함에 있어서 <勞動階級> (共産党) 과 <反革命的 부르조아지> (非共産主義勢力全部) 사이에 激烈한 <階級鬭爭> (共産党에 의한 肅清) 이 버러졌음을 強調하고 있다. 그 結果로 國家안에서의 <勞動階級の 指導的 役割> (共産党的 支配) 이 最終적으로 굳어지고, 따라서 <人民民主主義의 國家制度는 프롤레타리아트 獨裁의 機能을 훌륭히 수행하게 되었고, 人民民主主義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한 形態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共産党的 一黨獨裁確立의 過程을 다음과 같이 公式化하고 있다.

... 그 性格으로 보아 부르조아民主主義的인 革命이 社會主義革命으로 成長轉化해가는 過程, 人民民主主義의 한 段階에서 다른 段階,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機能을 수행하는 人民民主主義에로 점차로 넘어가는 過程이 나타났다.

<<經濟學教程>>은 이러한 人民民主主義國家들의 社會主義建設에서 배운 소聯의 惠沢을 誇示한 點도 스탈린時代의 後期理論과 마찬가지로. 즉 <人民民主主義諸國은 ..... 소聯에서의 社會主義建設의 아주 豊富한 經驗으로부터 크게 利得을 보았다>느니, <소聯의 決定的 支援에 의하여 歐羅巴의 人民民主主義諸國에 대한 帝國主義의 干涉計劃은 失敗했다>느니 또는 <더할나위 없이 國際主義的인 소聯의 社會主義 文化는 人民民主主義諸國의 民族文化發展에 큰 影響을 미쳤다>느니 하는 事例를 들어 東歐의 스탈린主義化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스탈린死後 지금까지에 展開된 東歐內的 自由化運動, 소聯과의 緊張, 多元化傾向 등 一聯의 歷史的 事實은 그곳의 共産主

義者들까지도 소聯의 그러한 惠沢에 別로 感謝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1964年 10月 후루시초프가 크레믈린의 權力舞臺에서 脫落하자 브레즈네프-코시긴의 時代가 出現하여 現在에 이르렀다. 이 時代에 는 이 時代의 現實에 맞도록 맑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는 再解釈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人民民主主義理論에 關한 限, 후루시 초프時代의 理論의 本質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이것은 <맑스· 레닌主義의 基礎의 탁월한 科學的 說明>을 自負하는 후루시초프時 代의 소聯의 官定教科書인 <<맑스·레닌主義의 基礎>> (第二修正版, 모스크바, 1963年)가 후루시초프 以後에도 계속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人民民主主義國家는 資本主義 에서 社會主義에로의 移行期의 <中間的, 過渡的 形態의 國家>요, <그初期段階의 國家는 아직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國家는 아니요, ... 그 階級的 本質로 보아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 裁>라는 것이다. 그리고 <勞動階級과 그 政黨들이 民主主義權力 內에서 完全한 指導權을 장악한> 後에는 人民民主主義國家는 프롤 레타리아獨裁의 機能을 수행하기始作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人民民主 主義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特殊한 形態의 民主主義>라는 公認을 내렸다.

브레즈네프-코시긴 時代에 와서도 그대로 계승 表明되고 있는 人 民民主主義理論의 特徵은 <社會主義的 改造>가 階級鬪爭없이 <牧歌 的 雰圍氣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 이데올로기란?

< 사회주의로 前進함에 따라 階級鬭爭은 점점 더 尖銳化하지 않을 수 없다는 스탈린의 提제는 소聯과 人民民主主義의 經驗에 비추어 決코 事實이 아니다 > 라고 強調하므로써 스탈린을 批判하고 있는 點이다.

이른바 < 사회주의로의 平和的 移行 > 에 關한 理論的 問題는 후루시초프以來로 中·소紛爭에서 큰 論爭點의 하나로 되어 왔다. 비록 모스크바의 理論家들이 어떤 나라의 경우에서는 이 過渡期의 階級鬭爭이 弱化될 수 있는 可能性을 是認했다고 해도, (相反하는 社會制度를 가진 資本主義國家와 共產主義國家間의 國際的 鬭爭만은 重視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956年의 헝가리革命을 < 公公然한 反革命的 叛亂 > 으로 規定하는 한편, 1956~57年의 波蘭의 政治的 激動과 自由化運動을 < 僧侶와 修正主義分子들의 活動 > 으로 非難하면서 이 事件들을 < 새로운 社會主義 社會勢力 > 에 대한 < 낡은 부르주아 社會勢力 > 의 鬭爭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聯의 東歐諸國에 대한 支配를 끝까지 이데올로기의 正當化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立場은, 1968年 8月 소聯軍의 체코슬로바키아侵攻에서 具現된 世稱 < 브레즈네프-독트린 > 에 로까지 發展하여 소聯의 大國主義的 現狀維持政策을 옹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소聯 및 東歐諸國에서 人民民主主義理論이 어떻게 發展해왔고, 어떻게 適用되어 왔는지를 重點的으로 考察했다.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北韓은 人民民主主義理論의 不毛地帶였으므로

自己的 独自の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다. 金日成의 演說과 党理論  
家들의 文言에서 断片的으로 表明된 人民民主主義의 說明은 소聯의  
學者들이나 毛沢東의 理論을 뒤늦게 模写한 것에 不過하다. 따라  
서 소聯과 東歐에서 人民民主主義의 初期理論이 모색되고 있던 19  
45~47年 頃에는 北韓은 이에 뒤따라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革  
命論>을 제시했고, 後期理論이 定立되고 있던 1948年 以後에는  
-正確히는 훨씬 뒤에서- 이 理論에 맞춰 프롤레타리아獨裁를 내  
세웠던 것이다.

1968年 9月 金日成은 소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創建 20週年  
을 記念하는 慶祝大會에서의 演說에서 北韓의 <人民政權>의 發展  
을 段階的으로 規定했다. 즉, 그에 의하면 그 第一段階인 <北朝  
鮮 臨時人民委員會는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에 기초하여  
廣範한 反帝 反封建 民主力量을 망라하고 있는 民主主義民族統一戰  
線에 依拠한 人民政權으로서 人民民主主義獨裁를 수행했다>는 것이  
다. 第二段階인 北朝鮮人民委員會는 <社會主義로 넘어가는 過渡期  
의 任務를 수행>하는 北韓에 탄생된 <첫 프롤레타리아獨裁政權>  
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第三段階인 <共和國政權은 첫 날부터 프  
롤레타리아獨裁의 機能을 끊임없이 強化하면서> 勞動黨의 領導下에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의 役割을 수행하여왔다>고 말하고  
있다. 要컨대 <人民의 政權>은 人民民主主義獨裁-프롤레타리아獨  
裁-強化된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段階를 거치면서 發展해왔다는 것이  
다.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北朝鮮人民委員會 그리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등에 대한 以上과 같은 性格規定은 이 權力機構들이 조직된 그 當時에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1948年 12月の 디미트로브演說을 起點으로 人民民主主義理論이 <프롤레타리아 獨裁>, <社會主義革命>에다 焦點을 두면서 再構成一定式化된 후 이 스탈린主義的 官用理論에 따라, 金日成의 黨理論家들은 北韓에서 展開되어온 일련의 政治的 變化를 이데올로기의으로 再解釋 理論化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休戰以後에야 시도되었다. 소聯과 東歐가 人民民主主義의 初期理論段階에 머물러 있을때 北韓은 人民民主主義에 관한 自體의 主張을 내세우기는 커녕 그런 用語조차 사용하는 것을 꺼렸다. 그들의 目標가 共產主義社會의 건설에 있음은 물론이었지만 北韓에는 獨自의으로 人民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를 전개할 정도로 理論的 수련을 쌓은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특히 南北統一政策을 고려하여 소聯當局이 그러한 試圖를 허용치 않았을 可能性도 크다. 그리하여 北韓에서는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革命>이란 용어만이 사용되었고 이 <革命>이 社會主義革命을 指向한다는 말은 戰術上 엄격한 禁忌로 되어 왔다. 金日成의 입을 통하여 歐美型 代議民主主義를 排하고 <時代에 뒤 떨어진>것으로 비방하고 <朝鮮實情에 부합되는 새로운 進歩的인 民主主義制度>를 제창했지만 이것이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制度의 수립을 目標로 하고 있다는 明白한 사실은 一切 숨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人民의 政權

機關이라는 人民委員會도 소聯이나 共產主義와는 하등의 關聯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1947年8月14日 이것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47.8.14  
김일성의  
기반 발언

人民委員會는 어떠한 外國의 政治的 干涉에 의하여 어떤 外國으로부터 輸入된 政權形態인 것이 아니라 朝鮮人들의 創意에 의하여 解放直後에 우리民族 全体가 創設한 朝鮮解放의 産兒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 北朝鮮에서 .... 眞正한 人民委員會가 成長되고 있다고 해서 北朝鮮에서는 共產主義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外國의 反動的 政客들의 影響에 있는 朝鮮의 民族反逆者 親日派들의 兇惡과 惡夢에서 나온 잡꼬대로 밖에는 간주 할 수 없습니다.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수립과 더불어 소聯軍司令部의 指示下에 共産黨에 의하여 一方的으로 強行된 土地改革과 主要産業國有化에 關해서도 그는 같은 말을 하였다. 즉, <農民에게 土地를 무상으로 주고 農村經理를 根本적으로 改造한 土地改革을 실시했다고 해서 北朝鮮에서 共產主義가 실시된다고 하는 것은 反動分子들과 結탁한 民族反逆者, 親日派들의 兇惡的 惡宣傳에서 나온 잡꼬대로 밖에 간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産業國有化의 結果로 .... 北朝鮮에서 共產主義化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民族으로 하여금 다시 어떤 外國의 政治的 經濟的 壓迫에 넣으려는 民族反逆者, 親日派들의 兇惡的 惡煽動에서 나온 잡꼬대>라고 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民族反逆者>, <親日派>의 範疇에는 共産黨의 路線을 따르지 않고 그 統一戰線의 虛偽성을 지적한 모든 民族主義者, 民主主義者, 심지어는 一部 共産主義者가



지도 包含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虛構的인 統一戰線의 利用價  
值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던 1948年 4月 29日 金日成은 소위  
《南朝鮮 新聞記者團과의 談話》에서 共産黨系記者들의 《北朝鮮의  
人民的 民主主義政權의 형태를 南朝鮮에서는 共産主義라고 하는데?》  
라는 質問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 이러한 幻想을 꾸며낸것은 단지 그들의 社會問題에 대한  
정치성을 表現한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한 幻想  
을 만들어낸 것은 다른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帝國主  
義者들과 各種反動分子들이 自己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어떠한 政權形態를 물론하고 다 <共産主義>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오늘 一種의 버릇으로 되었습니다. ... 人民政權形態인 人  
民委員會는 ... 農民, 勞動者, 事務員, 인테리, 商業家, 企業  
家, 宗教家, 前地主등 人民各界各層의 代表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맑스·레닌主義의 依하면, 後進的 北朝鮮 社會에다 곧 <社會主  
義>, 즉 非共産主義者들 사이에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概念인  
<共産主義>를 建設한다는 것은 社會發展의 이른바 <合法則的  
要求>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金日成은 물론 이러한  
觀點에서 이상과 같은 비방을 일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重要한  
것은 그가 <民主改革> 또는 <人民的 民主主義>에 關해 論할  
때는 이것이 <社會主義>로 移行하기 위한 準備過程이라는 說得  
대신, 그러한 意味의 論評을 하는 사람을 <親日派> 또는 <民  
族反逆者>로 규탄하면서 소위 <人民政權>의 本質과 이것이 志  
向하는 바를 숨기려 했던 點이다. 統一戰線산하의 非共産主義者들  
을 當分間 기만하면서 利用하자는 이러한 戰術은 東歐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었다. 그러나 몇 해 후에는 金日成自身 이를 <親日派>와 <民族反逆者>의 <惡宣傳>이 事實 그대로였음을 確認하는 發言을 하게된 것은 歷史의 아이로니가 아닐 수 없다.

1948년까지에 東歐의 人民民主主義諸국은 소聯의 철저한 衛星國으로 轉落하고 크레믈린의 利益을 代辯하는 스탈린主義者들의 獨裁下에서 一切의 民族的 自主性和 自由를 상실하고 있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北韓의 衛星化는 東歐와는 달리 解放直後부터 強行되었던 것이다. 1948年 2월에 벌써 소聯의 理論家 유진(Yudin)은 <러시아의 勞動階級은 國際 勞動階級안에서 指導的 地位를 爭取했다는 것과 偉대한 指導者 레닌과 스탈린을 先頭로 하는 소聯 共産黨은 國際 共産主義의 前衛黨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음아닌 콤인포름機關紙에 言明하므로써 人民民主主義諸國에 대한 소聯의 支配를 폭로했다. 한편 스탈린의 잔인한 숙청과 철통같은 統制가 必要호로 人民民主主義諸國을 가장 卑劣한 소聯의 傀儡國으로 轉化시키고 있던 1949年 봄에도 金日成은 <偉대한 소聯의 政策은 民族自決을 준수하는 政策이며, 他民族의 獨立과 自由와 獨立權을 존중하는 政策이며 다른 나라의 內政을 干涉하지 않는 政策>이라고 禮讚하므로써 人民民主主義國家들의 소聯에 대한 從屬關係를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東歐羅巴의 人民民主主義諸國을 설명할때도 金日成은 이 나라들이 社會主義를 指向하고 있었다던가 그 究極的 目標은 共産主義社會를 實現하는데 있다는 말은 一切 回避했다. 1947年 8月 당시에도 그는 <國際民主力量의 長成은 國際民主勢力의 結束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解放된 東歐羅巴와 東南歐羅巴들에서 실시되는 위대한 民主改革>, 즉 <産業國有化

法令〉과 〈土地改革〉등을 強調했고, 〈民主力량의 統一로 결속된 民主主義統一戰線〉이나 〈眞正한 人民의 政權〉이니하는 것의 存在意義를 높히 評價하는데 까지에서 그쳤다. 그리고 그는 이 곳에서 断行되고 있던 自主的, 民主主義的 非共產主義者들에 대한 모든 財淸들을 北韓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一括下에 〈民族反逆者들과 戰爭犯罪者들을 公判하는 人民的 裁判〉으로 묘사했던 것이다. 이러한 說明方法은 물론 소聯과 東歐에서 나타난 人民民主主義의 初期理論을 反映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누누히 說明한 바와 같이 소聯 및 東歐에서 人民民主主義 後期理論이 定式化된 것은 1948年 以後의 일이었다. 그러나 北韓의 党理論家들이 이 修正된 理論에 맞추어 그들의 歷史를 〈보다 科學性을 갖추기 위하여〉 다시 쓰고 金日成의 文言들을 訂正한 것은 대체로 第3次 党大会(1956)以後의 일이었다. 六·二五의 戰亂과 休戰에 뒤따른 党內의 生死를 건 權力鬭爭-朴憲永의 南勞党系 財淸과 崔昌益의 〈反党·反革命分子〉소탕의 混亂속에서 体系的인 理論確立의 作業을 한다는 것은 不可能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6年 4月以後 科学院歷史研究所에 의하여 發行된 《조선통신사》(全3卷)는 韓國의 現代史를 金日成의 個人崇拜思想을 主軸으로 하여 再構成했고, 解放以後의 北韓의 實態는 人民民主主義의 後期理論에 의하여 再解釋했다. 그리하여 同書(하)는 北韓의 權力機構를 다음과 같이 規定했던 것이다.

(1)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1946年 2月) :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勞動階級이 영도하는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에 입각한 人民政權으로서 人民民主主義獨裁의 機能을 수행하는 政權이었다.>

(2) 北朝鮮人民委員會 (1947年 2月) : <北朝鮮人民들은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機能을 수행하는 北朝鮮人民委員會의 指導下에...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길에 들어 섰다 >

이 公式에 의하면 北韓에서는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즉 人民民主主義 獨裁政權이 解放後 6個月만에 出現했고, 이것은 그후 1年만에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으로 發展한 것이다. 결국 解放 1年 6個月後에 北韓은 共產黨의 一黨獨裁體制下에 들어갔다는 것을

公的으로 是認하고 있다. 이 北韓의 官用理論에 의하면 人民民主主義의 第一段階를 소聯이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라고 定義하고 있는데 대해, 金日成은 毛澤東의 用語를 빌려 <人民民主主義獨裁>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에 대한 中共의 이데올로기상의 影響의 한 側面을 表示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人民民主主義에 관한 소聯과 中共間의 差異와 이것이 北韓에 미친 影響에 대해서는 第三編에서 論及하게 될 것이다. 北韓의 경우 <人民民主主義獨裁>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段階的

으로 區別한 것은 事實上 政治적으로 無意味한 公式論이다. 그것은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가 수립되었던 1946年 2月에는 이미 共產黨의 獨裁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즉, 朝鮮民主黨의 曹晚植黨首

는 이미 소聯軍 當局에 의하여 監禁되었고 黨의 自主的 幹部들은 大挙 避身하였으며 共產主義者 崔庸健이 朝鮮民主黨의 黨首職을 차지하게 되어 職立政府나 統一戰線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政治劇에

不過했던 것이다.

金日成에 의하면 北韓에서 農業集團化가 完成된 것은 1958年8  
月末이오 個人工業과 手工業은 이와 거의 同時에 生産協同組合에  
編成되므로써 農村과 都市의 資本主義的 要素는 모두 社會主義的으  
로 <改造> 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社會主義의 基礎建設을 不過  
4~5年內에 完成할 수 있을 만큼 이미 一黨獨裁가 強化된 狀況  
에서 그는 統一戰線산하에 들어온 非共產主義者들에게 人民民主主義  
의 本質을 더 以上 숨길 필요는 없었다. 후르시초프의 非스탈린  
化運動의 물결을 타고, 金日成個人崇拜作風과 그가 強行하고 있던  
性急한 農業集團化 政策 및 戰後의 民生을 무시한 重工業置重의 第  
一次 5個年計劃 (1957~1961)을 反對하는 延安派와 蘇聯派와  
一部國內派와의 聯合勢力과 金日成派間에는 격렬한 黨內權力鬭爭이 전개되었다. 이  
鬭爭은 1956年8月30日의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絶頂에 달했으나 그 결  
과는 反金日成聯合勢力의 敗北으로 돌아갔고, 이들은 그 후 <宗派主義者>, <反黨  
反革命分子> 또는 <修正主義者>로 낙인이 찍혀 모두 肅清되었다. 이 <八月宗派事  
件>以後 金日成은 大規模의 肅黨作業을 全黨적으로 準備 斷行하면서 人民民主  
主義理論을 一人獨裁体制의 鞏固化라는 側面으로 展開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獨裁는 결국 共產黨獨裁요, 共產黨獨裁는 黨最高權力者의  
一人獨裁라는 權力的 論理를 念頭에다 두고서 그는 人民民主主義獨  
裁=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것을 最大限 強調했던 것이다.

1958年3月, 즉 金料奉을 頂點으로 하는 <八月宗派事件>의 主  
謀者들의 肅清을 總結報告하는 겸 열렸던 勞動黨第一次代表者會에서  
金日成은 金料奉, 崔昌益, 金雄, 韓斌, 柳丑運, 吳基燮, 徐輝, 金乙奎,

朴義琬 등을 指名하여 이들의 죄 과는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라고 규탄하였다. 金日成에 의하면, <地方主義는 그 본質에 있어서는 역시 宗派主義>요, 이러한 <宗派主義는 資本主義에서 나온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反党分子>는 <帝國主義者들>이 퍼뜨리고 있는 修正主義를 北韓에다 <密輸入>하여 퍼뜨리면서 利用했다는 것이다. 다시 金日成에 의하면 北韓에서 <修正主義는 党的 領導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拒否하는 것으로>즉 그의 支配權을 否認하는 것으로 表現되었다고 한다. 그 代表的인 例로 金日成은 다음 몇가지 事實들을 규탄하고 있다.

- (1)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委員長인 金日成은 同常任委員會가 党보다 높다고 말하면서 党的 領導를 거부했다.
- (2) 職業同盟委員長인 徐輝는 <党이 聯盟을 領導할 수 없다, 黨員보다 聯盟員數가 많으니 聯盟이 党보다 큰 組織이다, 党機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聯盟員들이기 때문에 聯盟의 領導를 받아야 한다. 聯盟은 党的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党的 領導를 거부하는 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 (3) 人民軍總政治局 副局長이었던 金乙奎는 人民軍隊는 党的 軍隊가 아니고 統一戰線의 軍隊라고 하면서 党的 領導를 거부했다.
- (4) 一部 省과 人民委員會에서는 行政事業에 대한 党的 指導를 싫어하는 傾向이 있는가 하면, <自己의 技術이 天下에 제일이라는 技術至上主義를 내걸고 党的 領導를 허심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愚지 않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 (5) 北韓의 司法機關에서는 <人權을 옹호한다>는 口實 밑에 党과 革命을 반대하는 敵對分子들을 석방하였고, 敵對行爲를 한 많은 收監者들을 釈放하므로써 社會秩序를 문란케하였다. 司法機關에 나타난 이러한 傾向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反對하는

修正主義的·傾向〉이다.

이상의 사실들은 當時 金日成獨裁에 대한 反撓이 各機關內에서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立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黨의 領導를 거부하는 <修正主義>와 <無慈悲하게 鬪爭해야 할 것>을 命令하면서 <人民主權>을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人民主權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人民主權은 統一戰線에 基礎하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獨裁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完全히 잘못된 見解입니다. 우리의 人民主權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範疇에 屬하는 主權입니다. .... 프롤레타리아獨裁는 社會主義革命에 敵對되는 온갖 反革命要素를 철저히 鎮壓하며 근로인민의 利益과 革命的 利益을 옹호하는 勞動階級の 強力한 武器입니다.

1958年 4月 29日 金日成은 全北韓의 <司法, 檢察 일군 會議>라는 것을 召集했다. 여기에 그는 司法部門內에 <잠입>했던 <反黨宗派分子들>이 소위 <國際思潮>라는 <反소·反共>運動을 계기로 修正主義思想을 퍼뜨렸다는 것을 엄중하게 叱責하면서 北韓의 司法일군들이 <党性>을 높혀 <反革命分子들>과의 鬪爭을 強化하라고 訓示했다. 이 訓示는 前述한 黨第一次代表者會에서 한 그의 訓示의 연장이 있다. 그는 黨이 <人民>의 權利와 利益을 옹호해 왔음에도 不拘하고, <法은 萬人에게 公平해야 한다>느니 <人權을 옹호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黨의 司法政策을 공격한 것은 法の <階級的 立場>과 <人民政權의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機能>을 떠나 地主들과 資本家를 옹호하자는 <反動理論>이라고 規定했다. 그리고 이 <反黨宗派分子들>에 盲從하는 司法일군들이 <人道主義>다 <民主主義>다 떠드는 것은 日本帝國主義 <낡은 思想殘滓>라고

구탄했던 것이다.

金日成은 <人權>을 옹호하므로써 北韓에다 <資本家, 地主들이 制度를 다시 復旧하려는 意圖>를 가졌다는 <修正主義>에 대한 비난을 통해 自己의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을 說明했다. 그는 레닌의 区分法에 따라 現時代에는 두가지 獨裁가 있는 바, 하나는 부르조아獨裁요. 하나는 프롤레타리아獨裁라고 前提하고, 다시 毛澤東의 <<人民民主獨裁論>> (1949年)에서 한 말을 모방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부르조아獨裁는 地主, 資本家階級의 利益을 옹호하기 위하여,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기타 勤勞人民의 利益을 억제하며 그들의 自由를 빼앗는 機能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조아獨裁는 勞動者, 農民들에게 獨裁를 실시하며 地主資本家들에게는 民主主義를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부르조아獨裁와는 正反對로...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勞動者, 農民들의 利益을 옹호하며 地主, 資本家들의 利益을 거부합니다.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地主, 資本家들에게는 獨裁를 實施하며,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광범한 勤勞人民에 대해서는 民主主義를 실시합니다. 資本主義制度를 위해서는 부르조아獨裁가 필요하며 社會主義制度를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獨裁가 필요합니다.

이 놀랄만큼 獨斷的인 兩分法은 現代 議會民主主義諸國에서 勤勞大衆이 누리는 광범한 自由의 實態를 北韓人民들의 見聞으로부터 가리우는 同時에 自己의 北韓勞農階級에 대한 全体主義的 獨裁體制를 <民主主義>로 逆轉시키자는데 그 本意가 있음은 물론이다. 동시에 그는 北韓의 소위 統一戰線의 本質에 關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虛構요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선  
-  
선  
의  
고  
49

우리 政權이 勤勞者, 農民을 비롯한 광범한 人民大衆의 統一戰線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統一戰線은 本質上 社会主義를 지지하는 人民大衆의 統一戰線입니다. 오늘 우리는 靑友党이나 民主党을 비롯한 友党들과 統一戰線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友党들이 다 社会主義를 찬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北半部에서 社会主義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社会主義를 反對하며 방해하는 者들과는 絶대로 統一戰線을 할 수 없습니다.

非共產主義政党的 共產党的 衛星政党的化하는 것은 人民民主主義에 있어서의 統一戰線의 基本戰略이었다. 그러나 金日成이 이 말을 하던 1958年 당시에는 소위 <友党> (非共產主義政党的)은 看板뿐이요 그 組織은 거의 存在하지도 않았다. 이보다 8個月前, 즉 1957年 8月에 사행된 第二期 最高人民會議代議員選舉에서는 選出된 215名의 代議員中 靑友党和 民主党은 各各 4名에 不過했고, 勞動党은 178名 (82.8%)를 차지했다. 事實上 選舉가 아니라 任命을 뜻하는 代議員들이 이러한 比率은 人民民主主義의 虛飾的인 形式마저도 考慮할 必要가 없을 정도로 共產党的 一党獨裁가 完成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情勢에서 그는 人民民主主義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人民民主主義의 獨裁는 프롤레타리아 獨裁가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獨裁와 부르조아 獨裁의 中間에 있는 어떤 中間獨裁인 듯이 생각하고 있으며, 혹은 우리 政府가 統一戰線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여 마치도 人民政權이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人民民主主義政權은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에 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社会主義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社会主義를 건설하는 政權이 本質上 프롤레타리아獨裁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以上과 같은 金日成의 一聯의 文言들은 소聯과 東歐에서 劃一化된 人民民主主義의 後期理論에 부합되도록 表現된 것이다. 그리하여 人民民主主義의 理論과 實踐은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核心으로 統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金日成이 이상과 같은 말을 하고 있던 1958년에는 이미 中·소의 理念紛爭이 表面化되고 있던 때이며, 이것은 共產主義諸國을 이데올로기의 混亂으로 몰아넣고 드디어는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의 多元化時代를 초래했다. 人民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상의 本質을 좀더 究明하기 위해서는 이 問題에 關한 中·소間의 理論的 差異點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三. 毛沢東의 新民主主義論

1968年6月

### 三. 毛澤東의 新民主主義論

第二章에서 고찰한바와같이 1948~49년에 修正된 人民民主主義理論을 통하여 人民民主主義=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라는 定式을 確立하고, 이 統一된 規定에 의하여 스탈린이 그의 東·南歐衛星國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상 및 組織상의 支配를 強化하고 있을때, 공교롭게도 中國大陸에서는 中共의 〈人民革命〉이 승리하여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소위 〈毛澤東思想〉, 毛澤東의 革命理論이 國際共產主義運動에서 크게 注目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毛澤東은 中共이 당면한 政治情勢의 變動과 그리고 그때마다 要請되는 革命戰略에 맞춰 自己의 國家理論을 빈번히 바꿨다. 그 中에서도 代表的인 理論이요, 〈中華人民共和國〉의 基本理念으로 된 것은 〈新民主主義論〉이다. 國共合作을 토대로 広範한 民族統一戰線을 形成하므로써 抗日戰爭을 수행할것을 力說하는 동시에, 中共自體의 勢力圈인 〈解放區〉를 擴大하면서 그 組織을 強化하고 있던 1939年 12月, 毛澤東은 中國革命의 基本性格을 〈新民主主義革命〉이라고 斷定했다. 그리고 한 달 後인 1940年 1月에는 이것을 體系化하여 〈新民主主義論〉을 발표했던 것이다. 樞軸國의 敗亡·抗日戰爭의 勝利가 明確해진 1945年 4月 그는 다시 〈新民主主義論〉을 보다 具體化하여 〈聯合政府論〉을 발표하고 戰後의 國內·國際情勢에 대처할 共產黨의 革命戰術을 제시했다. 그리고 1949年 6月에는 中國共產黨 28週年을 記念하여 그는 새로 〈人民民主獨裁論〉을 發表하였다. 이것은 全中國大陸의 掌握이

目前에 迫頭한 狀況에서 벌지않아 수립될 共產党政權의 性格과 任  
務를 理論化하기 위하여 쓴것 이었다.

以上 一聯의 毛沢東論文들은〈人民民主主義〉 또는 〈新民主主義〉  
國家로써의 中共의 新政權의 理論的 基礎가 되었다. 그런데 1949  
年 당시 中共에서 통용되고 있던 毛沢東의 人民民主主義(그는 이  
말을 新民主主義와 同義語로 사용했다)의 理論的 解明은 1948年  
以前 소聯에서 바르가·트라이닌 등이 發表한 人民民主主義의 前期理  
論과 內容이 大體로 유사했다. 소聯과 그 東南歐衛星國家들에서는  
人民民主主義의 後期理論이 定式化되 면서 初期理論이 매장되고 있을  
무렵, 毛沢東의 理論이 널리 普及하고 있었던 事實은 소聯과 中共  
間에 이데올로기의 緊張狀態를 造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스크  
바—北京間에 革命的 密月의 분위기가 한창 高潮되고 있던때라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緊張이 表面化되지는 않았으나 各自의 理論展  
開의 底流에는 相互對立의 찬 물결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특  
히, 티토를 〈民族主義的〉 偏向을 犯했다하여 콤민포름에서 追放한  
狀況에서 크레믈린은 어떠한 이데올로기상의 異端도 容納하려 하지  
않았고, 異端의 發端根柢가 되는 各國의 社會主義로 가는 이른바〈  
獨立的인 길〉을 抑制하고 있었다. 따라서 크레믈린은 毛沢東의  
新民主主義理論 즉, 人民民主主義理論도 소비에트의 理論家들이 設定한  
概念의 限界內에서 해석될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毛沢東의  
理論은 소聯의 理論보다 훨씬 앞서 오랜 歷史的 形成期를 거쳐  
構成되었고 그 內容도 人民民主主義를 프롤레타리아獨裁와 同一視하

는 소비에트의 後期理論과 相馳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간단히 毛沢東의 <新民主主義論>의 要点을 살펴보기로 한다.

1939年 12月 毛沢東은 中国社会의 性格을 맑스·레닌主義의 尺度로 分析하면서, 中國은 過去3千年間 封建社会로 남아 있었으나 1840年の 阿片戰爭以來로 外國資本主義가 侵入한 때문에 封建社会 内部에는 큰 變化가 일어나 <中國은 植民地的·半植民地的·半封建的 社会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革命에 있어서는 革命의 對象은 <封建主義와 帝國主義, 즉 帝國主義나라의 부르주아지와 自國의 地主階級>이오, 그러므로 革命의 任務은 <주로 이 두개의 敵에게 打撃을 주는것, 즉 對外的으로는 帝國主義의 壓迫을 타도하는 民族革命이오, 對內的으로는 封建地主的 壓迫을 타도하는 民主主義革命>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民族·民主主義革命 또는 反帝·反封建的 革命을 그는 <新民主主義革命>이라고 불렀다. 毛沢東의 新民主主義革命은 表面上으로는 孫文의 <三民主義革命>과 다를바가 없었으며, 毛沢東自身이 두개의 革命이 <基本的으로 一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같이 革命의 課題가 民族的 獨立을 爭取하고 封建的 社会制度(地主制)를 一掃하는 것이라면, 당시 新民主主義 革命의 性格은 論理上 資本主義나 社会主義나하는 問題로는 될 수가 없다. 毛沢東은 当面한 革命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現段階의 中國革命은 결국 어떤 性格의 革命이 될 것인가? 부르주아民主主義革命일까, 그렇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社会主義革命일까? 明白히 後者が 아니라 前者이다.

中国社会가 아직 植民地的·半植民地的·半封建的인 社会인 以上

中国革命의 敵이 아직은 주로 帝國主義와 封建主義 勢力인 以上, 中国革命의 任務가 二個의 主要한 敵을 打倒하는 民族革命인 以上 그리고 때로는 民族 부르조아지가 이 두개의 敵을 타도하는 革命에 參加하는 以上, 비록 大 부르조아지가 革命을 反對하고 民族의 敵으로 되었다고 해도 革命의 銳鋒은 역시 一般的으로는 資本主義와 資本主義的 私有財産에 向하는 것이 아니라 帝國主義와 封建主義에 向한다. 그렇다면 現段階의 中国革命의 性格은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的인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民主主義的인 것이다.

共產主義者 毛沢東은, 1905年 當時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레닌과 마찬가지로 資本主義의 發展이 未滿하고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成長이 脆弱한 後進的 中國에서 性急히 社會主義革命을 내세운다는 것은 馬스主義的 社會發展法則에 違背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革命의 第一段階를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으로 規定하였지만 이것을 부르조아지가 指導하는 舊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과 同一視하는데 滿足할 수는 없었다. 權力の 意志와 慾求가 強烈한 레닌主義者로서의 毛沢東은 프롤레타리아트(共產黨)가 指導하는 < 새로운 >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러한 要求의 正當性을 그는 世界史的 條件의 變化에서 파악하려 했다. 그에 의하면 < 第一次帝國主義世界大戰과 최초로 勝利한 社會主義十月 革命이 全世界의 歷史의 方向을 바꾸었기 > 때문에 過去에는 < 舊은 > 부르조아民主主義의 世界革命의 範疇에 屬했던 中國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은 < 새로운 부르조아民主主義 革命에 屬하는 것으로 바뀌고 革命의 陣營에서 말한다면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의 世界革命의 一部分이 되었다 > 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보다 具體的으로 아래와 같이 說明하



고 있다.

세계의 資本主義戰線이 地球의 一角에서 붕괴하고……社會主義國家가 이미 樹立되고 그위에 이것이 모든 植民地·半植民地의 解放運動을 도와 싸울 것을 表明하고 있는 時代, 資本主義諸國의 프롤레타리아가 하루 또 하루…… 植民地·半植民地의 解放을 支持할 것을 表明하고 있는 時代, 이러한 時代에는 어떤 植民地·半植民地이건 그곳에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革命, 즉 國際부르조아지와 싸우고 國際資本主義와 싸우는 革命이 일어나면, 그것은 이미 낡은 부르조아民主主義世界 革命의 範疇에는 屬하지 않고 새로운 範疇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낡은 부르조아의인, 또는 資本主義的인, 또는 資本主義的인 世界 革命의 一部分이 아니라 새로운 世界 革命의 一部分, 즉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世界 革命의 一部分이다.

以上の 毛沢東의 說明은 마치 〈낡은〉 부르조아民主主義가 〈世界 革命〉의 共同戰線이나 形成하고 있었던 것처럼 前提하면서 〈새로운〉 民主主義 革命의 範疇을 論하고 있는 點과 植民地·半植民地의 反帝國 民族 運動을 통털어 國際共產主義 運動이 一部分인 것으로 把握하고 있는 點에 基本的인 誤謬가 있다. 그는 러시아十月革命以後 造成된 새로운 國際政治的 條件에 의하여 〈새로운〉 부르조아民主主義 革命의 歷史的 必然性을 찾고 있지만 이것은 十月革命도 소비에트政權도 出現하기 以前에 帝政러시아에서 提唱한 레닌의 부르조아民主主義 革命論, 즉 勞動同盟을 토대로 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指導하는 부르조아民主主義 革命의 理論을 變造 繼承한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부르조아民主主義 革命이 目標로 하는 바는 낡은 資本主義社會가 될수없는 同時에 그것이 부르조아 革命의 性格을 띠

고있는 限 社会主義社会로도 될 수 없다. 毛沢東은 自己의 新民主主義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現在의 中國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은 이미 낡은 一般的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 — 이와같은 革命은 벌써 過去의 것이다 — 이 아니라, 새로운 特殊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다. 우리는 이러한 革命을 新民主主義革命이라고 부른다. 이 新民主主義革命은 世界프롤레타리아社会主義革命의 一部分이며, 이것은 帝國主義, 즉 國際資本主義에 단호히 反對하는 것이다. 이것은 政治的으로는 帝國主義者와 民族反逆者 反動分子에 대해서 行하는 몇 個의 革命階級의 聯合獨裁요, 中國사회를 부르조아獨裁의 社會로 바꾸는데 反對한다. 그것은 經濟的으로는 帝國主義者와 民族反逆者·反動分子의 大資本·大企業을 몰수하여 國家經營으로 넘기고 地主階級の 土地를 分配하여 農民의 所有로 만들며, 同時에 一般의 私的 資本主義企業을 그대로 두고 또한 富農經濟를 排除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型의 民主主義革命은 한편에서는 資本主義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한 社會主義를 위한 前提를 만드는 것이다. 中國의 現在의 革命段階는 植民地的, 半植民地的, 半封建的인 社會의 終結 및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過渡段階이며 新民主主義革命의 過程이다... 이른바 新民主主義革命이란 프롤레타리아가 指導하는 人民大衆의 反帝·反封建의 革命이다. 中國의 社會는 이 革命을 通過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게 하므로써 비로소 社會主義의 社會로 發展할 수 있다... 이러한 新民主主義革命은 歐美諸國의 歷史에서의 民主主義革命과는 크게 다르다. 이것은 부르조아獨裁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指導下에서 革命的 諸階級の 統一戰線의 獨裁를 수립한다.

要컨대 毛沢東의 新民主主義에 關한 以上の 說明에서 基本的인 命題가 되는 것은 中國의 當면한 革命은 부르조아지가 指導하는 낡은(1)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도 아니며, (2) 그렇다고 社會主義革命도 아

니오, (3) 프롤레타리아트가 指導하는 < 새로운 · 特殊한 >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며, (4) 그 政治的 內容은 프롤레타리아獨裁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下에 있는 몇개의 革命階級の 聯合獨裁요, (5) 經濟的 特徵은 資本主義發展의 길을 여는 同時에 社會主義를 위한 前提를 만든다는 主張이다. 그는 맑스以來의 二段階革命論을 답습하여 中國革命을 크게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의 두 段階로 나누고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新民主主義革命)이 達成되어 모든 必要條件이 갖춰지면 이것을 社會主義革命으로 轉化시킨다는 戰略을 擧하였다.

… 共產黨員은 누구나 다 中國共產黨이 指導하고있는 中國革命 全体는 民主主義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의 두 階級을 포함하는 革命 運動 全体이며, 이것은 性質을 달리하는 두個의 革命的 過程이요 앞의 革命的 過程을 達成하고서야 비로소 뒤의 革命的 過程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新民主主義革命은 社會主義革命의 必要한 準備이며, 社會主義革命은 民主主義革命의 必然的인 發展方向이다……. 民主主義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의 區別을 밝히는 同時에 이 두 革命的 連結性을 밝힘으로써 비로소 中國革命을 올바르게 指導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毛沢東은 革命的 第一段階에서 수립될 新民主主義政權은 第二段階의 社會主義政權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 過渡的 國家形態 > 로 規定하였다. 그는 全世界의 多樣한 國家體制를 그 權力은 階級的 性格으로부터 (1) 부르조아獨裁의 共和國, (2)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共和國, (3) 몇개의 革命的 諸階級の 聯合獨裁의 共和國으로 分類하면서 具體적으로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新民主主義共和國는 한편으로는 낡은 形態의 歐美型 부르조아 獨裁의 資本主義的 共和國와는 다르다. 資本主義的 共和國는 낡은 民主主義의 共和國이오 이러한 共和國은 이미 過去의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트聯邦型의 프롤레타리아獨裁와 社會主義共和國과도 다르다……. 植民地·半植民地나라의 革命이 어떤 歷史的 時期 동안에 取할 수 있는 國家形態로서는 第三의 形態밖에는 없다. 이것이 新民主主義共和國이라고 하는 것이다.

毛沢東의 이러한 類型化理論에 의한다면 例컨대, 美國이나 瑞西나 히틀러의 獨逸은 모두 資本主義國家요, 따라서 부르조아獨裁의 共和國이란 範疇에 屬한 同一한 國家體制가 아닐 수 없다. 이 세나라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社會主義共和國도 新民主主義의 共和國도 아니라고 해서 그 國家體制를 同一하다고 一般化하는 것은 眞實의 本質적인 歪曲이다. 國家體制에 있어서 美國은 히틀러의 第三帝國과는 判異하며, 또한 이 第三帝國은 瑞西의 國家體制와도 同等의 共通性이 없다. 레닌, 스탈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毛沢東에 있어서도 私有財産制度의 存在를 容認하고 非共產主義政黨에 의하여 運営되는 國家體制를 모두 일괄하여 부르조아獨裁의 共和國으로 單純化하는 誤謬는 政治를 經濟制度의 上部構造의 反映으로 一元化하는 史的 唯物論 自体에서 由因하는 것이다. 要컨대 맑스·레닌主義에서는 階級論的 社會學은 있으나 政治學의 獨自의 領域은 철저히 無視되고 있다.

毛沢東은 <中國革命과 中國共產黨>에서 階級論的 社會分析에 의하여 中國의 新民主主義革命努力을 勞動者階級, 農民階級, 小 부르조아지 (知識人 小商人, 手工業者 및 自由職業者) 및 民族부르조아지로

분류했다. 그리고 新民主主義政權을 앞서 引用한 바와같이 이〈몇 개의 革命階級の 聯合獨裁〉라고 規定했다. 그러나 그는 民族부르조아지의 革命性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民族부르조아지는 帝國主義의 壓迫을 받고있기 때문에 革命勢力的 하나로 될 수 있음을 是認하는 동시에, 그들의 經濟的 政治的 脆弱性때문에 〈買辦的 大부르조아지를 추종하여 反革命의 助手가 될 危險〉을 지적하고 있다. 民族부르조아지의 이러한 〈二重性〉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慎重한 政策〉을 取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新民主主義論〉에서는 毛沢東은 以上과 같은 觀點을 貫徹하면서도 〈中國의 民族부르조아지는 植民地의 부르조아지요, 帝國主義의 壓迫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期間에는, 어느 程度는 革命性을 가지고 있다〉는 點을 인정하면서 이들과 統一戰線을 形成할 것을 消極的으로나마 明示하였다.

毛沢東은 民族부르조아지問題에 관하여 가장 큰 關心을 가지고 그 性格을 分析한 最初의 共產主義者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工業勞動者의 數가 미약했던 後進的 中國에서 共產主義革命의 수행을 위한 戰略上, 資本家들의 一時的 利用價值는 絶실한 問題가 아닐 수 없었음을 뜻한다.

毛沢東이 民族부르조아지를 〈聯合獨裁〉勢力인 여러 階級中的 하나로 明確하게 斷定한 것은 1949年 北京政權樹立 直後에 發表한 〈人民民主獨裁論〉에서 였다. 여기서 그는 自己의 獨裁勢力的 基礎로서의 〈人民〉의 階級的構成을 明示하고 人民民主主義獨裁의 概念

北高政權樹立後

을 다음과 같이 規定했던 것이다.

人民이란 무엇인가? 中國에서는, 그리고 現段階에서는, 勞働者階級, 農民階級, 小부르조아지 및 民族부르조아지이다. 이 階級들이 勞働者階級과 共産党的指導下에 團結하고 自己들의 國家를 만들고 自己들의 政府를 選出하고 帝國主義의 앞잡이들 즉, 地主階級과 官僚부르조아지 및 이 階級들을 代表하는 國民黨反動派와 그 共犯者들에 대해서는 獨裁를 行하고 專制를 行하여 이 從黨들을 억압하고...人民内部에서는 民主主義制度를 실시하고 人民에게는 言論, 集會, 結社등의 自由의 權利를 준다..... 이 두개의 側面, 즉 人民内部에서의 民主主義의 面과 反動分子에 대한 獨裁의 面은 서로 結付시킨 것이 人民民主主義獨裁다.

여기서 <共産党指導下에 團結> 한다는 條件은 人民과 反動分子를 區別하는 중요한 基準이다. 獨裁勢力으로서의 <人民> 속에 한몫 끼우기 위해서는 民族부르조아지는 共産党的 <指導> 를 받아야 하며, 그 指導를 거부할 경우 民族부르조아지는 買辦資本家 또는 官僚부르조아지로 몰리게 된다. 그리하여 非主体的 民族부르조아지는 共産党的 支配體制를 強化하는 一時的 補助裝置의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勢力이 아직도 脆弱한 後進社會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の 指導下에 民主主義革命을 수행하고 革命的 諸階級の 聯合獨裁를 실시한다는 共産主義戰略은 毛沢東의 獨創은 아니다.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 民主主義獨裁論> 과 이것을 土臺로 한 스탈린의 中國革命論<sup>①</sup>을 계승하면서 毛沢東은 레닌과 스탈린이 무시한 民族부르조아지를 革命的 諸階級안에 포함시켰던 것이다<sup>②</sup>

帝政로시아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論을 구상할 때 (1905) 레닌이 부

르조아지를 革命勢力에서 排除한 公式을 毛沢東이 自己의 新民主主義革命論의 구상에서 채택하지 않은 理由를 그는 아래와 같이 說明하고 있다.

舊러시아 帝國은 軍事的 封建的 帝國主義요 他國을 侵略하는 것이었음으로 여기서는 러시아의 부르조아지는 아무런 革命性도 없었다. 거기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任務는 부르조아와 鬪爭하는 일이고 그것과 提携하는 일이 아니었다. 中國은 그것이 植民地요 半植民地이며 다른 나라로부터 侵略을 받고 있는 때문에 中國의 民族부르조아지는 아직 어떤 時期에는 어느程度는 革命性을 지니고 있다. 中國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任務는 民族부르조아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革命性을 無視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反帝國主義 및 反官僚軍閥政府의 統一戰線을 수립하는 일이다.

그렇다고하여 革命의 主導權을 西歐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에서와 같이 부르조아지에 맡기자는 것이 아니요,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下에 부르조아革命의 任務를 수행해야 한다는 點에서 毛沢東의 新民主主義革命論은 레닌의 이른바 民主主義革命理論과 一致한다.

社會主義革命의 必要條件으로서만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意義을 認定하고 프롤레타리아트(共産黨)의 獨裁權確立을 性急히 追求하는 共産主義者가 過度的 革命의 指導權을 自己의 基本的 敵對階級인 부르조아지에게 맡길 수 없음은 政治權力的 必然的 論理이다. 여기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을 프롤레타리아트指導下에 遂行하여야 한다는 強辯이 導出되는 것이다. 이러한 主觀的 權力意志, 慾望을 客觀的으로 合理化하기 위하여 毛沢東은 한편으로는 中國民族부르조아지의 社會的 脆弱性과 政治的 二重性을 내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政治的 覺醒과 革命的 徹底性을

출근 強調해 왔다. 그는 <人民民主獨裁論>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였던 것이다.

人民民主獨裁에서는 勞働者階級の 指導가 必要하다. 왜냐하면, 勞働者階級만이 가장 멀리 볼 수 있고, 大公無私하며, 가장 革命的인 徹底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革命的 全歷史는 勞働者階級の 指導가 없이는 革命이 失敗하고 勞働者階級指導가 있으면 革命이 勝利하는 것을 證明하고 있다. 中國의 小부르조아지 및 民族부르조아지는 여러번 革命을 指導했지만 언제나 失敗했다. 民族부르조아지는 現在의 段階에서는 대단히 큰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中國은 나라의 經濟, 人民의 生活에 有害하지 않고 有利한, 都市와 農村의 資本主義的 要素를 利用하고, 民族부르조아지와 손을 잡고 共同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의 現在의 方針은 資本主義를 制限하는 것이오, 資本主義를 一掃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民族부르조아지는 革命的 指導者가 될 수 없으며, 國家權力 안에서 主要한 地位를 차지해서는 안된다. 그 程度는 民族부르조아지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가 그들의 脆弱性을 規定하고 있으며, 그들은 將來에 대한 展望이 없으며, 充分한 勇氣가 없으며 게다가 그중의 많은 者들이 民衆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要約한 바와같이 毛沢東의 新民主主義理論의 全體系를 살펴보면, 이것은 1948年以前 바르가와 트라이넨等 소聯學者들에 의하여 提唱되었던 人民民主主義의 前期理論과 相馳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類似性을 가지고 있음을 窺見할 수 있다. 그런데 時期的으로 보면 毛沢東의 新民主主義 理論은 소聯 및 東歐諸國의 人民民主主義 前期理論보다는 6~7年이나 앞서 提示되었던 것이다. 위의 소聯理論家들이 毛沢東의 新民主主義理論의 影響을 받고 自己들의 理論을 전개했던 것인지의 與否를 밝힐 公的 資料는 없다. 바



르가가 <재로운 形態의 民主主義>의 原型으로써 外蒙古의 經驗에  
관해 言及하면서도 華北의 中共<解放区>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을 보면<sup>③</sup>毛沢東의 新民主主義理論이나 實踐에는 큰 関  
心이 없었을 런지도 모른다. 中國의 共產主義革命을 위한 統一戰  
線의 戰略은 毛沢東의 獨創이 아니라, 1920年 코민테른 第2次大  
會에서 채택된 方針이 있었으므로<sup>④</sup> 소聯의 理論家들은 이에 関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나, 1930~40年代에 毛沢東이 中共<解放区>  
에서 모스크바와의 連絡이 杜絶된 상태에서 展開했던 新民主主義理  
論은 잘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해도 소聯理論家의 權威意識에서 이  
것을 輕視했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

한편 毛沢東은 自己가 주장하는 新民主主義制度는 어디까지나 中  
國歷史의 特殊性에서 나오는 것이오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는 다  
르다는 點을 1945年 中國共產黨 第7次全國代表者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一部에서는 共產黨이 努力을 잡으면 러시아를 본받아 프롤레타  
리아트의 獨裁와 黨制度를 取하지 않을까 疑心하는 사람들이 있  
다..... 러시아의 歷史가 러시아의 制度를 만들어 내는 것이어서  
거기서는.....社會主義에 반대하는 모든政黨들은 人民으로부터 버림  
을 받고 사람들은 오직 볼셰비끼黨만을 支持했던 때문에 러시아의  
그러한 狀態가 만들어 졌다..... 中國의 現段階의 歷史는 中國의  
現段階의 制度를 만들어 낼 것이다. 長期間에 걸쳐 우리들에게  
아주 必要한, 아주 合理的인, 同時에 또한 러시아의 制度와는 다  
른 特殊한 形態, 즉 몇개의 民主的 階級이 同盟한 新民主主義의  
國家形態와 政權形態가 나타날 것이다.

中国의 現段階의 歷史를 이렇게 帝政러시아 末期의 그것과 區別하면서 <러시아의 制度와는 다른 特殊한 形態>의 政權을 強調하는 毛沢東의 이데올로기는 中共의 勢力이 狹小한 延安地方에 局限되어 있었을 때는 스탈린에게는 重大한 問題가 아니었다. 그러나 毛沢東이 革命戰爭을 통하여 中国本土를 정복하고 北京政權을 수립하자 크레믈린은 이것을 크게 歡迎하면서도 中共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예민한 関心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中共이 中国的 特殊性을 지나치게 내세울 때는 必然的으로 社会主義로의 <中国의 길>, 즉 소聯을 先頭로하는 統一的 國際共產主義 運動으로부터의 離脫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論한바와 같이 스탈린은 北京政權이 樹立되었을 때 (1949年 10月 1日)까지는 人民民主主義理論의 해석에서 共產主義國家들이 独自の인 路線을 扞하여 소비에트의 路線으로부터 脫線할 수 있는 一切의 要因을 제거해 버렸던 것이다.

[ 註 ]

註1) : ① 스탈린은 1926年 11月 30日 콤민테른執行委員會 中國委員會에서 한 <中國革命의 展望에 대하여>란 演說에서 中國의 第一次的 革命의 特質을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인 同時에 反帝國主義的 民族解放革命>이라고 規定하였다. 그러나 中國의 民族부르조아지의 勢力은 脆弱하고 뒤떨어져 있음으로, 이것을 革命勢力으로는 看做하지 않았고, 따라서 <中國革命의 主唱者요 指導者로서의 役割, 中國農民의 指導者로서의 役割은 아무래도 中國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그의 黨의 手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했던 것이다. 이에 關해서는 다시 後述할 것이다. <스타リン全集>第八卷, 大月書店版 PP. 404~405

註2) : 1920年 7~8月 콤민테른 第2次大會에서 레닌은 植民地 또는 後進國의 革命運動은 부르조아民主主義運動이라기 보다는 反帝國主義的 民族革命運動이라는 點을 承認하면서 이 나라들의 부르조아지는 民族運動을 支持하는 一面, 大部分의 경우 搾取國의 부르조아지와 結託하고 있다고 하여 民族부르조아지를 不信하였다. 그리하여 共產主義者들은 <植民地의 부르조아解放運動이 真正으로 革命的인 때, 그리고 共產主義者들이 農民과 被搾取大衆을 革命精神으로 教育하고 組織하는 것을 그 運動의 代表者들이 妨害하지 않는 때에만 그것을 支持할 것>이고, <이러한 條件이 存在하지 않을 때는 이 나라들의 共產主義者들은 改良主義的 부르조아지와 싸울 것>이라는 戰略은 제시했다. 즉, 레닌은 後進國의 民族부르조아지들이 革命的이오 同時에 容共的인 限 共產主義者들은 이들의 부르조아 解放運動을 支援한다는 方針을 明示하므로써, 民族부르조아지의 革命性을 消極的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Lenin Selected Works, Vol. 3, 1967, Moscow, pp 457~58

(註3) : Benjamin Schwartz, Communism and China Ideology in Flux, 1968 p. 51

(註4) : 植民地・半植民地的인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는 反帝・反封建的 民族革命運動 ( 부르조아民主主義者 포함 ) 을 < 積極적으로 支援 > 해야 한다는 이른바 < 民族問題와 植民地問題에 關한 提제 > 가 1920年 7~8月 콤민테른 第2次大會에서 採択되었다. 이 < 提제 > 에 의하여 中國 共産黨은 民族부르조아지의 革命性을 인정하고 이것을 利用해야 한다는 理論的 根拠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22年 1~2月 에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第一次極東勤勞者大會에서는 이 < 提제 > 에 具現된 戰略을 中國共産黨이 實行하는데 關한 詳細한 討論이 展開되었다. < 極東勤勞者大會 > 에 뒤이어 1922年 5月 中國共産黨은 杭州에서 第2次代表大會를 열고 黨의 宣言을 作成하여 黨의 最高綱領과 最低綱領을 規定하였다. < 最高綱領 > 은 黨이 帝 主義와 軍閥을 反對하는 < 民主主義革命 > 을 支援하고 < 勤勞者, 貧苦 및 小부르조아지의 民主主義的 統一戰線 > 을 조직할 것을 要求했다. 이러한 戰略을 土台로 第1次國共合作 ( 1923~27 ) 이 試圖되었던 것이다. 이때의 < 統一戰線 > 戰略은 콤민테른의 構想한바 있으며 毛沢東의 獨創은 아니었다. 그는 抗日戰爭時 이 戰略을 体系的으로 發展시켜 民族부르조아지를 포함하는 革命的 諸階級の 聯合獨裁의 新民主主義理論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C. Brandt, B. Schwartz and J. K. Fairbank, 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1952, Section I and II Franklin W. Houn, A Short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1967. pp. 21~34 參照

四 . 中 . 소의 對立樣相

1954-55

1955-56

-11-

#### 四. 中. 소의 對立樣相

##### 1. 中共. 소聯의 理論檢討

1949年9月29日, 즉 毛沢東이 中國大陸을 장악하고 <中華人民共和國>을 선포하기 直前,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는 新政權의 暫定憲法으로써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 共同綱領의 第一條는 中共의 國家權力の 本質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는 人民民主主義 즉 人民民主主義의 國家이며, 勞動階級이 指導하고, 勞農同盟을 기초로 한 民主的 諸階級과 國內의 諸民族을 集結하여 人民民主獨裁를 실행하며, 帝國主義, 封建主義 및 官僚資本主義에 반대하고 中國의 獨立, 平和, 統一, 富強을 위하여 鬪爭한다. 5)

여기서 中共은 <人民民主主義>라는 概念을 <新民主主義>와 同一視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이 말하는 <人民民主主義>의 概念은 東歐와 소聯의 解釋을 받아드리는 일 없이, 前述한 毛沢東의 <新民主主義> 理論의 體系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즉, 中共에 있어서는 人民民主主義란 소聯과 東歐의 後期理論에서 엄격하게 規定되었듯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指導下의 몇개의 <民主的> (革命的) 諸階級 - 프롤레타리아트, 農民階級, 小부르조아지의 <聯合獨裁>였다. 毛沢東은 이러한 聯合獨裁를 1949年7월에 發表한 <人民民主獨裁論>以後에는 <人民民主獨裁>라는 새로운 用語로 表現했던 것이다. 이 毛沢東의 <人民民主獨裁>는 사실은 크레믈린이 사용하는 人民民主主義와는 內容을 달리했다. 그러나 소聯의 政治家

와 理論家들은 中共의 政治權力을 規定할때, <人民民主獨裁>란 用語를 사용하는 것조차 애써 避하고 있었고,<sup>6)</sup> 이와는 反對로 中共의 理論家들은 毛沢東이 中國革命을 위하여 <人民民主獨裁>라는 새로운 概念을 전개하므로써 <맑스·레닌主義 國家理論을 더욱 發展시켰다>고 말하면서 그의 맑스·레닌主義에 대한 理論的 貢獻을 강조했던 것이다. 동시에 毛沢東이 <民族부르조아지>를 革命勢力의 하나로 간주하고, 新政權의 한 支配階級으로 參加시켰다는 것을 中共은 毛沢東의 獨創으로 宣傳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고권대 콤민테른의 理論家들은 벌써 毛沢東 以前에 中國社會를 맑스·레닌主義의 尺度로 分析하고, 半植民地的 狀態와 半封建的 支配關係에 머물러 있었던 後進的 中國에서는 第一段階의 革命은 처음부터 反帝國主義·反封建的 부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는 定式化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型>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結果는 旧型의 부르조아 獨裁를 確立하고, 資本主義的 發展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非資本主義的, 즉 社會主義的인 길을 걷는다는 것이었다. 中國革命에 關한 이러한 1920年代의 戰略은 크레믈린의 革命文獻에서는 하나의 常識이었다. 그리고 中國의 反帝國主義 革命에서는 民族부르조아지(第一次 國共合作時의 國民黨을 가르킴)가 아직은 革命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으며, 反帝·反封建的 民主革命을 수행하는 國家形態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도 아니요 <부르조아지의 獨裁>도 아닌 <몇개 階級の 聯合獨裁>라는 主張은 이미 1927년에 스탈린과 그 支持者들에 의하여 제시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毛沢東의 <新民主主義>理論에서는 이데올



로기상의 獨創性이란 事實上 찾아보기 어렵다. 그의 獨創성은 도리어 그의 政治的 實踐方式과 이것을 說明하는 그의 簡명한 文言에 있는 것이다.

1926年11月30日 스탈린은 콤민테른 執行委員會에서의 有名한 演說《中國革命의 展望》에서 中國革命의 基本的 特性을 세가지로 規定하였다. 즉, (1) 中國革命은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인 동시에 反帝國主義的 民族解放革命이오, (2) 中國의 이러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은 中國의 民族부르조아지가 脆弱하고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에 依하여 指導되어야 하며, (3) 소聯의 存在, 그의 革命的 經驗과 授助는 帝國主義 및 封建的 殘滓에 대한 中國프롤레타리아트의 鬪爭을 容易하게 하지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7)</sup> 이러한 前提로부터 스탈린은 中國의 將次의 革命政權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豫見하고 있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中國에서의 장차의 革命權力은 그 性格으로 보아 1905年 우리나라에서 論議되고 있었던 것은 權力, 즉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民主主義的 獨裁와 類似한 것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中國의 權力은, 주로 反帝國主義的 權力이 되리라는 點에 差異가 있다.

그것은 中國의 非資本主義的 發展, 보다 正確하게 말한다면 社會主義的 發展에로의 過渡的 權力이 될 것이다.

中國의 나아갈 方向은 여기에 있다.

1927年까지에, 定立이 完成된 이러한 스탈린의 中國革命觀은 그의 政敵인 트로츠키에 의하여 세찬 挑戰을 받은 일이 있지만<sup>8)</sup> 이것은 스탈린의 死亡時까지는 소비에트의 正統的 理論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하여 <中華人民共和國>이 수립되었을 때 그 政權의

性格을 規定함에 있어서 소비에트의 理論家들은 1920年代에 스탈린이 展望했던 이데올로기의 視野 안에 머물르고 있었다. 즉, 帝國主義의 抑壓에서 解放된 半植民的~半封建的인 中國의 人民民主主義는 植民地的 搾取를 경험하지 못했고, 中國보다는 덜 封建的이었던 東歐諸國의 人民民主主義보다는 훨씬 더 広範圍한 부르조아民主主義的 課題를 가지고 있다는 그 特殊性 때문에 兩者間에는 發展段階의 差異가 있다는 點을 認定했다. 그의 代表的인 見解로 <콤민포름>의 機關紙 <恒久的 平和를 위하여, 人民民主主義를 위하여>는 <中華人民共和國> 創建 1週年을 記念하는 社說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었다.

中國의 國家權力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아니며, 이 點에서 그것은 유럽의 人民民主主義諸國의 國家權力과는 다르다. 유럽에서의 人民民主主義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에서의 人民民主主義의 獨裁는 勞動者階級, 農民, 小부르조아지, 民族부르조아지 및 그밖의 民主的 分子들의 人民民主的 統一戰線의 國家權力이오, 이러한 統一戰線은 勞動者와 農民의 同盟을 기초로 하고, 勞動者階級에 의하여 指導되고 있다. 9)

中國의 人民民主主義가 現段階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될 수 없다는 理由를 同社說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中國에서의 人民民主主義 國家權力的 性格은 最近까지 植民的인 이 나라의 諸條件에 의하여 規定된다. 現在 中國의 勞動人民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手段으로하는 社會主義建設의 課題에 直接 當面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크레믈린의 見解를 그대로 代辯하고 있던 <콤민포름> 機關紙의 以上과 같은 社說은 毛沢東의 理論과 다를바가 없다. 그러나 同社說은 두 개의 主張을 첨부하므로써, 中共政權을 소聯의 政治的 權

威와 이데올로기의 統制下에 두려는 意圖를 明白하게 表示했던 것이다. 즉, 첫째로는 中共의 革命의 勝利는 소聯의 役割때문에 可能했다는 것이다. 同社說은 아래와 같이 主張했다.

中共革命의 勝利는 소聯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勝利에 의하여 可能했다. 中國革命의 勝利는 히틀러의 파시즘과 日本帝國主義를 소비에트軍隊가 絶滅시킨 結果이다.

둘째로는 中共의 맑스·레닌主義理論에 대한 理解는 아직도 未熟하다는 것이다.

中國共產主義者들은 맑스·레닌主義理論의 보다 깊은 認識을 確保해야 한다는 것을 自己들의 가장 緊急한 任務라고 간주한다. 이 일을 完成하게 될 때는 正確한 指導, 人民들과의 긴밀한 紐帶, 보다 큰 革命的 奮發心 그리고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에 대한 忠實性을 確保하게 된다.

이상의 주장 背後의 意味는 中共의 勝利는 소聯의 惠沢때문에 달성되었으며, 앞으로는 소聯으로부터 맑스·레닌主義의 올바른 理論을 더욱 習得하므로써만 비로소 中共은 黨路線을 설정할 수 있고, 소聯이 指導하는 國際共產主義運動에 忠實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레믈린은 東歐에 대해 抑圧的 措置와 強制的 劃一化를 단행했던 것과는 달리, 中共에 대해서는 自尊心을 손상시키고 反撥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前例없는 寬容과 忍耐의 태도로 臨했던 것이다. 그러나 크레믈린의 中共에 대한 이데올로나상의 優位와 政治的 指導性은 明示的으로 또는 暗示的으로 表現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크레믈린은 中國의 社會, 經濟的 <特殊性> 때문에 中國의 人民民主主義 (= 人民民主獨裁) 와 보다 先進的인 東歐諸國의 人民民主主義 (=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間에 差異가 있음을 認定하

기는 하면서도 中共이 그〈特殊性〉을 지나치게 強調하므로써 僵化  
 社會主義에로의〈獨自의인 길〉을 걷게될 것을 警戒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朱可夫( E. Zhukov )와 같은 소聯의 理論家는 亞細亞와  
 유럽에 있어서는〈社會發展의 速度와 具體的 形態의 差異만이 있다〉  
 는 點을 지적하면서, 〈亞細亞의 人民民主主義는 그 基本的 性格에  
 있어서 유럽의 人民民主主義와 本質의 差異가 있는 것이 아니다〉<sup>10)</sup>  
 라는 主張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말이 示唆코자 한  
 바는 中國의 現段階의 人民民主主義는 東歐諸國의 前期段階  
 ( 1944 ~ 48 ) 의 人民民主主義와 相似하고 後期段階의 그것과는 다  
 르지만, 그러나 中國의 人民民主主義도 後期の 發展段階에서는 모든  
 人民民主主義가 거치는 唯一의 길, 즉 소聯式 프롤레타리아트의 獨  
 裁의 過程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要컨대 크레믈린은 中共의 將次的 發展이 소聯의 모델로부터 離  
 脫하지 못하도록 이데올로기상의 綱絛을 씨우려 했던 것이다.

한편 中共은 建國을 前後한 어려운 狀況에서 소聯의 支持와 援  
 助를 획득할 必要가 있었고 소聯共産黨의 先驅的 經驗을 배우지 않  
 을 수 없었다. 毛沢東, 劉少奇등 指導層은 소聯에 대한 無限한 禮  
 讚, 스탈린으로부터의 無數한 引用을 주저하지 않았다. 劉少奇는 毛  
 沢東을 심지어〈맑스-엔겔스-레닌-스탈린의 弟子〉라고까지 불렀대<sup>11)</sup>  
 그러나 이들은 소聯의 中共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支配를 받아들이  
 려 하지 않았고, 中國的〈特殊性〉에 맞는 中國의 共産主義理論의  
 確立을 切感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劉少奇는 1945年 5月 14日  
 延安에서 열린 中國共産黨 第7次全國大會에서의 報告演說에서〈中國  
 에 適用되면서 發展했고, 完成된 맑스主義이며, 中國人民의 革命과

建國의 綜合的인 理論>으로써의 <毛沢東思想>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내어왔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毛沢東思想은 맑스·레닌主義의 理論과 中國革命의 實踐과를 統一한 思想이며, 中國의 共產主義요, 中國의 맑스主義>라는 것이다. 그리고 맑스主義를 体系的으로 <中國化>하고, <歐羅巴의 形態로부터 中國의 形態로 바꾸는> 극히 어려운 事業을 成功的으로 수행한 毛沢東은 <단지 中國 有史以來의 最大의 革命家요, 最大의 政治家뿐만 아니라, 또한 中國有史以來 最大의 理論家, 科學者>라는 최고의 讚辭를 劉少奇는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毛沢東思想崇拜는 中國 共產主義革命에 대한 소聯으로부터의 干涉의 여지를 철저히 봉쇄하자는 것이었다. 劉少奇의 말과 같이 毛沢東이 中國共產主義運動에 關한限, 真理의 化身이라면 스탈린은 敢히 理論的으로 中國共産黨을 지도할 權利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劉少奇는 이렇게 위대한 毛沢東이야말로 <中國의 프롤레타리아트와 全勤勞人民이 그에 의하여 自己를 解放할 수 있는 唯一의 勳은 理論이며 政策>이요, 中國共産黨의 <唯一의 勳은 指導思想>이라고 했다. 만일 그렇다면, 毛沢東思想과는 다른 어떤 理論이나 指導思想이 모스크바로부터 介在해 들어오는 것은 容認할 수 없다는 論理가 성립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가 中共의 이러한 毛沢東思想의 絶對化를 좋아 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모스크바는 <毛沢東思想>이라는 것을 認定한 일이 한번도 없으며, 그러한 用語를 使用하지도 않았다.

劉少奇에 의하면 毛沢東思想은 비단 <中國의 共產主義>일뿐만 아니라 <各國 人民의 解放事業, 특히 東洋에 있어서의 諸民族의 解

放事業에 대해서도 重要하고 有益한 貢獻을 하하게 될 것이다 >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主張은 東洋의 여러 나라들이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 半封建社會라는 點에서 中國과 마찬가지로 革命的 課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主張안에는 亞細亞 및 아프리카 등 後進地域의 反帝·反封建的인 革命은 先驅的인 毛沢東思想을 따라야한다는 中共의 革命指導權에 대한 要求가 暗示되고 있다. 1946年初 그는 美國의 안나·루이즈·스트롱(Anna Louis Strong) 女史와의 面談에서 이러한 見解를 보다 具體的으로 大膽하게 진술했던 것이다.

... 맑스와 레닌은 유럽人이었다. 그들은 유럽의 歷史와 問題들을 유럽語로 썼고 亞細亞나 中國에 關해서는 좀처럼 論하지 않았다. 맑스主義의 基本原則은 모든 나라들에 適應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一般的 真理들 中國의 具體的인 革命的 實踐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課題다. 毛沢東은 中國人이다. 그는 中國問題를 分析하고 中國人民을 그들의 鬪爭에 있어서 勝利에 이끌고 있다. 그는 맑스·레닌主義의 原則을 사용하여 中國의 歷史와 實踐의 諸問題를 解明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일에서 처음 成功한 사람이다. ... 毛沢東은 中國의 또는 亞細亞的 形態의 맑스主義를 창조했다. ... 東南亞細亞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事情은 [中國과] 유사하다. 中國이 擇한 길은 이 나라들 모두가 影響을 미칠 것이다.<sup>13)</sup>

맑스主義에 대한 毛沢東의 獨創的 貢獻을 強調한 劉少奇의 이러한 主張에 스탈린은 물론 滿足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이미 東歐의 몇몇 나라에서 印刷中에 있었던 毛沢東에 관한 스트롱女史의 著書를 소聯에서 出版하지 못하도록 個人的으로 干涉하는 事態까지 일어났던 것이다.<sup>14)</sup> 이런 일에도 不拘하고 1949年11月 北京에서 열렸던 亞細亞·太平洋諸國勞動組合談에서도 劉少奇는 <帝國主義를 격파하고 中華人民共和國를 창건함에 있어서 中國人民이 걸어온 길은 많은 植民地 및

半植民地 나라들물의 人民들을 그들이 그들의 民族的 獨立과 人民民主主義를 위한 鬪爭에서 걸어야 할 길이고...이 길은 毛沢東의 길이다 ><sup>15)</sup> 라고 言明하브로서, 亞細亞 및 아프리카地域에서의 共產主義革命의 指導權은 中共이 장악해야 한다는 것을 示唆했던 것이다. 물론 모스크바의 代辯人들은 이러한 毛沢東의 獨創적인 <길>을 좀처럼 시인하지 않으려했을 뿐만 아니라, <中國革命을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위한 일종의 基準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일><sup>16)</sup> 이라고까지 警告하기에 이르렀다.

소聯의 이와 같은 中共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規制의 試圖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獨自의 主張의 제시를 포기하지 않았다. 中共은 前述한 바와 같이 소聯式 用語인 人民民主主義라는 말을 毛沢東의 造語인 新民主主義와 동일한 개념에서 사용은 했지만 이 보다는 新民主主義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毛沢東의 新民主主義理論이 소聯式 人民民主主義理論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나왔기 때문에, 中共이 <新民主主義, 즉 人民民主主義>라는 表現을 사용할 때는 암암리에 毛沢東을 이面에서의 理論的 先驅者로 추대하는 結果가 되는 동시에 東歐의 人民民主主義의 發展까지도 中共이 해석하는 新民主主義의 개념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暗示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中共이 自國의 國家權力形態를 毛沢東의 獨自의 用語인 <人民民主獨裁>로 규정하고, 소聯이 해석하는 人民民主主義와는 積極的으로 區別했다는 사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聯의 理論家들이 中共의 특수성을 積極的으로

시인은 했다하더라도 모스크바에 대한 一種의 挑戰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소聯의 理論家들은 中國의 特殊性을 시인은 했지만 毛沢東의 創造的 能力은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대해, 中共의 理論家들은 中共의 理論家들은 中國의 特殊性和 동시에 毛沢東의 創造的 能力도 강조했기 때문이다.

毛沢東의 人民民主獨裁 理論이 소聯式(스탈린式) 革命理論과 正面으로 대립되는 點은 毛沢東이 여기서 平和的 社會主義革命을 제시한데 있다. 즉, 그는 일단 人民(勞動階級, 農民階級, 小市民階級, 및 民族資本家階級)이 강력한 國家權力을 수립한 후에는 強制的 方法이 아니라 民主的 方法, 즉 說得에 의하여 프롤레타리아 以外的 人民들의 敎育과 改造를 통해 社會主義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人民的 國家가 있고서야 비로소 人民은 全國的으로 그리고 全體的 규모로 民主的 方法에 의하여 人民自身을 敎育하고 改造하여 國內外的 反動派의 影響(그 影響은 현재로서는 아직 대단히 크고 또한 오랫동안 存在하며 아주 급속하게 絶滅할 수는 없을 것이다.)으로부터 떼어놓고 人民自身이 舊社會로부터 지닌 나쁜 습관과 思想을 改造하고, 人民自身을 反動派가 끌어드리려는 그릇된 길을 밟지 않게 하는 동시에 계속 前進시키고 社會主義, 共產主義社會를 同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面에서 사용하는 方法은 民主的 方法 즉 說得이란 方法이오, 強制라는 方法은 아니다. 人民이 法을 어기면 역시 處罰하지 않으면 안 되고 監獄에 집어 넣지 않으면 안 되고, 死刑에도 처한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 個個의 경우요, 反動階級에 대한 하나의 階級으로써의 獨裁와는 原則的인 差異가 있다. 17)

毛沢東은 人民民主獨裁의 國家에서는 反動階級에 대해서는 <強制的으로> 改造活動을 버려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人民의 一部인 民族부르조아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남여지는 民族부르조아지인데, 現在의 단계에서도 그들중의 多數에



대해 일련의 적절한 教育活動을 시행할 수 있다. 장차 社會主義를 실행하는 경우, 즉 私營企業을 國有化하는 경우에 이르면 그들에 대해 教育과 改造를 더욱 추진한다. 人民의 수중에는 강대한 國家機關이 있다. 따라서 民族부르조아지의 배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sup>18)</sup>

이상과 같은 毛沢東의 명백한 주장은 스탈린에 의하여 해석된 正統的 맑스·레닌主義理論과는 두가지 点에서 對立된다. 첫째는 中共의 人民民主獨裁體制下에서는 모든 非 프롤레타리아의 人民들을 民族부르조아까지를 포함하여 強制的 方法이 아니라 民主的 方法에 의하여 社會主義的으로 教育改造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基本原則으로 제시하므로써, <階級들은 프롤레타리아의 가혹한 투쟁의 方法으로 없어진다><sup>19)</sup> 는 입장에서, 社會主義로移行하는 過渡期에 있어서는 階級鬭爭의 尖銳化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스탈린<sup>20)</sup>을 사실상 否認했던 것이다. 둘째로 毛沢東은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실현함에 있어서 부르조아지와 農民들의 社會主義的 <教育> 과 <改造> 의 可能性만을 강조한데 그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必要性에 관해서는 전혀 言及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毛沢東의 태도는 스탈린이 <社會主義를 조직하기 위하여, 階級을 絶滅하기 위하여 階級없는 社會, 社會主義社會에 移行하기 위하여>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權力을 利用하는 것은 必然的이라고 본 입장을 묵살하는 것이었다. 1950年初에도 소聯의 公式見解는 社會主義를 建設하려면 먼저 프롤레타리아의 獨裁를 확립하고, 都市의 부르조아지와 農村의 富農들에 대한 가혹한 階級鬭爭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普遍的 法則으로 인식해 왔

던 것이다. 소聯이 1948年末 東南歐의 諸國의 人民民主主義의 權力의 성격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機能을 수행하는> 國家權力으로 엄격히 규정했던 것은 이 나라들이 이미 <社會主義建設>의 단계로移行하고 있다는 새로운 現實을 正統的 理論에 부합시키려는 때문이었다.

그러나 中共은 人民民主主義權力은 곧 人民民主獨裁라는 公式를 고수하면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아니라 人民民主獨裁에 의해서도 社會主義를 平和的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같이 주장하면서 社會主義를 지향하는 中國的인 길이 소聯 또는 東歐의 길과는 相異하다는 것을 계속示唆하고 있었다. 劉少奇는 1949年9月の 政治協商會議에서 小부르조아지와 民族부르조아지를 모두 포함하는 <全國人民의 革命的 大團結은 오늘 新民主主義를 실현하기 위해서 必要할 뿐만 아니라 장차 社會主義를 실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必要하다 ><sup>21)</sup>고 역설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下에서만 社會主義建設은 가능하다는 소聯의 正統的 理論을 암암리에 무시했던 것이다. 그리고 中共의 最高位指導者들의 이상과 같은 주장을 옹호 부연하는 中共理論家들의 文言이 의대히 뒤를 따랐다<sup>22)</sup> 人民民主主義政權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으로 규정하느냐하는 問題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없이도 社會主義에로 移行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는 1949年에서 1956까지<sup>23)</sup> 소聯과 中共간의 重大한 이데올로기의 論爭點으로 잠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兩極化되어 있던 國際情勢와 中·소團結의 必要性을 고려하여 兩側은 모두 상호간의 이데올로기의 差異를 公開論爭으로 發展시키지는 않았으며, 同志的 立場에

서 원만하게 이것을 調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毛沢東을 비롯한 中共의 指導者들이 非프롤레타리아人民들을 強制的 方法이 아니라 民主的 方法, 즉 說得에 의하여 社會主義적으로 <教育>하고 <改造>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들이 儒敎的 仁政을 실시하는<sup>24)</sup> 道學者였던 때분도 또는 온전한 修正主義的 共產主義者였던 때분도 아니었다. 中國共產黨이 大陸에서 政治的 支配權을 장악은 했으나, 아직도 非共產主義者들의 支持를 최대한으로 획득하여 그들의 統一戰線의 토대 위에서 그 支配權을 더욱 強化하는 절대로 必要했던 당시의 狀況이 그들로 하여금 人民의 <團結>과 <改造>와 <教育>이라는 平和的 非暴力的 方法을 강조케했던 것이다. 中共의 <人民民主獨裁>의 이데올로기가 中國社會에 現實적으로 適用될 때는 이것은 사실상 共產黨의 一黨獨裁를 가르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毛沢東은 그의 《人民民主獨裁理論》에서 中國共產黨의 經驗의 總括이라고하여 <勞動者階級이 (共產黨을 통하여) 指導하는 勞農同盟을 기초로하는 人民民主獨裁>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이것은 中國人民政治協商會에서 채택된 共同綱領(1949年 9月29日)의 前文에 보다 명확하게 천명되었던 것이다. 즉,

...中國의 人民民主獨裁는 中國의 勞動者階級, 農民階級, 小부르조아지, 民族부르조아지 및 그밖의 愛國的 民主分子의 人民民主統一戰線의 政權이며, 勞農同盟을 기초로 하고 勞動者階級을 指導者로 한다.<sup>25)</sup> 여기서 定式化된 <勞動者階級이 (共產黨을 통하여) 指導한다>느니 또는 <勞動者階級을 指導者로 한다>느니하는 그 <指導>는 暴力을 背景으로하는 支配라는 의미에서 <獨裁>와 사실상 同一한 것이었다.<sup>26)</sup> 四大階級の 同盟體라는 中共의 人民民主統一戰線

에서는 政治的 實權을 獨裁的으로 행사하고 있던 것은 四大階級中에서 勞動者階級, 즉 그의 前衛隊라고 하는 共產黨만이였다. 共產黨의 友黨이라고 불리우던 소위〈民主的〉諸黨派는 共產黨路線에 全的으로 호응하고, 共產黨의 口號를 기계적으로 따라 웨치는 傀儡的 存在에 불과했다. 聯立政府의 形式으로 조직된 新政權의 各權力機關—政務院(內閣),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署, 人民軍事革命委員會등에서 民主同盟, 農工民主黨, 國民黨革命委員會 또는 無黨派民主人士들이 要職을 분배받아, 中共政權은 마치 광범한 非共產主義勢力과 權力을 共同享有하는 듯한 印象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無力한 一時的 利用物이였다. 中共의 人民民主獨裁政權은 그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共產主義者들, 그중에서도 毛沢東을 선두로한 黨中央政治局의 小數人들이 지배하는 全体主義的 獨裁政權이였다.

非 프롤레타리아的 人民들을 社會主義的으로 教育 改造할 때는 強制的 方法이 아니라 民主的 方法, 즉 說得의 方法을 사용해야 한다는 毛沢東의 主張은 中共式 人民民主獨裁를 가혹한 소비에트式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로부터 區別하는 주요한 특징인것 같은 印象을 對外的으로 퍼트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53年의 第1次 5個年計劃을 앞두고 1951年 以來 맹렬한 기세로 단행된〈思想改造運動〉과〈三反五反運動〉은 毛沢東의〈民主的 方法〉이 사실은 놀랄만큼 強壓的, 恐怖的, 全体主義的 方法이라는 것을 立証하였다. 그런대로 1950年 6月부터 시작될 土地改革運動과 1951年2月부터 전개된 反革命鎮壓運動, 1950年10月에 일어난 抗美援助運動의〈三大運動〉에서의 清算對象은〈地主〉,〈買辦資本家〉,〈官僚資本家〉,〈反革命分子〉,〈帝國主義의 走狗〉등 명목상 共產主義의 本質的인 敵對階級인 反動勢力이였다.<sup>27)</sup> 政治鬭爭의 과정에서 反動과 人民을 구분하는

실제적 기준이 어떤사람의 政治的 性分보다도 그가 国民党을 반대하고 共産黨을 지지하느냐. 없느냐하는 政治的 立場을 重視했음을 물론이다.

土革, 鎮反, 抗大運動이 빚어낸 공포의 雰圍氣를 이용하여 思想改造運動과 三反五反運動이 全國的 規模에서 무서운 氣勢로 강행되었다. 이번에는 그 対象이 <부르조아지의 反動的 思想과 生活態度>를 아직도 일소하지 못한 人民들, 특히 知識分子, 民族부르조아지, 官吏階級이었다. 思想改造는 個人의 人格的 獨立, 尊嚴性을 가장 굴욕적인 自己批判과 群衆批判앞에서 파괴하고, 精神的인 虐待와 暴力的 彈壓의 공포속에서 자행되는 典型的 洗腦工作이었다. 그리고 <三反>은 黨, 軍, 政府, 人民團體등의 公共機關에서 汚職, 浪費, 官僚主義를 소탕한다는 運動이요, <五反>은 商工業者의 뇌물, 脫稅, 加工材料의 절취, 國家資材의 절도, 國家經濟情報의 누설등 民族부르조아지의 <五毒>行爲를 숙청한다는 運動이었다. 中共當局의 발표에 의하면 三反運動에서 處刑된 사람의 數는 國家各機關員의 4.5%요, 五反運動에서 적발된 商工業者는 45萬名에 이른다고 한다.<sup>28)</sup>

이러한 不正現象이 다소는 있었고 그 原因은 旧支配者가 남기고 간 惡習과 共産黨의 汚職에 있었으며, 이것을 소탕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中共에 批判的 태도를 취하는 局外者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다.<sup>29)</sup> 그러나 五反運動을 일으킨 共産黨의 真意는 다른 곳에 있었다. <<共同綱領>>은 毛沢東의 本來의 주장인 <公私兼顧>(公企業과 私企業의 利益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것), <勞資兩制>(勞働者와 私的 企業家의 利益을 모두 고루한다는 것)을 구가하면서 民族資本家들을 포섭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이들을 수탈하

고, 社會主義的으로 개조할 때가 온 것이다. 五反運動은 民族資本家, 階級을 <教育>하고 <改造>한 또하나의 代表的인 例였다. 그러나 그 方法은 <民主的>이 아니라 철저히 全体主義的이었다. 企業家, 商工人들은 共產黨이 打虎隊라는 이름에서 조직 동원된 群衆組織에 의하여 포박된 후 처참한 학대를 통하여 <犯罪>의 自由를 強要당했고, 自白하지 않은 경우에는 公安警察에 의하여 체포 투옥되었다. 이들은 最上의 경우해야 破産에 그쳤고, 30 萬名이상이 勞動改造營 (強制勞動收容所)에 송치되었고 大都市에서 매일 같이 自殺騷動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中共當局이 이들 商工業者들로부터 몰수한 財産은 20 億美弗에 달한다고 한다.

民族부르조아지에 대한 <教育>과 <改造>運動은 本質的으로는 하나의 階級으로써의 民族부르조아지의 말살을 위한 격렬한 階級鬪爭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中共型 人民民主獨裁는 소비에트型 또는 東歐型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 그 결과에 있어서 다를바가 없었다. 그러나 毛沢東과 그의 理論家들은 中共이 民族부르조아지의 存在를 허용하고있는 點을 東歐의 人民民主主義와의 <差異>라고 줄곧 力說하므로써<sup>30)</sup> 毛沢東을 獨創的인 맑스·레닌主義者로 부각시키려 했다. 따라서 中共과 소聯의 이데올로기의 緊張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中共은 1953年 가을 소聯에 대해 또하나의 重大한 이데올로기上的 충격을 주었다. 즉, 中共은 1953年 9月 25日 國家計劃委員會主任 李富春(文化革命에 숙청)을 통하여 <中國人民은 革命의 승리를 爭取하자 곧 새로운 時期 즉 社會主義으로 전진해 行하는 時期에 들어섰다<sup>31)</sup>>는 國民的으로

公言했던 것이다. 이 말은〈中華人民共和國〉의 성립과 더불어 中共은 新民主主義革命의 단계를 完結짓고 社會主義革命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10月에는 이러한 立場을 보다 明確히 하는 소위〈過渡期의 總路線〉, 즉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시기의 黨의 全般의 方針이 中國共產黨 統一戰線責任者 李維漢에 의하여 淸명되었다. 그는 1953年 10月 28日 中華全國工商聯合代表大會에서 한 자기의 演說에서 過渡期의 總路線이 毛沢東의 指示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過渡期의 總路線에 관하여 毛沢東主席은 다음과 같은 指示를 내리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의 成立으로부터 社會主義的 改造가 기본적으로 달성될 때까지, 이것이 過渡期다. 이 過渡期에 있어서의 全般의 方針과 全般의 任務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나라의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점차로 실현함과 더불어 農業, 手工業, 私營工商業에 관해 나라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점차로 實現하는 일이다. 이 全般의 方針은 우리들의 各種의 活動을 비춰주는 燈臺요, 各種의 活動은 이것을 右翼의 또는 極左의 과오를 犯하게 될 것이다》 32)

이상의 毛沢東의 指示를 요약하면 社會主義的 工業을 새로히 創設하는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農業, 手工業, 商工業은 社會主義的으로 改編하는 일 즉,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任務는 北京政權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요, 이때부터 社會主義建設이 完成될 때까지가 하나의 過渡期다. 그리고 이 時期를 社會主義의 建設期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右翼의 偏向이요, 반대로 資本主義的 要素를 漸進的 方法이 아니라 急進的으로 말살하려는 것은 極左의 偏向이라는 것이다.

李維漢은 毛沢東의 이러한 指示를 公開하고, 이어 그의 二段階革

命論, 즉 中國革命의 <第1段階는 결코 中國 부르조아지가 獨裁하는 資本主義를 建設하는 것이 아니오, 또 建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中國의 프롤레타리아트를 先頭로한 中國의 革命的 諸階級の 聯合獨裁에 의한 新民主主義社會를 建設하는 것이오, 이에 의하여 第1段階는 끝나는 것이다. 그 후 다시 이것을 第2段階로 發展시키고, 이에 의하여 中國의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것이다>라는 圖式을 引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의 成立은, 中國革命의 第1段階가 끝나고, 우리들이 지금 그 안에서 生活하고있는 中國의 新民主主義社會를 過渡期 性質의 社會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過渡期의 特徵은 社會主義要素가 점차로 발전하고 非社會主義要素가 점차로 改造되고, 나라의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점차로 실현해가는 것을 土臺로 中國을 위대한 社會主義國家로 만드는데 있다. 이 期間을 過渡期이라고 하는 것이다>.

過渡期의 總路線에 관한 李維漢의 이상과 같은 설명은 黨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의 立場에서 밝힌 것이었다. 이것은 要컨대 1949年의 <中華人民共和國>의 成立과 더불어 中國革命의 第1段階 즉 民主主義革命은 完結되고, 第2段階 즉 社會主義革命이 始作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毛沢東은 1956年4月 이러한 觀點을 보다 明確히 하면서 <中華人民共和國의 成立은 中國革命이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段階的에서 社會主義革命의 段階로 轉化한 것, 즉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 들어선 것을 가르키는 것이었다><sup>3)</sup>고 말한 것으로 伝해지고 있다.

이상 過渡期에 관한 中共의 새로운 規定은 中共의 新民主主義는 아직도 부르조아革命의 任務를 수행하고 있는 中國革命의 第1段階



에 해당되며, 社會主義革命은 장래의 課題라고 생각했던 余他共產主義者들 특히 소聯에게는 큰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毛沢東이나 劉少奇 自身이 過渡期의 總路線을 선언하기 이전에는 中共政權의 수립과 더불어 社會主義革命이 시작되었다는 見解를 피력한 일이 없었다. 도리어 劉少奇는 1949年 9月 21日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第1回全體會議에서 <中國이 상당히 엄격한 社會主義에로의 一步를 밟는다는 것은 아직도 먼 將來의 일>이라는 것을 力說했고<sup>34)</sup> 毛沢東은 1950年 6月 6日 中國共產黨 第7期中央委員會 第3次會議에서의 보고에서 <빨리 서둘러서 資本主義를 絶滅시키고 社會主義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情勢에 적합하지 않다><sup>35)</sup> 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同年 6月 23日 그는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第1期全國委員會 第2次會議의 閉會辭에서 私營工業의 國有化와 農業의 社會化를 실행하는 시기는 <아직도 아주 먼 將來의 일>이라고 確言하면서 다음과 같이 強調했다.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견실하게 前進한다. 즉, <革命>戰爭의 시기가 끝나고 新民主主義的 改革을 거쳐, 장차 國家經濟事業과 文化事業이 크게 育성하고 各種의 條件이 갖추어지고 全國人民의 생각이 成熟해지고, 모두가 同意할 때에는 조용히 잘 준비하여 社會主義란 새로운 時期에 들어간다. 이 점은 꼭꼭히 말해 두는 것이 必要하다.<sup>36)</sup>

이와 같이 中共의 最高指導者들이 당시 社會主義의 建設을 <먼 將來>의 課題로 주장한 것은 統一戰線內의 非共產主義者들을 최대한으로 宥和하여 共產黨의 기반을 強化하자는 政治的 考慮에서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1953年 10月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公言을 全

的으로 무시하고, 中國은 中共政權의 成立과 더불어 이미 社會主義  
에로의 過渡期에 들어갔다고 宣布한 것은 그동안에 統一戰線內的  
非共產主義政派 또는 <民主人士>들의 地位가 無力化되고 共產黨의  
獨裁權力이 완전히 구축되었다는 條件에서 理解할 수 있다. 1953  
年부터 中共은 벌써 第1次 5個年計劃에 착수했었으므로 社會主義  
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宣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開始의 時期를 中共政權의 成立과 一致시킨에는 이데올로기上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었다.

만일 中共政權의 成立과 더불어 中國에서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  
란 의미의 新民主主義革命은 完結되고 社會主義革命이 始作되었다면,  
그 新民主主義革命은 어디서 언제 遂行되었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中共의 解明은 아직도 모호하다. 1956年 9月 15日 劉少奇는 中國  
共產黨 第8次大會에 대한 中央委員會의 政治報告에서 中國의 人民  
民主獨裁는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의 두 시기를 經過  
했다고 말하고,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이 全國적으로 승리하기 以  
전에 革命의 根拠地에서 이미 人民民主獨裁가 수립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이 獨裁는 부르조아革命의 任務를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要件대 新民主主義革命의 第1段階는 瑞金, 延安 등의 革命根拠  
地와 이른바 <解放區>에서 이미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華  
人民共和國의 成立以後에는, 人民民主獨裁는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  
로 移行하는 任務, 즉 부르조아지와 小生産者와 生産手段의 私有  
制를 社會主義的 共有制로 고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制度를  
절멸하는 任務를 지게 되었다>고 한다.<sup>37)</sup> 이러한 事後說明은 社會  
主義에로의 移行을 < 먼 將來>의 일이라고 했던 그들의 初期의 말

과는 全的으로 矛盾되는 주장이었다. 劉少奇는 3年後 이 불투명한 理論的 辯護를 補充하기 위해 中共政權成立後 數年동안 단행한 土地改革 등은 中共政權成立 以前의 <民主主義 革命段階에 남아있던 任務>를 해결한에 不過하다는 見解를 피력했다. 그리고, <그러나 社會主義에로의 移行은 실제로는 벌써 1949年에 시작되었다>고 中共政權의 成立과 社會主義의 開始는 시기적으로 一致한다는 立場을 闡發시켰다. 한편 人民民主主義의 第1段階를 社會主義建設의 段階라고 보는 見解를 배격하고, 中國은 그 經濟的, 政治的 後進性때문에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 들어서기까지는 상당히 긴 期間이 必要하다고 생각했던 소聯에 있어서는, 中共政權의 수립과 동시에 社會主義에로 移行했다는 이상의 理論은 수락할 수 없는 것이었다.

過渡期的 總路綫이란 用語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53年 10月 1日의 人民日報에서였지만, 이것이 中國共產黨內的 어디서 언제 제안 또는 채택되었는지는 아직도 명백하지 않다. 劉少奇는 이것이 決定된 것을 1952年末이라고도 하고,<sup>38)</sup> 1953年이라고도 한다.<sup>39)</sup> 한편 李富春에 의하면 이것은 1952年 黨中央委員會에서 提案되었다는 것이다.<sup>40)</sup> 一般的으로 過渡期的 規定問題는 共產主義 革命理論에서는 가장 치열한 論爭의 대상이요, 이러한 論爭이 黨內的 權力 鬭爭으로 발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中共에서도 過渡期的 總路綫問題는 黨內에서 상당한 理論的 混亂을 야기한 것 같다.<sup>41)</sup> 中共이 제시한 過渡期的 總路綫이 소聯의 이데올로기의 입장에 대하여 크게 問題가 되는 점은 人民民主主義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의 關係였다. 中共은 <中華人民共和國>의 成立과 더불어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 들어섰다는 것, 즉 社會主義의 革命과 建設이 開始되었다는 것을 宣稱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에 관해서는 一言半句 論及이

없었고, 여전히 人民民主独裁만을 내세웠다. 正統的 맑스·레닌主義에 의하면 社会主義革命과 建設은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權力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權力은 부르조아革命이 完成되고 난 以後와 社会主義革命이 完成되기 以前 사이의 中間期間에 수립되는 過渡的國家權力形態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의 宣布없는 社会主義革命과 建設의 開始는 正統的 맑스·레닌主義史上에서는 前例가 없는 일이었다.<sup>42)</sup> 이 歷史의 發展〈法則〉을 시인하느냐 않느냐는 19世紀以來로 共產主義者와 社会民主主義者를 갈라놓는 하나의 重大한 계기가 되어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中共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가 아니라 계속 人民民主独裁를 고수하면서 社会主義의 實現을 주장하고 있었다.

## 2. 对立과 妥協

1954年9月20日 中共政權은 이〈過渡期的 總路線〉에 입각하여 이른바〈社会主義型〉憲法을 公布했다. 그 前文에 同憲法은〈中華人民共和國에서부터 社会主義社會의 建設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의 過渡期〉라고 規定하고, 이 過渡期的 國家任務는〈社会主義的 工業化를 점차로 실현하고, 農業, 手工業, 資本主義的 商工業에 대한 社会主義的 改造를 점차로 完成하는 것〉이라고 明記하였다.<sup>43)</sup> 그리고 同憲法 第1條는 國家權力的 성격에 關하여〈中華人民共和國은 勞動者層이 指導하고, 勞農同盟을 기초로 한 人民民主主義國家〉라고 쓰고 있다. 이 憲法에서는 1949年의〈共同綱領〉에 明示되었던 農民, 小부르조아지, 民族부르조아지의 勞務者階級과의 政權共有의 規定은 削除되었지만,

이 階級들의 <人民民主統一戰線>의 계속적 役割은 여전히 강조되었다. 1949년 以後 中國共産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없이 勞動者階級の 指導下의 全人民의 統一戰線에 의하여 1949年 以後 社會主義에로 移行한 것을 憲法에서 再闡明했던 것이다.

이러한 憲法의 性格과 具體的 內容에 關係 劉少奇는 1954年 9月 15日 第1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1次會議에서의 <中華人民共和國 憲法草案에 關係 報告>演說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이 憲法草案이 <中國의 經驗>과 <國際的 經驗과를 結合한 것<sup>44)</sup>>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은 <中國人民의 100 餘年에 걸친 英雄的 經驗과 歷史的 經驗을 총괄한 것이요, 또한 中國近代의 憲法問題 및 憲法運動의 歷史的 經驗을 총괄한 것>이라고, 中國의 獨自的 要因을 훨씬 더 많이 강조했다. 그는 <中華人民共和國이 成立한 후, 우리나라는 이미 社會主義의 길을 걸어왔다>고 다시 밝히고, <1953年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社會主義에로의 목표에 따라 計劃的인 經濟建設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에 關係해서는 그 長文의 연설에서 전혀 言及하지 않았다.

劉少奇는, 民族부르조아지를 포함한 人民民主主義統一戰線이 社會主義建設에서는 훨씬 더 重要한 役割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人民民主統一戰線은 勞農同盟을 기초로한, 그러면서도 勞農同盟보다 더 광범한 同盟, 즉 勤勞人民과 이들에 協力할 수 있는 非勤勞人民과의 사이의 일종의 同盟>이라고 말함으로써 <非勤勞人民> 즉 小부르조아지 및 民族부르조아지가 社會主義建設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明白히 했다. 이렇게 부르조아勢力이 社會主義建設에 參與한다는 理論은 正統的 馬스-레닌主義에서는 異端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어 다음과 같은 말로써 勞農同盟을 토대로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만이 社會主義를 건설할 수 있다는 소聯의 過渡期理論의 公式을 은근히 배격했던 것이다. 즉,

社會主義를 建設하려는 이상, 이러한 同盟(人民民主主義統一戰線)은 존재할 수 없으며, 存在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劉少奇는 中國이 종래에 外國帝國主義의 압박을 받아왔다는〈特殊한 歷史助 條件때문에 勞動者階級과 民族부르조아지와의 사이에는 鬭爭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同盟關係가 일찌기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한다〉는 論題에서 民族부르조아지의 社會主義建設 參與를 옹호했다. 이것은 毛沢東의 新民主主義理論을 새로운 狀況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그는 社會主義建設의 過渡期에도 民族부르조아지는 生産의 擴大, 企業管理, 生産技術의 改善, 技能工과 技術者の 養成 또는 訓練등의 역할을 통하여 國家에 대해〈一定한 貢獻〉을 할 수 있고, 政治的으로도〈一定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음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憲法의 前文은 中共의 人民民主主義, 즉 新民主主義는 中共이〈平和的인 길을 거쳐……社會主義社會를 建設할 수 있음을 保障한다〉<sup>45)</sup>고 規定하였다. 소聯의 경험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下에서도 레닌時代의〈新經濟政策〉(네프)은 資本家 農民들에게 制限된 經濟活動의 自由를 주어 生産을 자극하고, 戰時 共產主義時代에 瓦解되었던 國家經濟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sup>46)</sup> 그러나 스탈린은 社會主義建設 時期에 있어서는 階級으로써 資本家, 富農, 商

人들을 全面的으로 말살하는 가혹한 暴力的 政策을 사용하였다.

〈社会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行〉의 길은 스탈린에 있어서는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나 原則上 배격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中共의 憲法이 平和的인 길을 거쳐 社会主義社会를 建設할 수 있다는 것을 明文化했을 때 많은 黨員들이 疑問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疑問에 대해 劉少奇는, 中共의 人民民主主義制度가 勞動者階級の 指導下에 있다는 것, 여기서는 社会主義的 国营經濟가 나날이 強化되고 있고 이것은 国民經濟 全体의 指導力으로 되었다는 것, 資本主義 經濟는 이미 支配的 地位를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勞動者階級과 民族부르조아지는 同盟關係에 있다는 것등, 資本主義國家와는 다른 政治, 經濟的 條件을 들어 中共에서의〈社会主義革命은 資本主義國家의 경우와도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점진적이오, 平和的인 社会主義的 改造의 加能性を 재확인했다.<sup>48)</sup>

그렇다고 해서 中共에서는〈이미 階級鬭爭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思考方式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일부의 資本家가 각종의 違法活動을 하고 있고, 社会主義的 改造에 저항하는 태도를 取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시인하면서〈資本主義的 搾取의 제한으로부터 資本主義的 搾取의 絶滅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복잡한 鬭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想像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말하자면 그는 資本家階級の 有毒성과 이들에 대한 階級鬭爭의 필요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三反〉, 〈五反〉의 엄격한 鬭爭을 거쳐〈많은 資本家들이 自覺을 높이고, 그들이 社会主義的 改造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願하게 되었다〉는

歪曲된 사실을 前提로 하고, 国家行政機關의 管理, 国营經濟의 指導 및 勞動者大衆의 감독이라는 万策을 통하여, <平和적인 鬪争方法으로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계속 社会主義로 가는 <平和적인 路>을 주장하였다. 맑스·레닌主義의 正統的 이데올로기의 立場을 대담하게 거부하는 이러한 中共指導層의 理論에 대해 소聯의 党理論家는 누구라고 指名은 하지 않았으나 강경한 反駁文을 공개했다. 즉, 두비나 (K. Dubina) 는 소聯共産党機關誌 《코뮤니스트》 1955年 10月号에 기고한 《社会主義革命에 관한 레닌主義理論》이라는 論文에서 소聯共産党的 立場을 다음과 같이 감정적인 語調로 재천명했던 것이다.

……人民民主主義国家들에서의 社会主義建設 經驗은, 自己나라들은 말하자면 原則에 있어서 새로우며 階級鬪争을 배재하는 어떤 特殊한 路에 의하여, 즉 資本主義의 社会主義에로의 平和적인 成長의 路에 의하여 社会主義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民族主義的 機會主義的 分子들의 지꺼리는 소리가 전혀 無根拠하다는 것을 明示해 왔다<sup>49)</sup>

全知全能한 스탈린을 公公然히 批判한 1956年 2月の 소聯共産党 第20次大会가 準備되고 있던 때, 스탈린主義的 敎條의 妥当性を 레닌의 이름을 빌려 再強調하는 이러한 論調가 어떻게 해서 党機關誌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기이한 일이다. 그것은 여하튼, 이 論文이 <民族主義的, 機會主義的 分子들의 지꺼리는 소리>라고 批判한 對象에는 毛沢東의 過渡期理論이 그 內容으로 보아 반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이러한 公박에 응수하듯이 그로부터 몇 달 후에 中共의 한 理論家는 《哲學研究》(1955年 6月 第1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勞働者階級이 權力을 장악한 나라에서는 一定한 社会的 條件下에 資本家들을 社會主義的 指針에 따라 근본적으로 改造할 수 있다는 原則을 확립하므로써 毛沢東同志는 맑스·레닌主義의 寶庫에 또 하나의 빛나는 貢獻을 했다. 이러한 理論은 맑스·레닌主義의 古典的 著作에 지금까지 한번도 나타난 일이 없으며, 世界의 어떤 나라도 이러한 經驗을 거친 일이 없다.

소聯과 東歐 人民民主主義國家에서는 資本家階級을 제거하기 위하여 亂暴하고 強制的인 沒收方法을 사용했다. 그러나 中國의 具體的 條件에서는 資本家階級의 제거라는 同一한 目標가 平和的 改造의 길을 통하여 達成될 수 있다.<sup>50)</sup>

이상과 같이 모스크바의 스탈린主義者들에 의하여〈民族主義的, 機會主義分子등〉의 妄言이라고 규탄된 社會主義에로의〈特殊한 길〉, 〈平和的인 길〉이 中共의 毛沢東主義者들에 의해서는 맑스·레닌主義의 寶庫에 대한〈빛나는 貢獻〉으로 찬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對立에 있어서 兩者 어느편에 真理가 있는가를 判別하려는 努力이란 無意味한 것이다.

中共이 中國에서 資本家들은〈說得〉과〈教育〉을 통하여 改造되고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政治權力을 独占한 共產黨의 政治포로의 地位로 전락했고, 中共이 내세우는 프롤레타리아트의〈指導〉가 소비에 트식 프롤레타리아트의〈獨裁〉와 실천상 다를바가 없었음은 앞에서 빈번히 지적한 바와 같다. 소聯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下에서만 社會主義建設이 加能하다는 命題를 普遍的 真理로 엄격히 統制하므로써〈社會主義陣營〉에 대한 政治的 支配를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中共은 中國의 특수한 條件에 부합되는 특수한 革命路線이 毛沢東에 의하여 創造的으로 발전되었고, 따라서 中國의 社會主義建設 方法은 소聯과 그 支配下에 있던 東

歐 人民民主主義諸國의 경험과는 相違하다고 강조하므로써 <社會主義陣營> 內에서 中共의 이데올로기의 - 政治的 主体性を 再闡明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中國과는 社會 - 政治條件이 유사하다고 보는 아시아 .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諸地域 <人民> 들에 대해 그곳에서는 소聯이 아니라 中共의 社會主義革命的 모델이 妥當하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었다.

兩者間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對抗性은 물론 公開的 政治論爭으로 폭발하지는 않았다. 毛沢東을 비롯한 中國共產黨의 지도자들은 自己들의 独自の 社會主義建設을 내세우면서 내세울수록 소聯의 <先進的 經驗>을 배우라고 역설했다. 韓國動亂을 계기로 西方側이 中共을 經濟的으로 더욱 封鎖하자 毛沢東은 <向소 - 辺倒> 政策을 公言하고, 소聯의 援助에 의하여 産業化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곤경에 빠졌다. 中共은 1950年 3月 中, 社会主义同盟條約을 체결했을 때 소聯으로부터 3億弗의 借款供与와 50個 項目의 經濟建設援助를 약속받았고, 1953年부터 시작된 第1次 5個年計劃은 소聯과의 協의하에, 소聯의 援助를 基礎로 立案 着手되었던 것이다. 소聯으로부터의 經濟援助는 新生中共政權으로서 是 死活의 問題요, 社會主義建設의 成敗를 左右하는 關鍵이었다. 그러므로 中共은 스탈린 - 말렌코프 - 흐루시초프時代 (前半期) 의 3代에 걸쳐 소聯의 援助에 크게 依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條件에서 中共은 自體의 이데올로기의 主体性을 은밀히 표시하면서도 소聯과 적극적인 友好親善政策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3年 9月 15日 李富春은 中央人民政府委員會 第 26 次會議에서 <우리나라의 經濟建設에 小聯이 제공했고, 또 제공하

려하고 있는 援助는 社會主義國家의 위대한 國際主義의 精神을 表示하고 있다<sup>51)</sup>고 찬양했고. 다시 10日後에는 소聯의 理論과 經驗을 배우는 것이 中共의 社會主義建設에서 가장 重要한 조건이라고 까지 말하였다.

經濟活動에 대한 黨의 指導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第1次 5個年建設計劃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中國共產黨員은 社會主義建設에 관한 레닌, 스탈린의 理論을 學習하고 있으며, 소聯共產黨을 배우고, 소聯의 經濟活動에 대한 指導方法 및 科學的인 기초 위에 세워진 先進的 勞動方法을 學習하고 있다. 소聯을 진지하게 學習하는 것은 의심할 余地없이 우리들의 偉大한 祖國이 새로운 生活을 建設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重要한 條件의 하나이다.

中共이 한편으로는 獨自的 社會主義建設 方式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과 같이 소聯의 社會主義建設의 理論과 經驗을 배워야 한다고 부단히 禮讚한 것은 당시의 中共의 苦惱를 表示한 것이었다. 北京政權은 美國과의 對決에 있어서 <소聯을 선두로한 社會主義陣營<sup>52)</sup>>의 支援를 받아야 했고, 소聯의 經濟援助는 落後한 中國의 産業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不可欠의 요소였다. 소聯으로부터 최대의 政治-經濟的 援助를 필요로 했던 이러한 狀況에서는 中共은 自體의 이데올로기의 主体性을 고수하는 努力이 소聯과의 政治的 對立으로 발전하는 것을 극력 억제했어야 했을 것이다. 소聯을 극구 찬양하고, 소聯이 이끄는 <社會主義陣營>의 結束과 強化속에서, 自體의 獨立性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發展하고 싶은 것이 中共의 立場이었다. 한편 소聯으로서도 潛在的인 巨國인 中共을 스스로가 支配하는 <社會主義陣營>의 一員으로 強化하는 것

이 <帝臣主義陣營>과의 對決에서 重要하다고 생각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聯은 中共이 独自の인 社會主義路線을 주장하는 나머지 소聯의 이데올로기의 統制를 벗어나 世界 共產主義運動에 龜裂을 가져올 可能性에 대해서는 크게 警戒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中共과의 이데올로기상의 間격이 확대하여, 이것이 政治的 對立으로 轉化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自制하였다. 그리하여 人民民主主義를 둘러싼 兩者間의 이데올로기의 緊張은 公開的 理論鬭爭 - 政治鬭爭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中共이 <過渡期의 總路線>을 선포한 것은 스탈린이 死亡한지 7~8個月後의 일이었다. 그리고 스탈린의 死亡으로 中共·소聯間의 이데올로기의 間격을 좁힐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 말렌코프, 후루시초프等 스탈린의 後繼者들은 各各 政治的 立場은 달랐지만, 스탈린이 死亡한 직후부터 그의 無誤謬의 權威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으며, 그의 暴政의 下手人이었던 베리아를 체포하여 처단하는데 상호계류했다. 크레믈린內의 新指導者들은 集團指導體制를 형성하고 各派의 權力均衡狀態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배후에서는 党内 權力鬭爭이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指導體系內의 不安定때문에 中共에 대한 이데올로기統制에는 힘이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와는 反對로 中共에 있어서의 毛沢東의 權威와 位置는 往年의 소聯에 있어서의 스탈린의 그것과 유사했다. 中共은 毛沢東의 支配下에 對內的으로 安定되어 있었뿐만 아니라, 毛沢東思想은 中共의 國家이데올로기로 승격되어 絶對的인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 뒤에 中共은 韓國戰爭에 참가하여 막대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國際 共產主義勢力圈에서 그 政治的 地位를 한층 높혔던 것이다. 더우기 스탈린의 權威가 그의 死後 소聯에서 점점 格下되고 있던 條件에서 그가 定立했던 社會主義建設의 理論을 中共에다 강요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미 스탈린이 없는 共產圈內에서 革命的 經歷으로 보나 理論的 權威로 보나 毛沢東에 挑戰할 수 있는 者は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사태에서 소聯의 新支配層은 毛沢東에 대하여 적어도 表面으로는 前例없는 敬意를 表하므로써 <社會主義陣營>을 위하여 中共의 存在를 크게 宣傳하고 그 威信을 利用하려했던 것이다.

社會主義에로의 移行理論을 둘러싸고 일어난 中共과 소聯間의 이데올로기의 緊張을 決定的으로 完화된 획기적 事件은 1956年 2月에 열린 소聯 共產黨 第 20 次大會였다. 黨의 頂上에 오른 후루시초프는 그의 報告演說에서 스탈린에 대한 <個人崇拜>의 問題와 <各樣한 나라들의 社會主義에로의 移行型態>에 관한 問題를 제기하고 이것을 黨內토론에 부쳐 스탈린時代에 定式化되었던 맑스·레닌主義의 正統理論을 摺否하므로써 全世界를 놀라게 했던 것이다. 第 20 次 黨大會에서는 지금까지 絶對真理로 신봉되어 왔던 스탈린의 理論的 命題 및 實踐의 歪曲과 誤謬가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스탈린에 대한 個人崇拜와 연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個人崇拜의 作風下에서 스탈린이 난폭하게 破壞한 <社會主義的 法秩序>와 침해한 <소비에트市民의 民主的權利>가 거론되고, 이와 관련된 허다한 事件들이 다시 秘密演說에서 폭로되어 결국 스탈린은 公的으로 매장된 것이다. 그리하여, 스탈린의 權威를 빌려 毛沢東의 이데올로기

的 主体性を 억제할 수 있는 可能性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후루시초프는 또한 모든 나라는 그 特殊性으로 인하여 社会主義에로의 移行의 形態는 각각 다를 수 있고, 社会主義를 實現하는 方法도 多様하다는 것을 레닌의 權威에 의거하여 積極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관해 후루시초프時代에 새로 편찬된 《소聯共産党史》(1959)는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세계의 勞動運動과 共産主義運動의 경험, 소聯과 人民民主主義諸國의 경험을 총괄하여 소聯共産黨 第20次大会는 나라가 틀림에 따라 社会主義에로 移行해가는 形態도 各樣하며, 社会主義革命이 平和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는 레닌의 命題를 發展시키고 深化시켰다. ……레닌은 革命의 平和的 發展의 可能性을 극히 드문 例外로써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의 狀況에서는 이러한 發展의 可能性은 擴大하고 있다.<sup>53)</sup>

그리하여 社会主義로 가는 中共의 <平和的인 길>과 中共의 특유한 人民民主獨裁의 形態는 완전히 妥當한 것으로 소聯에 의하여 公認된 셈이다. 후루시초프는 平和的인 方法으로 근본적인 政治的-經濟的 改造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나머지, 中共이 주장하는 한계를 넘어 프롤레타리아트가 資本主義國家에서 議會機關을 장악함으로써 社会主義로 移行하는 平和的인 길의 可能性까지를 인정해 버렸다. 資本家階級の 支配道具인 議會主義的 政治制度를 분쇄하는 것을 레닌은 社会主義革命의 첫 課題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후루시초프는 勞動者階級이 <大多數의 國民의 支持에 의거하여…反動的·反人民的 勢力을 敗北시키고, 国会內에서 안정된 多數를 획득하여 国会를 부르조아階級の 階級利益에 봉사하는 機關으로부터 人民의 意思를 代表하는 참된 道具, 즉 勞動人民에 봉사하는 道具

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때 勞働者階級の 指導下에 國民의 大多數( 勤勞農民, 인테젠차 및 모든 愛國勢力)가 <統一> 되고, 다시 勞働者階級の 先頭에는 그의 前衛部隊인 共產黨이 서야 한다는 條件을 물론 침부했다. 그리고 부르조아지의 統治機關인 議會를 利用하여 社會主義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자기의 주장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부인하고 議會主義를 고수하는 소위 <改良主義者>의 見解와 혼동시키지 않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必要性을 再確認했던 것이다. 즉,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具體적인 形態는 多様하지만, 社會主義建設이 성공하는 불가결의 條件은, 共產黨을 선두로한 勞働階級の 政治的 支配,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이다>라고.

이와 같이, 共產黨은 資本主義國家에서 勞働者階級の 指導下에 國民의 大多數를 統一하여 議會制度를 利用하므로써 社會主義를 실현할 수 있다는 후루시초프의 命題를 모스크바가 <맑스·레닌主義의 理論을 創造적으로 발전시킨 뚜렷한 模範>이라고까지 찬양하는 상황에서는, 中共이 勞働者階級の 指導下의 人民民主主義制度에서 人民들의 統一戰線에 입각하여 平和적으로 社會主義를 建設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모스크바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모스크바와 北京間의 이데올로기의 間隔은 좁아졌

고, 모스크바는 사회主義로 가는 各國의 多様な 道와 特殊性의 原則을 全党的으로 公認하므로써, 비록 中共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條件은 내세우고 있지 않았지만, 獨自의 方法으로 社會主義를 建設할 수 있는 權利와, 따라서 <社會主義陣營> 內에서의 中共의 이데올로기의 自治權을 용인한 셈이다. 이것은 中共에 대한 소聯의 實기적 양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聯의 양보에 대하여 中共도 표면상 妥協的 태도로 응하는 듯이 보였다. 소聯共産黨 第 20 次大會가 끝난지 한 달 후에, 즉

1956年4月5日 人民日報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歷史的 經驗에 關하여>라는 社説을 게재하고, 여기서 <中國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勞動黨階級에 의하여 指導되는 人民民主獨裁이다.><sup>54)</sup>

라고 規定하므로써 人民民主主義에 關한 소聯의 後期理論을 뒤늦게나마 수락했다. 이 社説은 中國共産黨 中央委員會 政治局 擴大會議에서의 토론을 기초로 써어졌던 것이므로, 中國共産黨의 最高指導機關이 이제 人民民主獨裁 =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것을 公認한 때를림이 없었다. 個別的 理論家가 아니라 黨의 最高指導機關이 討論을 통하여 人民民主獨裁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 同一한 概念으로 規定한 것은 中共에서는 最初의 일이며, 따라서 이것은 重大한 政治的 意義를 內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共의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對策에 의하여 人民民主主義의 해석을 둘러싼 中共-蘇聯間의 긴장은 해소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中共이 人民民主獨裁=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강조한 의도는 그 후에 밝혀진 바로는 蘇聯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妥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挑戰에 있었던 것이다.<sup>55)</sup> 中共은 흐루시초프가 蘇聯 共產黨 第 20 次大會에서 강조한 〈個人崇拜反對〉, 議會를 통한 社會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行〉, 蘇聯과 美國( 및 西方諸國 )과의 〈平和共存〉 및 〈平和競爭〉政策을 흐루시초프一派의 〈修正主義〉路線으로 단정하고 처음에는 蘇聯에 대해 暗示的인 이데올로기의 攻勢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兩黨間의 公開的인 이데올로기對立으로 惡化되어 歷史的인 中·蘇紛爭으로 발전한 것은 周知하는 사실이다. 1963年 9月 6日 《人民日報》와 《紅旗》는 〈蘇聯 共產黨 指導部와 우리들의 意見의 由來와 發展〉이란 論文을 발표하여 中·蘇紛爭의 要因과 경위를 全世界에 공개했던 것이다.

이에 의하면 〈蘇聯 共產黨 第 20 次大會는 蘇聯 共產黨 指導部가 修正主義의 길을 걸기 시작한 第一步<sup>56)</sup>요, 中共은 〈蘇聯 共產黨 第 20 次大會의 그릇된 論點을 완곡히 그러나 또한 아주 두렷이 批判〉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歷史的 經驗》을 발표했고, 그후 즉, 同年 12月 29日에는 《다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歷史的 經驗에 관하여》라는 論文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中共의 社會主義建設의 獨自的인 길에 이데올로기上的의 自治權을 상인했던 흐루시초프의 黨大會에서의 報告와 大會의 諸決

定이 거꾸로 中共을 자극하여 兩者間에 새로운 一大 이데올로기論  
爭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은 歷史의 회통이 아닐 수 없었다.  
호루시초프의 <修正主義>路線에 대해 中共이 격분한 배후에는 호  
루시초프가 中共의 최악의 仇敵으로 규탄하던 <美帝國主義者들>과  
緊張緩和를 추진하고 있던데 대한 恐怖가 숨어 있었다.

蘇聯共產黨 第 20 次大會가 끝난지 半年이나 지나, 즉 1956年 9月  
15日부터 中國共產黨 第 8 次大會가 열렸다. 劉少奇는 大會에 대한  
中央委員會의 政治報告를 통해 中共의 人民民主獨裁가 프롤레타리아  
트의 獨裁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中華人民共和國이 成立된 후 勞動者階級이……全國的 支配權力을  
획득하고, … 中國共產黨이 全國의 權力을 지도하는 政黨이 되므로  
로써, 人民民主獨裁는 實質的으로 이미 프롤레타리아트 獨裁의 한  
形態가 되었다. 이로써 부르조아民主主義의 性質을 띤 우리나라  
의 革命은, 平和的인 길을 거쳐 직접 프롤레타리아社會主義의 성  
질을 띤 革命으로 轉化되었다. 中華人民共和國의 成立은 우리나라  
의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 段階의 基本的 終了와 프롤레타리아社  
會主義革命의 開始를 가르키고 있으며,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에  
로의 우리나라의 過渡期의 開始를 가르키고 있다. 57)

北京政權이 수립되면서부터 人民民主獨裁의 부르조아民主主義 革命  
段階은 끝나고 社會主義革命의 時期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1954年 <過渡期의 總路線>을 선포했을 때의 立場을 再確認한데  
불외하다. 그러나 이상의 주장에서 劉少奇는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下에 있던 中共政權이 사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政權이었음을 公言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中共의 人民民主獨裁政權  
을 共產黨의 一黨獨裁政權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 階級の 聯合獨裁

政權, 즉 진정한 聯立政權인 것처럼 위장해온 中共의 宣傳이 하나의 政治戰術이었음을 스스로 公表했다. 蘇聯은 흐루시초프의 <修正主義>에 대한 中共의 潜在的 반발에도 불구하고, 中共이 人民主義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蘇聯의 觀點에 접근해오는데 滿足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中國共產黨 第8次大會에서 蘇聯共產黨을 대표하여 祝賀演說에 나선 미끄얌은 毛澤東의 社會主義革命方式이 맑스·레닌主義의 原則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에 대해 <위대한 貢獻>을 했다고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

……中國共產黨과 그의 中央委員會, 탁월한 맑스·레닌主義者 毛澤東同志는 맑스·레닌主義에 대해 위대한 貢獻을 했다. 中國의 共產黨員은 맑스·레닌主義理論의 基本原則에서 출발하여 中國의 具體的 條件下에서 創意的으로 운영하고, 目的의 실정에 가장 알맞는 社會主義建設의 새로운 形式과 方法을 훌륭하게 찾아냈다. 그 중의 어떤 形式이나 方法은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된 일이 없는 것이지만 中國의 大인 위에서 훌륭히 열매를 맺었다. 58) (傍點은 註文)

그러나 그는 中國의 特殊性이라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며 그것도 이미 레닌이 간과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뜻을 박았다. 그리고 蘇聯共產黨은 <가장 일찌기 偉대한 社會主義國家를 창건하였기 때문에…… 큰 곤란과 희생을 부릅쓰고 터득한 科學的 知識과 技術經驗을 中國人民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고 蘇聯의 先進성과 援助의 혜택을 암시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兩者間의 미묘한 이데올로기의 妥協努力은 皮相的으로는 상호간의 差異點을 해소시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中共이 강조하는 <中國의 特殊性>의 정치적 의미가 필

경은 蘇聯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데 있었다고 뒤에 와서 蘇聯의 指導的 理論家를 통하여 신랄하게 공격했다. 蘇聯科學아카데미 副 總裁 루뮌안제브( A.M.Rumyantsev )는 自己의 論文에서 1938年 以來로<sup>59)</sup> 〈毛沢東은 《中國의 特殊性》을 방패로 내세움으로써 콰란테른의 統制에 방벽을 쌓고, 世界 共產主義運動의 指導的 幹部의 비판을 避하려고 했다〉고 쓰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毛派가 1948~9年의 大陸征服 直後에는 〈中國화된 馬스主義〉의 승리 云云하고 있었는데, 이 말의 배후에는 〈民族主義的, 大漢民族的 傾向〉이 숨어 있었다 리방한다. 한편 毛派가 中國의 경험을 모든 植民地 및 從屬諸國을 위한 範例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수에 맞지 않게 바라게 되자, 〈毛沢東主義는 《中國화된 馬스主義》로부터 《植民地 및 半植民地世界를 위한 馬스主義》로 轉化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轉化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中國의 hegemonia를 憧憬하기 위한 定礎作業으로써 이바지했다〉고 毛沢東의 政治的 야심을 공박했다.

그리하여 그는 中共이 中國型 人民民主主義의 古典으로 떠받드는 毛沢東의 《新民主主義論》에 나타난 理論과 그의 〈中國的〉인 實踐鬪爭도 그 作風에 있어서는 〈한정된 農民의 이데올로기(理論家)의 樣式과 大漢民族的 排外主義의 方法 以外의 다른 것이 아니며 이 樣式은 蜂起, 征服, 支配에 관한 長舌과, 동시에 數千萬의 《나사뭇》의 맹종을 必須條件으로 하고 首領의 神格化를 수반하는 거꾸로 선 小부르조아지의 樣式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 과장도 없이 말할 수 있다.〉고 가지없는 혹평을 내렸다. 이렇게

毛沢東主義의 저변에는 <小부르조아의 心理>와 <漢民族的 排外主義>가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승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루뮈안제브는 이 勝利를 毛沢東思想에 <反하여> 거둔 <中國人民의 勝利>에다 돌리는 한편 <西方에 있어서의 히틀러·파시즘의 괴멸과, 中國領內에 있어서의 日本帝國主義의 분쇄, 그의 돌격력이었던 關東軍의 兵器를 中國의 革命的 大衆에 인도한 소비에트人民의 兄弟的 援助, 蘇聯의 軍事的 支援> 등의 요인을 過少評価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하여 中共의 人民民主主義革命에서의 蘇聯의 役割을 毛沢東의 權威를 애장하려는 새로운 政治攻勢 속에서 再強調된 것이다.

이러한 극한적인 毛沢東非難은 人民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中·蘇의 間隔 사이에 가설되었던 타협의 橋梁을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태워 버리고 말았다.

## 註

註5) : 大久保 泰, 《中国共産党史》下卷, 1971年, P. 1010~1017 에 수록된 부분에서 引用.

註6) : 소聯의 指導者가 中共의 <人民民主独裁>를 公認하는 말을 한 것은 1956年 늦 가을의 일이었다. 波蘭과 헝가리에서 反소 抗爭이 일어났을 때, 후루시초프가 中共의 支援을 얻기 위하여 1956年 11月 26日 모스크바의 中共大使館에서 中共이 <人民民主独裁>形態의 國家를 수립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認定했다고 한다. 이때까지는 中共政權의 性格을 <人民民主義> 또는 <人民의 支配>라고 說明하므로써, 中共의 國家形態가 소聯衛星國인 東歐의 人民民主主義國家들의 그것과 類似하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었다. Arthur A. Cohen,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1964, P. 100

註7) : <스타린全集>, 第八卷, 大月書店版, pp. 405~5.

註8) : 트로츠키의 中國革命觀에 關해서는 <中國革命에서의 階級關係> (1927年 4月), <中國革命과 스탈린同志의 提議 (1927年 5月) 등의 論文 參照 <트로츠키一選集> 第六卷, 現代思潮社版에 收錄). 그리고 簡명한 說明은 Benjamin I.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1951의 여러 곳에서 論及되고 있다.

- 註 9) : For a Lasting Peace, for a Peoples Democracy.  
September 29, 1950, 社説
- 註 10) : ジュコフ < 第二次世界大戦後の民族的 植民地人民に関する諸問題 >  
< 新時代 > 第六号 p 2
- 註 11) : Benjamin Schwartz, Communism in China: Ideology in Flux, 1968, pp. 56~57.
- 註 12) : < 劉少奇主要著作集 >, 第二卷, 東京三一書房版 (1959年), p 42
- 註 13) : Anna Louise Strong, "The Thought of Mao Tse-tung",  
Amerasia, XI, No. 6. June, 1947.
- 註 14) : Stuart Schram, Mao Tse-tung, 1967, p. 254
- 註 15) : < 文匯報 >, (上海), 1949年 11月 2日, A Doak Barnetted,  
Communist Strategy in Asia, 1963, p. 17에서 引用.
- 註 16) : 이것은 예·쭈코브 (Ye Zhukov)가 1951年 11월에 열렸던  
소련 과학 아카데미 東方研究所의 科學者會議에 제출한 論文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이 있는 후 亞細亞의 共產主義革命의  
指針으로써 劉少奇의 이론바 < 毛沢東의 길 > 이란 概念은  
中共의 刊行物에서는 無言에 삭제되었던 것이다. Arthur  
A. Cohen,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1964, p. 91

註17) : 〈毛沢東戰後著作集〉, 前掲版, pp. 67~68

註18) : Ibid, p 68

非프롤레타리아의 小부르조아諸階級을 〈教育〉하고 〈改造〉할 수 있다는 것은 毛沢東의 獨創은 아니다. 스탈린은 1924年 4月 그의 〈레닌主義의 基礎〉에서 레닌의 文言을 引用하면서 〈社會主義的 生産의 組織을 保障하는 方向에서, 小부르조아諸階級을 再教育하고 改造하는 可能性〉을 내세웠다. 毛沢東은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아닌 〈人民民主獨裁〉에서도 可能하다 주장한 것과는 달리,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下에서만 可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J. V Stalin, The Foundations of Leninism, 1965 Peking p. 44

註19) : J. Stalin, Fragen des Leninismus, 1955, Berlin; S. 313

註20) : 스탈린은 1928年 10月 19日 〈全聯邦共産黨(볼세비끼)內의 右傾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社會主義에 로의 移行期에는 : 첫째로 프롤레타리아트와 資本主義的 分子들 間에는 生死를 건 〈最後의 決戰〉이 전개 된다는것. 둘째로는 이 시기에는 〈資本主義分子들은 〈自己들의 生存의 마지막 시간 이 닥쳐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社會主義에 더욱 對항하며, 歷史의 舞臺에서 自死的으로 물려가려하지 않고 〈自身의 生存을 高수하기 爲하여 모든 手段을 다 사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階級鬭爭은 尖銳化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Ibid., SS. 316~17.

註21) : 〈劉少奇主要著作集〉, 第三卷, 前掲版, p. 12.



註 22) : 그의 代表的인 例로써 中共의 經濟學者 沈志遠은 그의 <<新經濟學大綱>>(1950年)에서 <革命的 귀추에 關係 말한다면, 中國과 東歐에 있어서의 新民主主義의 勝利는 各己 平和的으로 社會主義에로 轉化하는 길을 연다. 新民主主義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社會主義에로의 길로 移行한다. 이것은 壓迫된 動勞大衆이 社會主義에로 向하는 아주 새로운 方式이며, 러시아의 10月 革命的 方式과도 다른 것이다>(日訳<<新民主主義經濟論>>, 青木文庫, p, 21). 이러한 말은 人民民主主義에 關係한 스탈린 당시의 蘇聯의 解釋을 公公연히 무시했 을뿐만 아니라, 東歐의 新民主主義도 中共式 新民主主義와 同一하게 발전하는 것으로 說明하므로써, 中共의 發展方式이 마치 東歐의 發展의 모델인 것 같이 묘사 했다.

註 23) : 1956年 4月 5日附 <<人民日報>>社說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歷史的 經驗에 關係하여>>에서 中共은 처음으로 中共의 人民民主獨裁를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와 同一視하였다. 이 에 대해서는 後述하기로 한다.

註 24) : 毛沢東은 <우려들은 反動派와 反階級の 反動行爲에 對해서 는 결단코 仁政을 배출지 않는다>고 하는 反面, <人民의 内部에서 만은 仁政을 배른다>고 言約했었다. 毛沢東戰後著 作集, 前掲版, p. 67.

註 25) : 大久保 泰, op. cit., pp. 1010~1017 에 收錄된 것에서 引用.

註 26) : 共産黨이 非共産主義政黨들과의 統一戰線을 형성할 때 그

세력이 아직도 취약한 단계에서는 統一戰線內의 非共產主義者들의 不安感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라는 用語를 사용한다. 그러나 共産黨의 權力이 強化되어 一黨獨裁가 완전히 실현되고 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를 공공연히 宣言한다. 蘇聯에서는 理論上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는 人民民主主義의 第1段階에 조응하는 政治權力의 성격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人民民主主義의 第2段階에 조응하는 政治權力의 성격으로 규정했다. 부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任務를 지니는 人民民主主義 第1段階革命이 社會主義革命인 人民民主主義의 第2段階革命으로 成長轉化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의 指導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로 轉化한다는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Academie des Sciences de L.U.S.S.R., Institut d' Economie, Manuel d' Economie Politique, pp.626~31

그러나 이때의 〈指導〉가 〈獨裁〉와 그 內容에 있어서 다른 것이라는 點을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는 〈勞働者階級에 의한 社會의 指導이다〉라는 말에서 明示하고 있다 (Ibid., p.349).

註 27) : 이 敵對階級의 소탕을 목적으로 한 〈三大運動〉은 극히 無慈悲한 暴力的 抹殺運動이었다. 土地改革에서 惡質地主로써 被殺된 數만도 80 萬名에 이른다고 하며, 一般地主로 公民權을 박탈 당했다고, 한편 反革命分子로 적발되어 소탕 당한 사람의 數는 1952 年末까지의 3 年 동안에 2 百萬名以上이라고 한다. (大久保泰, op. cit., pp.343~44). 一說에는 이 운동에서 1 千 1 百萬戶의 地主와 富農이 무참한 숙청을 당하여 그중 約 2 千萬名이 処刑, 監禁, 또는 追放되었다고 한다. 鄭竹園《中國共産黨의 十年》, 1959, p.191.

註 28) : 大久保泰, op.cit., p.344.

註 29) : 周鯨文 《共產政權下の 中国》(上), 思想文庫(金俊樺訳), p.182. 中共의 反動階級을 숙청하기 위한 〈三大運動〉과 人民의 改造를 위한 〈三反五反運動〉 및 〈思想改造運動〉의 樣相은 그의 目擊者인 周鯨文에 의하여 이 冊에서 生々하게 기록되어 있다.

註 30) : 胡喬木, 《中国共産党の三十年》, 日訳(国民文庫) p.83, 이 冊은 1951年以後 오랫동안 中共의 官用小党史로써 公認되어 왔음으로, 당시의 中共最高指導者들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했던 것이다.

註 31) : 《中華人民共和國은 어떻게 工業建設을 發展시키고 있는가》라는 李富春의 論文은 淸민포름機關紙에 실리기 위해 써어졌다는 点에서 國際的 含蓄性을 지니는 것이었다. 毛沢東 他著 《社会主義への移行》, 国民文庫, pp.100~108.

註 32) : 毛沢東 他著, 《社会主義への移行》, 国民文庫, pp.115~16.

註 33) : 中西 功, 《中国革命と毛沢東思想》, 膏木書店, p.349.

註 34) : 《劉少奇主要著作集》, 前掲版, 第三卷, pp.11~12.

註 35) : 毛沢東 他著, 《社会主義への移行》, P.39.

註 36) : 《毛沢東戦後著作集》, 前掲版, p.94.

註 37) : 《劉少奇主要著作集》, 前掲版, 第四卷, p.69.

註 38) : 그는 《中國에 있어서의 맑스·레닌主義의 勝利》(1959年 9月 14日)란 論說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1952年末, 國民經濟의 부흥 및 封建的 殘재를 일소하는 任務가 일단 完成했을때, 毛沢東同志를 先頭로 한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는 過渡期의 基本方針, 즉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同時에 병행해서 行하는 基本方針을 제시하고, 全國的 規模에서 農業, 手工業 및 基本主義商工業에 대한 社會主義改造를 점차로 실현하고, 나라의 社會主義工業化의 任務를 점차로 실현하는 任務를 規定했다.〉 Ibid., p.198.

註 39) : 1954年 2월에 열린 中國共產黨 第7期中央委員會 第4次全體會議(4中全會)에서 한 劉少奇報告에 의하면 〈1953년부터 計劃的 經濟建設의 時期에 들어가 第1次 5個年計劃이 실시되었다. 이 때 中央政治局은 毛沢東同志의 제의에 따라 黨의 過渡期의 總路線을 決定했는데 이것은 必要하고 時宜에 맞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大久保 泰 op. cit., pp.681~82에 収録된 〈劉少奇報告〉에서 引用. 한편 大久保의 著書에는 〈過渡期의 總路線〉은 1953年 10月の 黨中央政治局會議에서 提起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要旨을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 있다. 〈全國人民의 一致된 努力에 의하여, 第1次 5個年計劃의 基本的 任務 實現을 위하여 투쟁하며 擘 長期에 걸쳐 國家의 社會主義工業化를 점차적으로 前進시키고, 農業, 工業, 手工業에 대한 國家의 힘에 의한 社會主義的 改造를 점차로 실현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Ibid., p.697.

註 40) : 中共의 第1次 5個年計劃의 內容은 1955年 7月 5~6日 李富春이 第1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2次會議에서 한 〈國

民經濟發展 第1次 5個年計劃草案報告〉에서 비로소公表되었다. 이 〈報告〉에서 〈그는 中華人民共和國의 創建은 中國革命의 第1段階의 完成과 第2段階의 開始를 가르키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毛沢東同志를 선두로 하는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는…… 1952年 黨의 過渡期의 總路線을 제기했고〉, 이 總路線은 〈1954年 第1期人民代表大會 第1次會議에서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Robert R. Bowie and K. Fairbank(ed), Communist China 1955~1959, Policy Documents with Analysis, 1962, p.45.

註41) : 당시 中共의 黨理論家 王惠德, 季雲, 劉光弟등이 中國革命의 段階規定에 關해 各各 異論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關해서는 日本慶応大學發行 《法學研究》(39卷, 5月號)에 게재된 平松茂雄의 論文, 〈中共의 《人民民主主義論》〉(二), 第4章, 第二節에서 간명하게 例證되고 있다.

註42) : 이 公式의 古典的 論拠는 맑스의 有名한 《고타綱領批判》(1875年)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그는 〈資本主義社會와 共產主義社會와의 사이에는 前者로부터 後者에로의 革命的 轉化의 시기가 있다. 이 時期에 照応하여 또한 政治上의 過渡期가 있다. 이 過渡期의 國家는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的 獨裁뿐인것 밖에는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マルクス=エンゲルス選集》大月書店版, 第15卷, p.254) 그후 共產主義者들은, 이 過渡期가 프롤레타리아革命(부르조아國家權力의 타도)에서 시작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權力을 수립하고 이것을 통해 社會主義-共產主義社會의 第1段階-의 建設을 完了하는데서 끝나는 것으로 묘사해 왔다.

註 43) : 大久保 泰, op.cit., 에 수록된 〈中華人民共和國憲法〉에서 引用.

註 44) : 《劉少奇主要著作集》第三卷, 前掲版, p. 121.

註 45) : 大久保, Ibid. 에 수록되어 있는 〈中華人民共和國 憲法〉에서 引用.

註 46) : 新經濟政策은 1921年 蘇聯共產黨 第10次大會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의하여 소비에트當局은 農民들에 대한 戰時共產主義時代의 食糧割當徵稅制를 폐지하고 食糧稅制를 도입했다. 그 결과 農民들은 餘剩食糧의 일부를 國家에 바치고, 나머지는 市場에서 自由販賣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이러한 農民에 대한 緩和政策은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同盟〉을 強化하여 數百萬의 農民을 社會主義建設에 끌어들이자는 方法이었다. 그리고 食糧稅의 실시 결과로 商業의 自由, 私的 小企業의 復活, 富農의 成長이 部分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레닌에 의하면 戰術的〈退却〉이오, 資本主義의 要塞에 대한 〈長期政略〉의 수단이었다. 《蘇聯共產黨史》는 이 시기의 〈商業의 自由〉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必死의 투쟁을 의미한다〉고 그 政治的 意義를 규정하고 있다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Moscow, 1960, pp. 351~54 參照) 그런데 中共은 〈適渡期의 總路綫〉을 선언한 후 蘇聯의 新經濟政策을 學習할 것을 특히 장려하고 있었다.

註 47) : 1926年 스탈린은 그의 論文 《레닌主義의 諸問題》에서 〈社會主義建設의 시기에는, 獨裁의 平和的인, 組織的인, 文化的인

活動과 革命的인 過法性 등이 특히 눈에 띄운다)는 것을 인정  
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특히 강조한 것이 아  
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建設의 시기에는 獨裁의 強  
力的 側面이 없어졌다든가, 없어져도 좋든가 하는 것으로  
는 決코 되지 않는다>고 경계하는 한편, <抑壓의 諸機關  
軍隊, 그리고 그밖의 諸組織은 지금이 建設의 시기에도 國  
內戰의 시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必要하다>고 강력하게  
단정했다. Stalin, Fragen des Leninismus, Berlin,  
1955, S.160

스탈린은 1928年 10月 부하린派가 부르조아지는 社會主義  
에로 階級鬭爭없이 平和的으로 <變生>할 수 있다는 理論  
을 제창하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난하면서, 콜라끄(富農) 들  
에 대한 철저한 階級鬭爭을 強調했다. 그리고 第1次 5個  
年計劃의 農業集團化政策이 農民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  
게 되자, 스탈린은 종래의 <富農을 抑制하는 政策>을  
1930年 1月에 와서는 <階級으로써 富農을 絶滅하는 政策>  
으로 전환하여 全面的 集團化를 무자비하게 단행했다. 요  
컨데 스탈린時代에는 社會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行>이란  
사실상 右傾的 偏向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Stalin, Ibid.,  
S.313, SS.417~21.

註 48) : 《劉少奇主要著作集》, 前掲版, 第三卷 pp.130~31.

註 49) : Benjamin L.Schwartz, Communism in China : Ideology  
in Flux, 1968, p.90에서 再引用

註 50) : Arthur A. Cohen. op.cit., p.127에서 再引用

註 51) : 毛沢東他著, 《社会主義への移行》, p.97.

註 52) : 毛沢東은 스탈린死後, 즉 그의 死亡에 대한 追悼辭에서도 이것을 인정했다. (《毛沢東戰後著作集》, 前掲版, p.108) 그 후 오랫동안 中共은 蘇聯의 權威를 시인하는 이러한 表現을 사용해왔다.

註 53) :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1960, Moscow, p.666.

註 54) :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Robert Rowie and John K. Fairbank(ed), Communist China 1955~1959, p.150.

註 55) : 후르시초프의 蘇聯共産党 第20次大会에 대한 報告에 이어, 中国共産党에서 人民民主独裁=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를 聲明했을 때 많은 局外者들은 中·蘇兩党이 이데올로기의 和解에 도달한것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註 56) :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adership of the CPSU and Ourselves-Comment on the Open Lett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SU(1)\*, William E. Griffith, The Sino-Soviet Rift, 1964, p.390, 에서 引用

註 57) : 《劉少奇主要著作集》, 前掲版, 第四卷, p.13.



註 58) : 大久保 泰, op.cit., p.700 에서 引用.

註 59) : 그에 의하면 벌써 毛沢東은 1938年10月, 中国共産党 中央委 第6次総会에서 〈맑스主義의 中国化〉를 내세웠지만, 《毛沢東選集》의 中共政權樹立이후의 改訂版에서는 이 命令은 다른 말로 바뀌었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ア・エム・ルミヤンツェフ 著 《現代社会科学の諸問題》, 1970年, 東京, pp.169~71.



## 五．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과 對南戰路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五. 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과 對南戰略

### 1. 理論的 背景

1954年 以前에도 北韓의 黨文藝와 出版物에 서는 共產主義 創始者들인 「맑스·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말이 引用되었지만 人民民主主義에 관한 明確한 概念規定을 내린것은 없다.

北韓에서 人民民主主義 「이데올로기」는 韓國戰爭以後인 1954年 부터 定立되기 始作하였다.

1952年 黨中央委員會 第5次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이 行한 報告 <黨의 組織的 思想的強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黨政治學校들과 學習會들도 質的으로 낮은 水準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敎員들과 學習指導者들을 올게 배치하고 再敎養하는 사업이 매우 불충분하게 進行되고 있습니다. 많은 黨 및 國家機關 指導幹部들은 自己의 思想水準을 높이는데 관심이 적으며 自習 黨員들의 학습은 거의 통제 밖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정기 출판인 雜誌들과 新聞들의 思想的 內容이 매우 빈약합니다.<sup>60)</sup>

그는 思想理論事業에 나타난 <엄중한 결함>으로써 지금까지 「맑스·레닌」主義를 北韓의 <革命的 具體的 實踐과 결부하여 연구하는 事業을 매우 不足하게 進行해왔다>는 것, 자기 나라의 문제를 <「맑스·레닌」主義的으로 분석한 理論著書들이 아주 적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大學, 黨學校, 黨敎養體系에서는 <이러한 결함을 고치는 方向에서> 「맑스·레닌」主義를 연구하고 <兄弟 黨들의 先進的 經驗을> 연구하여야 한다는 교시를 내렸던 것이다.<sup>2)</sup>

그가 말하는 이러한 批判의 범주에는 물론 人民民主主義의 理論도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休戰後의 이른바 <平和的 建設時期>에 들어서면서 北韓에서는 그의 經濟發展段階와 부합시켜 人民民主主義 制度의 開發發展段階를 性格지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人民民主主義理論의 <창조적 발전>이라고 인정할만 한 아무런 것도 제시하지 못했고 소聯과 中共이 각각 자국의 政治的 立場에서 定式化한 相異한 概念들을 발려다 사용함에 불과했다.

勞動黨 第3次大會를 1年 앞둔 1955年 4月 金日成은 <모든 힘을 祖國의 統一獨立과 共和國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建設을 위하여 —우리 革命의 性格과 과정에 關한 提제—>를 발표하면서 戰後時期에 勞動黨이 추구하는 基本的 政治路線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8.15 解放直後에 수립된 北韓의 <人民政權>이 <反帝·反封建的 民主革命의 과정>을 완전히 수행한 후, <北半部人民들은 社會主義에로 移行하는 過渡期에 점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sup>61)</sup>고 言明했다. 그리고 그는 이 社會主義에로의 점차적 移行이 3年間的 戰爭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있을 社會主義建設의 任務에 關한 方針을 제시했던 것이다.

金日成의 이른바 <社會主義에로의 점차적 移行> 또는 <社會主義建設>이 人民民主主義와 어떠한 關係에 있는지에 關해 여기서는 第二編에서 설명한 소聯 및 中共의 人民民主主義理論과 비교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그는 1953年 8月 5日 戰後人民經濟의 復舊 發展事業의 計劃을 제창할 때 이 사업을 세계의 기본 단계로 구

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즉 첫 段階는 復旧建設의 준비단계로서 그 기간을 半年내지 年으로 잡았고, 둘째 단계는 人民經濟復旧發展 3 個年計劃을 수행하는 시기로서, 이 기간에 각 經濟部門을 戰爭前 水準에까지 회복시켜야 하며, 셋째 단계는 工業化의 기초를 축성하기 위한 5 個年計劃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현하므로써 北韓의 工業化의 第1 段階를 완성하여야겠다는 것이었다.<sup>4)</sup> 그는 스스로가 도발한 南侵戰爭에 의하여 北韓의 都市工業이 폐허가되고 農村이 황폐해진 조건을 도리어 기화로 하여 重工業優先主義의 原則에 의하여 社會主義建設을 강행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했던 것이다. 그는 그후 第三次黨大會(1956.4)에서 黨이 내세운 3 個年計劃을 <經濟發展의 總路綫> 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3 個年計劃에 예견된 戰後 人民經濟復旧 發展의 주요과업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우리 인민 경제를 단순히 원상대로 복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우리 나라의 社會主義的 工業化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부터 출발하여 重工業의 優先的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輕工業과 農業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重工業의 우선적 성장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輕工業과 農業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킨다>는 것은 하나의 修辭로써는 듣기 좋은 말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重工業建設을 위하여 勤勞大衆과 農民의 생활을 희생시킴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바로 「스탈린」의 方式대로 社會主義 工業化의 토대인 重工業의 발전을 위해 住民들의 物質生活上의 처참한 고통을 강요하면서 그

들의 勞力을 총동원했던 것이다. 3 個年計劃을 수행하는 중반기간에 열린 第三次黨大會에서는 <社會主義의 기초건설>을 위하여 1957 年부터 시작될 第1次 5 個年計劃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sup>62)</sup> 그리고 여기서도 重工業優先主義는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는 重工業을 北韓經濟에서 <가장 큰 밑천>으로 보고 이에 注力하며, 이것을 토대로 해서 輕工業과 農業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소지를 닦는 것을 社會主義的 工業化의 기초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中心課業>이라고 규정했다. <sup>63)</sup> 이와 더불어 <社會主義的改造>를 완성하여 <社會主義制度>를 전면적으로 수립하는 일은 5 個年計劃期間에 수행하여야 할 社會主義基礎建設에서의 <가장 중요한 課業>이었다고 후일에 와서 강조했다. <sup>64)</sup>

私的 商工業의 國營化, 手工業의 協同化, 農業의 集團化를 뜻하는 이 <社會主義的 改造>는 전쟁직후부터 급속도로 강행되어, 5 個年計劃의 실천이 진행도상에 있던 1958 年에 이르러 모두 거의 동시에 끝났던 것이다. 金日成은 北韓에서 4~5 年이란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社會主義的 改造가 끝난 것을 언제나 自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自願的 原則>에 의하여 人民들 사이에서 自發的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一黨獨裁의 강력한 權力의 강제에 의하여 단행된 것은 「스탈린」時代의 소聯, 또는 毛澤東支配下의 中共에서와 다를 바가 없었다. 5 個年計劃의 時期에는 社會主義的 改造, 즉 社會主義制度의 수립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 期間은 <技術的 改善의 첫段階>로 규정되었다. <sup>65)</sup>



共産圈으로부터 비록 <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의 援助가 있었다고는 해도, 뒤떨어진 北韓의 技術로써는 아무리 勞力大衆을 채찍질하고, 굶주리고 시달리는 사람들의 동요나 反抗心을 억제하기 위해 思想敎養事業을 강화해 보았지만 計劃目標을 質적으로는 물론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技術改善은 절박한 現實的 과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5 個年計劃이 끝나고 1961 年부터 시작된 7 個年計劃에서는 이미 세워진 社會主義制度에 의거하여 계속 重工業優先主義를 견지하면서 技術改善을 이룩한다는 것이 < 基本課業 >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이때 부터 < 技術革命 >이란 구호가 北韓의 천지를 휩쓸었고, 金日成은 技術革命만 달성되면 北韓의 주민들은 모두 풍족한 物質生活水準을 누리고 文明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러내기 위한 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에 의하면 技術革命은 < 人民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험하게 하면서 더 많은 物質的 富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人民들의 생활을 더욱 넉넉하고 文明하게 만드는 중요한 革命課業 >이요 < 나라를 現代工業과 발전된 農業을 가진 社會主義的 工業國家 >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었다.<sup>66)</sup>

그러나 北韓에서 < 社會主義 >를 건설한다는 그 임무가 金日成의 가혹한 全体主義的 獨裁體制下에서도 용이하게 실현될 수 없었음은 7 個年計劃이 3 年을 더 延長되어 10 個年計劃으로 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立証되었다.

1954 年부터 몇 단계의 年次的 計劃을 통하여 < 社會主義 >建設

을 촉진해온北韓의 人民民主主義政權은「이데올로기」上 당연히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해야만 했고, 또 그렇게 規定되어야 했다. 그러나 金日成은 1956年の 第3次党大會때까지 그것을 公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그는 「모스크바」와 北京의 公式를 고스란히 빌려다가 人民民主主義에 대한 定義를 새로운 用語로 定立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人民民主主義에 중요한 命題들에 관한 金日成의 觀點과 表現이 「모스크바」 또는 北京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른지를 단결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1) 人民民主主義革命의 2段階論—이미 第二編에서 거듭 論及한 바와같이, 「호루시초프」 時代に 定立된 소聯의 理論이나, 毛澤東이 그의 《新民主主義論》과 《人民民主獨裁論》에서 해명한 中共의 理論은 다같이 人民民主主義革命을 두 단계로 区分하고, 第1段階를 「부르조아」革命의 성격을 띤 <反帝國主義的 反封建的> 革命으로, 第2段階를 <社會主義> 革命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第1段階의 革命에서의 政權形態는 勞動者階級이 <指導>하는 勞動者와 農民의 <同盟>을 토대로한 統一戰線에 입각한 政權이며, 그의 주요한 任務는 土地革命을 비롯한 一般民主主義的 改革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주장한 點에서 中·소의 理論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統一戰線形成의 문제에 있어서 소聯은 都市의 小市民과 일부의 中「부르조아지」가 참가했다는 것을 부인은 안했으나 그 意義를 무시하려 한데 대해, 中共은 統一戰線에서의 民族「부르조아지」의

역할을 높이 평가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련은 이 政權의 本質을 「레닌」이 1905年의 「로시아」革命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民主主義的 獨裁」라고 규정하는데 대해, 中共은 「人民民主獨裁」라는 새로운 獨自的 개념을 만들어냈다.

소련은 中共의 人民民主主義政權을 적어도 公的으로는 「人民民主獨裁」라고 부른일도 公認한 일도 없었고, 한편 中共은 그의 政權이 「러시아」式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民主主義的 獨裁」에 속한다고 인정한 일이 없다. 共産黨治下에서 統一戰線이란 것은 잠정적 利用價值를 지니는 大衆組織에 불과하고, 이에 참가하고 있는 소위 「友黨」들도 階級的 對立이 없어질 때는 스스로 소멸될 것으로 共産主義者들은 予見해 왔다. 따라서 統一戰線의 問題는 본질상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이 人民民主統一戰線에 입각한 「人民民主獨裁」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했지만 소련이 이에 찬동하지 않았던 것은, 中共이 「이데올로기」的 獨自性을 내세워 소련의 政治的 干涉을 사전에 피하려한데 대해, 소련은 中共이 그 특수성을 강조하는 方法으로 소련의 權威를 추종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 金日成은 1946年 2月에 조직된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의 과업이 反帝·反封建的 革命의 수행에 있음은 그 당시부터 公言해왔다. 그러나 土地改革, 主要産業의 國有化, 勞動法令 등의 소위 「民主改革」을 실시한 이 「人民政權」의 성격을 「人民民主獨裁」라는 개념에

에 의하여 규정 한 것은 第3次党大会에서 비로서 있는 일이다.

여기서 그가 한 말은 이미 第一編에서 引用했지만, 說明의 편의상 再引用하기로 한다.

.....1946年 12月에 조직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거대한 역할을 하였읍니다.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는 勞動階級이 영도하는 勞農同盟에 기초하여 國內의 광범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力量을 망라하고 있는 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에 입각하고 있는 人民政權으로서 人民民主主義獨裁의 기능을 수행하였읍니다.<sup>67)</sup>

손日成은 여기서 소聯의 「프롤레타리아트와 農民의 革命的·民主主義獨裁」 대신 「人民民主獨裁」라는 毛澤東의 造語를 그대로 빌려다가 이것을 毛澤東이 「人民民主獨裁論」에서 피력된 것과 同一한 의미에서 사용했다. 이것은 共產主義者들이 인식하는 당시의 北韓의 現實이 中國의 그것과 흡사했던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 손日成의 말을 이미 앞서 引用한 바 있는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의 「共同綱領」 (1949年 9月 29日)의 第1條 즉 「中華人民共和國은...人民民主主義國家로서 勞動者階級이 지도하고 勞動同盟을 기초로 하고, 民主的 諸階級과 國內의 各民族을 結集하여 人民民主獨裁를 수행하고 帝國主義·封建主義 및 官僚資本主義에 反對하여...」云云과 비교할 때 손의 말이 이 「共同綱領」의 바로 복사판이라는 것을 누구도 식별할 수 있다. 北韓의 黨文賞들은 손日成이 「맑스·레닌」主義 보편적 원칙들을 朝鮮의 具體的 條件에다 「創造的으로 適用」해 왔다는, 공적을 부단히 찬양해 왔지만, 그와 그의 理論家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었음은 그들이 中共의 「人民民主獨裁」에 관한 이론을 創始者에는 言及도

하지 않고 슬며시 輸入해서 사용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별이 된다.

東歐와 中國의 共産黨들은 大戦後 소聯에의 예속을 벗어나기 위  
해 각각 <社會主義에로의 独自の인 길>을 내세웠다. 이것이 「스  
탈린」에 의하여 억압을 받지 않았으면, 「모스크바」와의 심각한  
「이데올로기」상의 긴장을 조성했던 사정에 관해서는 이미 第二編  
에서 고찰했다. 金日成一派는 1958年 현재까지도 <社會主義에로  
의 独自の인 길>을 못마땅이 생각하고, 이것을 帝國主義者의 잠꼬  
대에 맞장구를 치는 >소위 <現代修正主義者>들의 추악한 소행이라  
고 규탄하면서 소聯에 대한 찬양과 옹호를 되풀이했다.<sup>68)</sup> 그러면서  
도 金日成이 무엇때문에 「모스크바」가 그렇게도 기피해온 中共의  
<人民民主獨裁>란 概念에 의하여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의 성격을  
규정했는지는 아직도 확인할 수 없다. 北韓에서 第三次 黨大會가  
열린 1956年은 「모스크바」와 北京 사이에서 잠시 「이데올로기」  
의 妥協이 성립된 특수한 시기였다는 點에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가 <人民民主主義獨裁>政權이라는 金日成의 규정은 「모스크바」에  
의하여 黙認되었을 것이다.

√(2)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金日成은 第三次黨大會에서, 勞動  
黨의 <영도밑에>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에 의하여 <民主改革이  
실시된 결과 共和國 北半部에서는 人民民主主義制度가 확립되었고  
祖國統一의 기초가 될 民主基地가 창설되었으며 社會主義基礎建設을  
위한 物質的 條件이 이루어졌다>고 言明했다. 그리고 1947年 2月

49.12  
46.12  
46.12  
46.12

46.12 46.12 46.12 46.12

에 창설된 北朝鮮人民委員會는 이미 이룩된 그러한 物質的 條件위  
에서 <점차 社會主義에로 넘어가는 過渡期의 과업을 수행하기 시  
작했다><sup>69)</sup> 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의 事後 解明에 의하면  
北韓社會가 社會主義에로의 移行하는 過渡期에 점차로 들어서게 된  
것은 民主改革의 과업이 수행된 직후부터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過渡期의 政權은 「맑스·레닌」主義에 의하면 本質上 「프롤레타리  
아트」의 獨裁가 아닐 수 없었다. 뒤에 와서 過去를 再整理하면  
서 黨敎材는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가 시작된 精確한 시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社會主義 過渡期는 우리 黨의 영도 밑에 反  
帝 反封建的 民主革命이 승리하고 계속 社會主義革命에로 발전한  
결과에 시작되었다. 즉, 共和國北半部에서도 1947年初에 北朝鮮  
人民委員會의 수립으로써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가 시작되었다.<sup>70)</sup>

그리고 이 過渡期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北朝鮮人民委員會의  
性格에 관해서는 <1947年2월에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대신에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기능을 수행하는 北朝鮮人民委員會가 창설  
되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北朝鮮人民委員會는 「프롤레타리아트」  
의 獨裁政權이라는 규정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金日成은 北朝鮮人民委員會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것을  
그것이 창립된 후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다. 6.25事變前에는  
물론 1956년까지에도 그런 규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第三次  
黨大會에서의 報告演說에서도 그는 北朝鮮人民委員會가 <더욱 強化發  
展된 人民民主主義의 政權機關><sup>71)</sup>이라 고만 했지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政權이라고 말하는 것을 회피했다. 金日成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를 선언하지 않고 <社会主義>에로의 過渡期로 移行을 주장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勞動階級の 領導>라는 조건을 반드시 부쳐온 이상, 理論과 實踐사이의 큰 矛盾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北韓에 확립되었다고 하는 <勞動階級の 領導>라는 것이 실제로는 勞動党的 一党独裁라는 의미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였던 때문이다.

그러나 「모스크바」가 이미 1948년에 人民民主主義 =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라는 것을 定式化했음에도 불구하고, 金日成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를 宣稱함이 없이 社会主義에로의 移行을 공명한 점에 있어서는 中共과 마찬가지로였다. 즉, 이미 第二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中共은 1953年 10月 <過渡期的 總路線>을 발표했을 때,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에 관해서는 一言半句 언급함이 없이, <中華人民共和國>이 成立되면서 革命的 第1段階는 끝나고 社会主義로 넘어가는 過渡期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中華人民共和國>의 수립과 더불어 反帝·反封建的 民主革命을 끝내고 社会主義에로의 過渡期에 들어섰다는 毛澤東의 公式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金日成一派는 北韓에서는 北朝鮮人民委員會의 수립과 더불어 反帝·反封建的 民主革命이 완수되고, 社会主義에로의 過渡期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金日成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를 유달리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58年 봄부터였다. 中共이 1956年 4月부터 人民民主独

裁政權(中華人民共和國) =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것을 새로  
 公言했다는 것, 이와는 달리 金日成은 같은 해 같은 달에 열린  
 第三次黨大會에서도 北韓의 人民民主主義政權(北朝鮮人民委員會) =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는 것을 公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은 이미 이상에서 지적한 바 있다. 1958年 9월에 출판된 <<조  
 선통사>> (하)에서는 명확하게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기능을 수행  
 하는 北朝鮮人民委員會>라는 규정이 나와 있다. 이러한 규정은  
 同委員會가 수립되면서 北韓은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 들어섰다고  
 선언했을 때와 동시에 나왔어야 당연했다. 그러나 金日成은 中共  
 의 理論을 뒤따라가면서 北韓의 人民民主主義가 「프롤레타리아트」  
 의 獨裁의 한 형태가 되었다는 것을 言明했던 것이다. 이 문제  
 에 있어서의 中國共產黨과 北韓의 勞動黨과의 差異點은 다음과 같  
 다. (즉, 中共은 人民民主獨裁를 통하여 「부르조아」 反帝·反封建  
 的 民主主義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의 두 단계의 革命任務를 수행한  
 다<sup>72)</sup>고 前提하고, 革命의 第2段階인 社會主義革命의 임무를 수행  
 하기 시작할 때의 人民民主獨裁는 本質上 <「프롤레타리아트」의 獨  
 裁>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北韓은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革  
 命을 수행하는 단계의 人民民主主義 權力을 <人民民主獨裁>로, 社  
 會主義革命을 수행하기 시작한 때의 權力을 <人民民主獨裁>와 区  
 別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라고 규정했다. 요컨대 北韓  
 에서는 <人民民主獨裁>와 그의 발전 형태인 <「프롤레타리아트」  
 의 獨裁>는 개념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區別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金日成이 北朝鮮人民委員會를 <우리 나라에 탄생한 첫 「프롤레타리아」 独裁政權>이라고 言明했던 데서도 表示되고 있다. 毛澤東의 <新民主主義論>에서 제시된 內容에 의한다면, 北韓에서의 <人民民主独裁>는 中共의 <革命的 諸階級の 聯合独裁>에 해당하는 것이다. 兩者의 主張은 다음과 같이 圖式化할 수 있을 것이다.

	第 1 段階... 諸階級の 聯合独裁
(中共) 人民民主独裁	第 2 段階...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
	第 1 段階... 人民民主独裁
(北韓) 人民民主主義 政權	第 2 段階...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

社會主義에로의 過渡問題를 論할 때, 金日成은 毛澤東에 比하면 정도는 弱했지만 그래도 形式上 民族「부르조아지」의 존재와 그 역할을 인정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独裁下에서 추진되는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의 시기에 資本家階級(民族「부르조아지」는 이에 속한다)의 存在를 용인한다는 것은 正統的 「맑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에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毛澤東은 中國社會의 特殊性에 의하여 中國의 民族「부르조아지」는 二重的 性格 즉, 政治的 動搖性和 더불어 革命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에서 社會主義建設段階에 있어서도 個人商工業의 <적극적인> 利用하고, <소극적>인 기능은 제안하면서 점차적으로 社會主義的 改造를 실현하는 政策을 취했던 것이다.<sup>73)</sup> 金日成은 北韓의 民族「부르조아지」의 <革命性>을 인정한 일이 별로 없고, 그들의 <動搖性>은 유달리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毛澤東의 戰略대로

〈民族的良心을 가진 民族資本家〉(共産黨을 추종하는 商工業者) 들은 〈民主改革〉의 시기에서부터 民族統一戰線에 끌어 드리는 政策을 택했다. 74) 그것은 共産黨政權의 草創期에 北韓의 經濟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可能性을 利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75) 따라서 北韓의 韓黨教材는 뒤늦게 이렇게 썼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重要産業國有化는 일부 帝國主義와 隸屬資本主義들의 소유를 수탈할 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民族資本家들의 個人經理를 다치지 않았으며 그들의 自由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실시되었다. 76)

北韓에서 個人商工業이 〈社會主義的 改造〉라는 이름에서 全面的으로 말살된 것은 1956年末에서 부터 1957年初에 이르는 기간의 일이었으며 이러한 〈改造〉는 個人手工業과 더불어 1958年8월에 완성되었다. 77) 일부의 個人商工業과 手工業을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는 政策은 이미 北朝鮮人民委員會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당시는 〈社會主義的 經濟形態〉(國營企業)를 창설하는데 力을 두었고, 既存 私企業과 手工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韓國戰爭이 끝난 이후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1955年4月 그의 《우리 革命의 性格과 課業에 관한 提議》에서 〈社會主義的 經濟形態의 支配的 地位를 더욱 높이며... 生産力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觀點에서 〈社會主義的 改造〉를 특별히 역설했다.

手工業과 個人小商業은 協同經理를 통하여 점차 社會的으로 개조해야 한다. 도시와 農村에 아직 남아있는 資本主義的 要素들은 制限, 利用하며 점차적 方法에 의하여 社會主義的으로 개조하

여야 할 것이다.<sup>78)</sup>

그리하여 休戰直後 명백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個人企業과 手工業<sup>79)</sup>은 自作農과 더불어 급속히 말살되고 共産黨에 의하여 民族「부르조아지」, 小「부르조아지」(手工業者와 中農)라고 불리웠던 社会的 계층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社会主義的 勤勞者> (勤勞者 또는 協同組合員)로 전락했던 것이다. 이 <社会主義的 改造>를 설명함에 있어서 孫日成은 이들이 <自願>해서 <改造>되었다는 조건을 부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3) 階級鬭爭의 尖銳化 : -資本主義에서 社会主義로 넘어가는 過渡期의 특징을 論할 때, 北韓은 이 시기에는 치열한 階級鬭爭이 불가피적으로 수반된다고 강조하는 點에서는 소聯 (1956年 2月까지)의 立場에 동조했고 平和的 移行을 강조하는 中共의 立場을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 이 過渡期에도 <民族「부르조아지」를 포함한 民族統一戰線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에 있어서는 완전히 中共의 立場을 追從했고, 소聯의 立場을 무시했던 것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中共은 이 過渡期에 階級鬭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배격은 하면서도 <平和的인 鬭爭 方法>에 의하여 즉 平和的인 길을 통하여 <社会主義社會의 建設을 가능케하는 여러가지 中共自體의 條件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 조건이란 勤勞者階級에 의한 國家의 指導權, 黨, 人民同盟, 國民經濟에서의 社会主義經濟의 指導的地位, 國內의 統一戰線 및 有利한 國際的 條件 등이었다. 北韓에서도 民主改革 이후 이러한 조건들이 마련되었다

는 것을 金日成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조건들에 의거하여 平和的인 길을 통하여 北韓에서 社會主義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일은 없다. 오히려 그는 休戰以後부터는 <치열한 階級鬭爭>에 관해 유달리 강조했던 것이다.

1955年 4月 1日 党中央委員會全員會議에서 그는 1928年 10月 19日 「스탈린」이 「모스크바」의 한 黨會에서 한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 이행하는 역사적 行程은 치열한 階級鬭爭을 동반합니다. 「스탈린」이 말한 바와같이 죽어가는 階級이 자발적으로 歷史무대에서 물러나간 일은 일찌기 없으며, 죽어가는 「부르조아지」가 자체의 生存을 고수하기 위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아직도 역사에 있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스탈린」의 이러한 주장을 北韓社會에다 적용시켜 아래와 같이 역설했다.

共和國 北半部에서 실시된 民主改革의 결과 청산된 地主階級과 隸屬資本家, 親日分子, 民族叛逆者 기타 반동분자들은 과거와 자기 처지를 회복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자기의 착취적 본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걸쳐 부식한 낡은 社會의 思想殘滓, 습관, 전통들은 우리 人民 大衆의 머리에서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社會主義 建設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며, 그것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意識的으로 또는 無意識的으로 政治, 經濟, 文化의 각 분야에서 否定的 影響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sup>26)</sup>

그러하여 이 모든 <反動分子들>에 대한 숙청작업은 休戰以後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낡은 思想的 殘滓>를 뿌리뽑기 위한 소위

<階級敎養事業>은 党内外에서 맹렬한 기세로 강화되어 왔다.

金日成은 극히 미약했던 個人企業이나 手工業의 말살정책의 수행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北韓人口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農業의 集團化問題에는 최대의 관심과 不安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같이 빈곤한 北韓의 농민들을 기계적으로 <貧農>, <中農>, <富農>으로 구분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成分을 가진 貧農은 農業集團化政策을 가장 積極적으로 지지하는 者, 小부르조아지의 成分을 가진 中農은 集團化를 실행할 수 있는 者, 그리고 부르조아지의 成分을 가진 富農은 集團化를 반대하는 者로 階層的 規定을 내렸지만, 集團化에 있어서는 이 모든 계층들에게 <自願性的의 原則>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社會主義的 改造를 접수하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富農들은 모두 協同經理에 받아 드렸으며 協同化運動을 방해하려는 극소수분자들에 대하여는 응당한 제재를 加하였다>는 것을 뒤에 와서 고백하였다.<sup>80)</sup> 이것은 그가 말하는 <自願性的의 原則>이 사실은 強制性的의 原則이었음을 公言한 것이다. 自作農民들이 貧富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農業集團化를 반대하는 것은 모든 共產主義社會에서 볼 수 있는 歷史的 經驗이다. 스탈린은 集團化를 반대하는 各層의 農民들을 일괄하여 <富農>으로 단정하고, <階級으로써의 富農을 박멸>하는 政策을 강행하면서, 이 過程을 농촌에 있어서의 階級鬭爭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金日成도 北韓에서 集團化를 개시했을 때 비록 미약하기는 했지만 農民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는 1955

年4月 富農들이 <自進하여> 同組合에 망라 되도록 하고 점차로  
 勤勞農民으로 改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農村에  
 서 아무런 階級鬭爭도 없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는 없으며 一定  
 한 저항과의 鬭爭속에서 進行될 것>을 宜言했다. 81) 그리고 集團  
 化가 모두 끝난 1959年 1月에는 이것이 <階級的 원수들>과의  
 <階級鬭爭>에 의하여 실현되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農村에서 일어난 위대한 革命>이라고 82) 자부했던 것이다. 人民大衆  
 들의 物質生活을 기아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강행된 金日成의 重工業優  
 先의 工業政策과 성급한 農村集團化政策에 대한 신의의 批判도 용인  
 되지 않았고, 黨의 最高位層內에서도 그의 政策路線에 대해 사소한  
 의심이나 不信을 품는 者는 <宗派主義者>라고 해서 숙청되었다.  
 그에 의하면 <宗派主義者는 資本主義思想에서 나온것>이요 또한  
 이것은 <黨의 統一과 團結>을 꺾는 무서운 해독이었다. 83) 그리  
 고 그는 宗派分子들은 修正主義者들이요, <修正主義는 黨 영도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金日成의 經  
 濟政策에 대한 黨內의 불만과 반발은 1956年 8月 드디어 그를  
 제거하기 위해 延安派와 모스크바派들에 의해 소집되었던 黨中央委  
 員會全員會議에서 폭발되었던 것은 金日成의 獨裁權力은 최대로 위  
 험했던 黨內의 權力鬭爭이었다.

이들의 反金日成權力鬭爭이 실패로 돌아간후 黨內에는 일대 숙당  
 소동이 일어났다. 金日成은 1956年末에서 57年初에 걸쳐 黨証  
 交換事業을 벌리고, 各級 黨組織에 대해 <反革命分子>들을 색출해

56.8  
 宗派主義의 及 權

내는 소위 <集中的 指導檢閱事業>을 전개하면서 全北韓社会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그후 1958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地主와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하는 이들 <反党分子>, <反革命分子>에 대한 공격이 階級鬭爭의 명분에서 더욱 강렬해졌고, 金日成의 1人獨裁体制의 강화가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強化와 同一視되었다. 이 전근일축의 權力鬭爭은 1930年代의 소聯共產黨內的 權力鬭爭과 흡사했다. 1人獨裁体制의 공고화 과정에서 金日成은 <階級敎養事業> 또는 <思想敎養事業>을 자기의 反對派들의 잔재를 소제하는 동시에 反對派가 다시는 싹틀 素地를 사전에 말살하는 方向에서 적극적으로 강행하였다.<sup>84)</sup> 金日成이 이제는 <黨의 唯一한 思想과 義志>로 全体黨員들과 근로대중을 묶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sup>85)</sup> 그것이 바로 自己自身の <思想>과 <意志>를 의미했음은 그후의 사태가 증명했다. 그리하여 寒冷한 思想的 永原地帶인 北韓에서도 個人崇拜思想만은 활짝 꽃피게 되었던 것이다.

毛澤東이 <社會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行>을 강조한데 대해 金日成이 <階級鬭爭의 첨예화>를 주장했다고 해서, 中共에 있어서의 階級鬭爭이 北韓에서의 그것에 比하여 덜혹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中共에서는 個人商工業者들의 세력이 北韓에서 보다는 훨씬 더 컸고 그들의 企業的 才能을 더 오래 利用해야 할 필요성이 많았기 때문에 中共政權은 이들에 대한 포섭전술로써 平和的 移行을 역설했던 것이다. 한편 農村集團化에 관해서는 兩者는 비슷한 時期에

過渡期에 있어서의 統一戰線의 必要性  
— 北韓의 情況

金日成 — 北韓의 階級鬪爭을 爲한 爲기

출발하여 비슷한 시기에 끝났으며 그 方法도 거의 同一했다. 金日成이 休戰後 過渡期에 있어서의 階級鬪爭을 유달리 부르짖은 것은 韓國戰爭時 北韓에 진주한 韓國軍과 유엔軍에 대해 北韓의 都市 근로대중과 農民들이 마음으로부터 환영 협력했다는 것, 數百萬의 住民들이 유엔軍이 후퇴시 이들의 뒤를 따라 황급히 南下했다는 것, 그리고 그 家族들의 대부분이 그대로 北韓에 잔류하고 있다는 것, 더우기 大衆의 物質生活이 北韓에 비해 풍부한 大韓民國의 존재가 계속 北韓人民들에게 思想的 政治的 影響을 미치고 있었다는 데 충분한 理由가 있었다. <sup>86)</sup>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金日成政權에 대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階級鬪爭을 강조할 때는 언제나 大韓民國의 존재를 意識했고 이것과 관련시켜 北韓의 社会的 不安을 論했던 것이다.

끝으로, 社會主義로 넘어가는 過渡期에 있어서의 統一戰線의 必要性을 인정한 점에서 北韓은 中共의 戰術을 그대로 추종했다. 年代的으로 보면 中共은 北京政權이 成立한 1949年 10月 이후에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에 들어섰다고 하고, 北韓은 北朝鮮人民委員會가 수립된 1947年 2月 이후부터 그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뒤에 와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의 立場이었다. 즉, 中共은 1953年 10月에, 北韓은 1955年 4月에 각각 그러한 입장을 公的으로 確言했던 것이다.

社會主義建設段階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基盤을 강화하기 위하여 勞農同盟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레닌 以來의 公式이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政權이 民族부르주아지까지 포함한



(1) 統一戰線  
 (2) 民族  
 (3) 小資產階級  
 (4) 民族資本家  
 (5) 自作農民

(1) 統一戰線  
 (2) 民族  
 (3) 小資產階級  
 (4) 民族資本家  
 (5) 自作農民

統一戰線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戰術的 命題는 中共과 北韓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先例가 없다. 民族 부르조아지를 統一戰線에 끌어 들인다는 것은 물론 그들의 宗國적인 社會主義的 改造를 전제로한 것이오, 社會主義建設에서 利用할 수 있는 모든 人的 資源을 동원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밖에도 中共의 경우는 최대한 다수의 資本家들을 과도적으로 포섭하므로써 國民黨의 政治的 經濟的 기반을 弱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北勞黨의 경우, 南韓의 個人企業家들을 大韓民國으로부터 이탈시켜 南韓의 社會·政治的 토대를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무너트리자는데 統一戰線의 戰略的 目標가 있었다.

따라서 金日成의 統一戰線戰略은 南北統一의 戰略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北韓에서의 個人企業과 自作農과 手工業이 모두 말살되던 休戰後의 조건에서 이른바 民族 부르조아지와 小부르조아지등 資本主義的勢力은 완전히 소멸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金日成은 이들과의 統一戰線을 사실상 중요시할 必要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가 北韓의 統一戰線을 말할 때는 언제나 對南宣傳을 안중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 즉, 北韓의 個人商工業者, 手工業者, 自作農들이 모두 그의 黨路線을 수락하고 黨의 지도 밑에 <樂園>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南韓의 小資產階級, 民族資本家, 自作農民들에게 선전하면서, 이들이 결기하여 南韓의 <地主>, <隸屬資本家>, <親日 親美派>, <民族反逆者>들을 타도하고 <反帝 反封建的 革命>을 수행하라고 호소하는 方向으로 南韓에서의 統一戰線組織을 촉구해왔던 것이다.<sup>87)</sup>

1956년에 제정된 中共憲法이 社會主義建設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內외의 敵>과 투쟁함에 있어서 全國人民을 動員, 結集할 必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勞動者階級이 지도하는 統一戰線의 계속적인 役割을 明文化했던 것은 이미 앞에서 言及하였다. 金日成은 中共의 政治路線을 뒤따르면서 1956年 4月 第三次 黨大會에서 中共式 統一戰線을 다시 들고 나섰다.

黨은 우선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 우리는 아직 帝國主義者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勞動階級의 지도 밑

에 모든 愛國的 力量이 단합되어 있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反帝 反封建的 民主革命의 과정 수행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建設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傍点是 筆者)

그리고 그는 이미 몰락의 최후 단계에 들어선 北韓의 非共產主義勢力을 포섭 통제하기 위한 政策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는 友黨 黨員들과 宗敎人, 中小商工業者, 自由職業者등 광범한 계층과의 단결을 도모하며 그들을 政治 經濟적으로 방조하는 사업을 성실이 수행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는 다시 이들을 <방조하는 사업>이 사실은 이들을 <社會主義勤勞者>로 전락시킨 후에 이들의 物質生活水準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것임을 밝혔다.

...특히 그들은 農業協同組合, 生産 및 水産協同組合등에 참가시켜 점차 社會主義的 勤勞者로 개조하며 그들의 物質文化水準을 향상시키는 것은 統一戰線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統一戰線은 그들을 星期日成體制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는 그 억압적 本質을 더욱 強化해 갔다. 어느 政黨 또는 個人도 統一戰線內에서 勞動黨의 <社會主義建設> 政策에 불복할 수는 없고, 그것을 위한 工具가 되었다. 1958年 4월에 星期日成은 이것을 몇몇이 명백하게 아래와 같이 公言했던 것이다.

우리는 社會主義建設을 같이 하려는 모든 政黨, 社會團體들과 統一戰線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統一戰線을 어느 계급이 영도하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統一戰線을 부르조아지가 영도할 때는 그 統一戰線에 기초한 政權은 부르조아政權이 됩니다. 지금 우리 人民政權이 統一戰線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서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政權은 勞動階級의 영도 밑에 社會主義를 지지하는 各界各層의 統一戰線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本質上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으로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88)

이와 같이 하여 北韓에서의 統一戰線은 오랫동안 은폐되고 있던 그 本質을 공연히 宣稱하기에 이른 것이다.

# 주 제는 - 북을 위한 위대한 위장 운동

해은 <南朝鮮革命>은 처음부터 北韓型 <人民民主主義革命>이었다. 그리하여 人民民主主義는 비단 北韓自體의 政治的 이데올로기와 制度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南朝鮮革命>을 위한 이데올로기요 南北統一을 위한 戰略 戰術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金日成의 <南朝鮮革命>論은 休戰以後의 그의 文言들에서 빈약한 形式으로나마 부단히 제시되어 왔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不正確한 용어를 맑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교정하면서 全體的 表現도 바뀌어 나갔다. 그리고 그때 그때의 國內外情勢의 變化에 적합하도록 內容에도 첨삭을 가했다. 무엇보다 어떤나라의 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도 指導者들은 최대수 大衆들에게 힘차게 호소할 수 있고, 그리고 共產主義者로서는 그 正当性を 부인하기 어려운 革命的 또는 政策的 과제를 내세우고, 이것을 이데올로기化, 理論化하면서 自己들의 獨裁權을 확립하려고 시도해 왔다는 긴 歷史가 있다. 멀리는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黨>理論,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 트로츠키의 <永久革命>論을 위시하여 가까이는 호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과 毛次東의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論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가열한 黨內의 權力鬭爭을 통해 한사람의 주장이 승리할 때, 그것은 普遍妥當性を 지닌 眞理로 인정되어 <正確>하고 <科學的>인 黨路線으로써 실천된다. 이와 반대로 權力鬭爭에 패배할 때는 그의 주장은 左傾的 또는 右傾的, 教條主義的 또는 修正主義的 오류를 犯했다고 규탄되면서, 이데올로기의 쓰레기봉으로 던져지고 그 자신은 <全黨的으로> 매장된다. 金日成의 <南朝鮮革命>路線, 그의 위장된 戰術로서의 <平和統一>

## 2. 基本戰略

1953年8月5日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第6次 全員會議에서의 金日成 報告에서 그는 平和統一의 前提條件으로 〈朝鮮問題는 朝鮮 사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할것〉을 주장하면서 南韓으로부터의 美軍철수를 요구 했다. 89) 中共 및 蘇聯과 접경하고 있는 유리한 地理學的 立場에서 南韓을 國際的 支援으로부터 고립시켜 軍事的 空白地帶를 조성코저 제창한 美軍撤収 要求는 1946年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平和統一論의 大前提로서 일관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北韓을 南北統一을 위한 〈民主基地〉(후에는 革命的 民主主義)로 규정하고, 이것을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強化한 후, 이곳을 기지로 南韓에다, 親共產主義革命을 유발하여 革命政權이 수립되면, 이 努力을 北韓의 〈社會主義力量〉과 〈平和的으로〉 통합하여 北韓統一을 쟁취한다는 公式을 休戰直後부터 강조해 왔다.

金日成의 〈兩朝鮮革命〉의 이데올로기는 休戰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20年 동안 体系的으로 전개되어 왔고, 革命的 戰略과 戰術도 具體的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리고 兩朝鮮 革命의 성격은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革命〉이라고도, 간단히 〈民主主義革命〉이라고도 규정되어 왔지만 1968年9月 소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創建 스부들 慶祝大會〉에서 金日成은 이것을 명확히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고 밝혔고 90) 1970年 11月的 第五次 黨大會에서도 그는 南韓에서 세워질 革命政權이 〈人民民主主義政權〉이라고 주장했다. 91) 그가 사용해 온 用語가 어떻게든 막론하고, 그가 생각하고 시도

路線, 그리고 〈平和統一〉의 담보로써의 〈民主基地〉 強化路線도 생사를 건 勞動黨內의 權力鬭爭에서 그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黨의 究極的 革命謀策의 수행을 보장하는 絶對 無誤謬의 진리로서 찬양 되어 와던 것이다.

金日成이 1954年 11月 3日 黨中央委員會에서 전쟁에 지칠대로 지쳤다가 休戰에 의하여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려했던 黨幹部들에게 平和統一에 대한 信念과 인식과 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힐책하는 데서부터 그의 兩朝鮮 革命論은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우선 統一不可能論者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平和的 統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黨員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美國놈들이 남조선에 있기 때문에 조국의 통일은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祖國統一에 대한 思想 조차 마비되어 그 區區마저 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92)

그 다음의 批判對象은 〈南北共存論〉이었다.

...어떤 농부들은 資本主義體系와 社會主義體系가 서로 共存한다고 하니까 兩朝鮮과 北朝鮮이 共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은 學校에서 이와같이 강의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우리 한나라 안에서 兩朝鮮과 北朝鮮이 분리되어 共存할 수 있다는 사상은 대단히 위엄한 것이며 우리의 統一事業을 방해하는 해로운 견해입니다. 그러한 견해를 가지나 있는 사람들은 마치 兩朝鮮에서 革命을 해야 할 責任은 兩朝鮮 사람들에게만 있고 우리 北朝鮮 사람들에게는 兩朝鮮을 해방할 責任이 없는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祖國의 分열을 정당화 하며 그것을 영구화 하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兩北의 共產主義的 統一이 〈現段階에 있어서 우

리 黨의 基本的 革命課業)이라는 것을 再確認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 北韓의 共產主義者들 마저도 金日成方式에 의한 統一의 可能性을 무시하고 그의 統一論은 形式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은 그의 다음 말에 의하여 충분히 暗示되고 있다.

祖國統一의 위업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우리 黨이 自己任務를 완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不可能하다. 그에 대한 제의는 形式이다. 南北이 共存할 수 있다.》는 등의 사상은 全体 朝鮮人民의 祖國統一에 대한 의욕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兩朝鮮을 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李承晚大統領이 統一問題를 열렬히 강조하고 있는데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만일 이에 대항하여 北韓에서 平和統一을 선전하지 않았다가는 人民들이 黨을 이반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따라서 그의 平和統一口號는 일면에서는 自己 保存策이었던 것이다.

敵들은 統一에 대한 우리 人民의 념원을 利用하여 그 상투적인 소위 《北進統一》에 대한 나팔을 계속 불어대는데 우리 黨이 統一에 대한 口號마저 내던지고 뒤로 물러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우리 黨은 人民의 信心을 잃어버리게 되고 朝鮮 人民이 한결같이 원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위업은 실현되지 못할 것입니다.

黨員들마저도 金日成의 統一方策을 믿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그 때도 共產主義統一이 가능하다는 主觀主義的 根拠를 그는 두개의 <有利한 條件>에서 찾았다. 그 하나는 兩韓의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危機>라는 內部的 條件이요, 다른 하나는 <資本主義國家들 간의 矛盾>이라는 外部的 條件이었다. 그가 보는 (사실은 그가

바라는) 〈兩朝鮮의 형편〉이라는 것은 같은진영 내의 〈反日〉과 〈알력〉, 國民生活의 〈더욱 더 비참한 처지〉, 〈美帝侵略者들의 총검〉, 〈李承晩反動統治에 대한 人民大衆의 증오와 反抗〉등으로 말미암아 붕괴 직전의 사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왔다. 그러나 그가 묘사한 兩韓의 이 암담한 〈형편〉은 사실은 北韓의 현실에 해당하는 말이었다. 兩韓을 쇠대한 어둠계 그리고 비방하면서 大衆操作을 하지 않고서는, 戰火 속에서 지치고, 굶주리고, 絶望에 빠지고 불만과 不平이 가득찬 北韓住民들과 一般黨員에 대해 獨裁體制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6·25의 兩侵이 전열을 재정비한 國軍과 美軍을 필두로 한 유엔軍部隊에 의하여 격퇴된후 金日成은 〈美帝國主義〉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불태우고 격렬한 反美宣傳을 國內外에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리고 兩韓의 방위가 美國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해 크게 적수했다. 그러나 〈美帝國主義〉도 〈歷史發展의 法則에 의하여 결국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한편, 〈美帝國主義〉와 다른 資本主義國家들 사이에서 증대해가는 矛盾은 그 힘을 약화시켜 결국 金日成에 의한 南北統一을 위해 有利한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1956年4月 蘇聯共產黨 第20次 大會에서 蘇聯 共產主義者들 自身에 의해 부정된 스탈린의 理論<sup>93)</sup>을 자기것처럼 들고나와 1955年11月3日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歷史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帝國主義의 멸망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資本主義國家들간의 矛盾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美帝와 그 예속하에 있는 資本主義國家, 예컨대 日本과 같은 나라와의 사이의 矛盾이 증대되고 있는 事實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帝國主義者들의 弱點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그들 간의 不可避의 矛盾에 있습니다. 이 矛盾은 앞으로 우리 나라의 統一 獨立에 아주 유리한 條件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sup>94)</sup>

이렇게 궁지에 몰려든 〈美帝國主義〉는 〈兩朝鮮人民들이... 反對하여 쫓기하게 되면 결국 兩朝鮮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自己慰安的 전망이었다. 그리고 그는 〈兩朝鮮人民들이 美帝를 반대하여 쫓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兩半部人民들이 일어나도록 조직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兩朝鮮人民들이 우리黨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여 일어선다면 우리는 능히 兩朝鮮에서 美帝國主義를 몰아낼 수 있다〉는 幻想을 피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假定 위에서 金日成은 兩韓을 접수할 수 있는 基本的 方式을 내세웠다. 즉, 그것은 北韓을 建設, 強化하는 反面, 兩韓은 파괴, 弱化해야 한다는 일종의 政治的 分業論이었다. 그의 表現은 다음과 같다.

祖國統一을 위하여 우리는 두가지 方面에서 일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한 方面으로는 兩朝鮮人民들에게 꾸준히 우리 黨의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美帝와 李承晚 역도를 반대하여 쫓기하도록 하며 다른 方面으로는 北半部 民主基地를 더욱 철옹성 같이 強化해야 합니다.

兩北統一의 〈실정적 담보〉라고 하는 소위 〈民主基地〉의 強化가 政治的 軍事的으로는 물론 經濟的으로 촉진되어 北韓社會가 〈一大樂園〉으로 급속히 建設되면 北韓을 동경하는 나머지 兩韓의



制度를 반대하여 일어서는 〈南朝鮮人民들〉의 革命氣勢는 그 어떠한 힘으로도 억제할 수 없게 되어 南北은 共產主義下에 統一된다는 것이 金日成의 幻想論의 연장이다. 그리고 그는 南北이 統一되면 北韓의 〈樂園〉에서 우리는 풍부하고도 높은 生活水準에 의하여 北韓人口의 3 배나 되는 〈南朝鮮人民들의 生活問題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것〉이라는 장담까지 서슴치 않고 해왔다.

金日成이 주장하는 〈南朝鮮革命〉이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면, 이에 대한 階級的 分析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南韓에서의 革命的 階級과 反革命的 階級을 中共式 人民民主主義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区分해 왔다. 앞서서도 누차 言及한 바 있는 1954年 4月の 《우리 革命의 性格과 事業에 관한 提제》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러한 南韓의 階級的 分析을 시도했던 것이다.

우선 그가 보는 南韓에서의 反革命勢力은 다음과 같다.

...현 段階에 있어서 우리 革命의 기본 임부는 美帝國主義 侵略 勢力과 그 勢力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있는 南半部의 地主, 親日本家, 親日 親美派, 民族反逆者들을 타도하고 南半部人民들을 帝國主義的 및 封建的 壓迫과 착취로부터 해방하므로써 祖國의 民主主義的 統一과 完全한 民族的 獨立을 달성하는데 있다.

土地改革에 의하여 南韓에서 소멸되지 오래 地主階級을 그가 第 1級의 反革命勢力으로 지목한 것은 人民民主主義의 주요한 內容인 反封建的 民主革命(土地革命)을 수행하려면 地主階級이 존재해야 한다는 論理的 要請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親日 親美派〉나 〈民族反逆者〉나 하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階級은 아니다. 이렇게 그의 분석은 조작하고 기계적이었던 것이다. 다음으

로 革命勢力에 관하여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兩半部에 있어서 革命의 동력은 勞動階級을 비롯하여 그의 가장 믿음직한 同盟者인 農民과 美帝國主義 및 封建勢力을 반대하는 광범한 小資產階級이며, 일부 적지 않은 民族資本家들까지도 反帝 反封建의 鬪爭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

北韓에서는 社會主義 革命段階에 있어서 까지도 小부르조아지, 民族부르조아지를 統一戰線에 끌어넣어야 한다던 金日成이 反帝·反封建의 民主革命의 단계에 있다고 하는 兩韓에서 小부르조아지를 革命에 동원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가 兩韓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에 兩韓의 <民族부르조아지>가 가담하리라는데 대해 처음부터 상당한 기대를 걸어 왔다는 점이다. 그가 말하는 <民族부르조아지> (또는 <民族資本家>)란 개념은 사실은 共產主義革命에 동조하는 資本家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親共產主義的 資本家は 北韓에 있어서도 그러했지만 兩韓에서는 어떤個人으로서든 몰라도 적어도 하나의 階級으로서든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말하는 <小資本階級> (또는 <小부르조아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農民은 물론 <勞動階級>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4階級을 공식적으로 革命的 勢力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다 기대를 걸은 것은 그가 兩韓의 현실에 무지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公式主義的인 낡은 階級革命觀에 도취되어 있었는지 또는 이 兩者가 혼합되어 있었는지의 그 어느 하나 일 것이다.

이상 金日成의 <兩朝鮮革命>論을 休戰直後の 그 文冊에 의거하여 요약하였다. 그 당시 그가 사용한 用語와 표현은 때로는 부

정확하고 조잡했다. 그러나 그의 基本觀點은, 그 후에도 세련된 맑스·레닌主義的 用語를 선택하고 개념을 精密化하면서 그대로 일관되어 왔다.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써의 그의 〈南朝鮮革命〉路線은 1965年4月14日 그가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社會科學院에서 한 강연을 통해 더욱 定式化되었고, 1966年10月5日 勞動黨代表者會에서 한 그의 報告演說에서 더욱 具體化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1967年12月16日의 소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政府綱領〉, 1968年9月의 朝鮮勞動黨創建 20週年式典에서 한 그의〈報告〉, 1970年11月의 第5次黨大會에서 한 그의 〈中央委員會 事業總和報告〉등을 통해 살을 붙이면서 계속 강조되어 왔다. 요컨대 그의 〈南朝鮮革命〉路線은 南韓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이며 이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은 그의 〈平和統一〉論의 戰略 戰術이다. 그리고 그의 〈平和統一〉論은 1966年 이후 北韓에서 〈自主性〉이 강조되면서 〈自主的 平和統一〉論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그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은 결국 〈自主的 平和統一〉路線과 表裏關係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金日成의 〈自主的 平和統一〉論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의 本質을 규명하기로 한다.

우선 解明해야 할 것은 〈自主〉의 戰略性이다. 金日成의 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黨의 이른바 〈自主性〉을 公的으로 선언한 것은 1966年8月12日 子 《로동신문》의 〈自主性을 옹호하자〉는 社說에서였다. 1956年4月의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를 계기로

中·蘇紛爭이 발생한 후 이것이 深化擴大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國際共產主義의 單一的 體制가 解体되고 多元化現象이 일어나는 혼란한 歴史的 상황에서, 特히 中共과 蘇聯에 동시에 依存하여 兩大國 사이를 방황하고 있던 북수한 조건에서, 金日成은 스스로의 活路를 〈主体〉의 立場에서 개척해야 할 정세에 부더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蘇聯의 〈修正主義〉, 中共의 〈教條主義〉 그리고 兩者의 〈大國主義〉를 동시에 비판하면서<sup>95)</sup> 朝鮮勞動黨의 〈自主性〉을 定立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리고 黨內의 모든 反金日成勢力에 대해서는 〈宗派分子〉라는 낙인을 찍고 이들 〈宗派分子〉는 例外없이 〈修正主義者〉와 〈教條主義者〉들이요, 〈事大主義者〉와 〈民族虛無主義者〉들이라고 공격했다. 〈自主性〉의 이데올로기의 基盤으로써 〈尊命的 自力更生精神〉이 부단히 강조되는 가운데 黨理論家들은 自主路線의 諸原則, 즉 思想에서의 〈主体〉,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를 公式化했다.<sup>96)</sup> 이에 따라 金日成의 〈祖國의 平和統一〉方案도 그의 〈自主性〉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재천명되고 合理化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韓半島가 戰時聯合國이었던 美·蘇兩大國에 의하여 南北으로 분단되고, 그 분단이 美·蘇를 주축으로 한 兩大陣營間의 冷戰에 의하여 더욱 굳어지고, 드디어는 스탈린의 武裝支援에 의하여 1950년 6·25이 南北이 韓半島를 戰火속에 몰아 넣었고, 유엔軍의 參戰과 中共의 소위 〈人民支援軍〉의 介入으로 韓國戰爭은 國際化되었고, 休戰後에는 大韓民國政府은 美國과 〈相互防衛條約〉(1954年)을 체결했

고 北韓은 北韓대로 中·蘇兩國과 〈友好·協力 및 互相援助協定〉 이란 이름의 軍事條約을 맺었다(1961年).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韓半島의 과거의 분단과 분쟁, 그리고 앞으로의 課題로서의 南北統一問題가 美國, 蘇聯 및 中共등을 주축으로하는 國際情勢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立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 복잡한 變因들을 일체 捨象하여, 〈朝鮮의 統一問題는 어떠한 外勢의 介入도 허용할 수 없는 朝鮮人民의 內政問題〉<sup>97)</sup> 라고 독단적 규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日帝下의 韓半島를 해방은 했으며 동시에 分斷해버린 美·蘇兩大國이 이 나라를 再統一시켜야 할 國際的 責任을 자진하여 면제해 주려는 歷史的 과오를 犯하고 있다. 도리어 그는 大國들의 이러한 國際的 義務를 정당하게 추궁하는 사람들을 〈賣國背族行爲〉라고 까지 비방하고 있다.

...우리는 外勢에 의존하여 나라의 統一을 실현하려는 그 어떠한 試圖도 그것을 全朝鮮을 外來侵略者들의 손에 내맡기려는 売國背族行爲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일관하여 南朝鮮에서 美帝의 침략군대가 물러간 條件에서 어떠한 外部勢力의 간섭도 없이 우리 人民 자신의 힘으로 우리 祖國의 통일분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輒略的 發言에 의하여 그가 追求하는 목적은 첫째는 〈自主統一〉의 명분으로 反西方勢力의 國際的 동조를 얻어 우리나라의 統一問題를 國際關係에서 유리시키고, 美國의 역할을 봉쇄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소박한 民族感情에다 호소하여 金日成은 〈自主的〉이라는 印象을 부각시킴으로써 南韓國民들 사이에서 同調 努力을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輒略的 發言은, 1947年9月

21日 美·蘇共同委員會席上에서 蘇聯代表가 聲明한 바 <美·蘇兩軍을 1948年初에 朝鮮으로부터 철거시킴>과 동시에 <朝鮮問題의 해결은 朝鮮사람 자신들에게 맡기자>는 제안에 호응하여 北韓에서 부단히 반복되어 왔다는 歷史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된 후 美軍이 南韓에서 철수한 당장의 결과는 6·25의 南侵이 었다. 그런데 金日成은 休戰이 되자 또 다시 꼭 같은 戰略的 立場에서의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朝鮮民族은 하나이며 朝鮮은 朝鮮사람의 것 입니다. 朝鮮問題는 응당 朝鮮사람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朝鮮人民은 분렬된 상태에 남아 있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며 어떠한 侵略勢力도 조국을 통일하려는 朝鮮人民의 願念과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98)

그런데도 1953년에는 그래도 <朝鮮民族>이니 <朝鮮사람>이니 하는 南北의 民族的 감정을 연결하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앞에서 인용한 그의 1967년의 발언에서는 <朝鮮人民> (共產主義者와 그 同調勢力)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金日成이 統一問題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더욱 硬化시켜 왔다는 한 증거로 해석된다.

金日成은 南北의 統一問題는 어떠한 外勢의 간섭도 용인하는 일 없이 <朝鮮人은>자신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情勢에 따라서는 <朝鮮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國際會議의 소집> (1956年 4月 29日)이니 또는 <中立國監視下의 全國總選舉> (1958年 2月 5日)이니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自己矛盾을 犯해왔고, 유엔 總회에 보내는 해마다의 <備忘錄>에서는 南北統一을 위한 <有閣 國際會議>를 제안해 왔다. 특히 그는 大韓民國이 美國의 지원을

받은 것은 <亮国行為>이지만, 北韓이 여타 共產主義國家들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것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그가 말하는 <祖國의 統一>이란 곧 <朝鮮革命의 全國的 勝利>를 뜻하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는 三大力量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革命戰略이다. 즉 첫째로는 北韓에서 <社會主義建設을 잘 하여...革命基地를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더욱 더 強化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兩朝鮮人民들을 政治的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하여 세움으로써 兩朝鮮의 革命力量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朝鮮人民과 國際革命力量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99)

그런데 이 셋째 戰略을 위하여 그는 <社會主義 國家 人民들>과 단결하고, 反美的 <新生獨立 國家들>과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國家 人民들>과 단결하고, <全世界 進歩的 人民들>과 연대성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의를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던 것이다.

朝鮮人民이 國際革命力量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을 國際的으로 孤立化시키는 것은 우리 勝利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金日成의 이상과 같은 <自主的> 統一論에 제시된 戰略을 단순히 수락할 <兩朝鮮人民>은 거의 存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對南<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은 근본적인 盲點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兩韓國民들이 社會的 階層 역할을 막론하고 金日成型 全体主義의 一人獨裁體制를 단호히 배격하고 있다는 엄연한 規

빛에 부딪 치자 兩韓의 民主主義者, 民族主義者를 고려하여 <自主的> 統一論의 이데올로기의 本質을 은폐하여 그때 그때의 정세에 따라 南北協商論, 南北總選舉論, 聯邦論, 交流論, 南北韓 10 萬名線 減軍論 등을 제안하면서 兩韓의 一般輿論에 호소해 왔다. 이것은 동시에 그의 對兩平和政勢의 全体系의 고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國際輿論을 北韓에게 유리하게 덧붙여 온 前提條件은 예외없이 <美軍撤収>였던 것이다.

金日成은 韓半島를 둘러싼 복합적인 政勢를 고의로 單純化시키면서 <兩朝鮮을 強占하고 있는 美帝國主義의 侵略軍隊>만 물러나면 平和統一은 <自主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兩韓을 철수했던 美軍을 6·25 兩役戰爭을 도발하므로써 다시 불러들인 그 張本人은, 이 戰爭을 <美帝國主義들>이 도발했고 兩韓은 <美帝의 殖民地>라는 사실전도의 선전전 속에서 美軍撤収를 南北統一의 先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로동신문》의 한 社論은 이렇게 쓰고 있다.

…朝鮮의 統一問題는 朝鮮人民 內部的 문제이며, 우리 人民의 民族自決에 속하는 문제이다. …朝鮮의 平和的 統一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統一의 근본 장애인, 朝鮮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美帝侵略軍을 兩朝鮮에서 철거시켜야 한다. 오직 美帝侵略軍이 兩朝鮮에서 철거하므로써만, 朝鮮人民의 自由로운 의사에 의해서만, 統一問題가 해결될 수 있다. 美國이나 그 어떤 外部勢力도 여기에 干涉할 權利가 없다. 100)

두말할 필요도 없이 兩北의 統一問題는 우리 民族자신이 統一에 대한 강렬한 의욕과 意志를 가지고 問題解決에 접근하지 않은 한 이룩될 수 없음은 당연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統一問題는 우리들



자신의 問題라는 重曷한 側面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外國勢力도 우리 民族이 싫다하면 統一을 강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강요하여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한편, 韓國問題에 이미 관련되어 있는 強大國들이 各自의 利害關係, 南北韓에 대한 同盟關係, 自國의 安全保障 또는 全般的 對亞細亞政策 중의 그 어떤 이유 때문에 韓半島의 再統一을 外交的, 軍事的으로 방해하려면 방해할 수 있다. 大韓民國이 蘇聯과 中共에 대해 北韓에 대한 自國의 軍事同盟 關係를 무조건 즉각 폐기하고, 韓半島의 統一問題에는 일체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도는 統一問題에 접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北韓은 美軍을 革命에 의하여 南韓으로부터 몰아내라고 주장하면서도는 결코 統一問題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主觀的으로는 〈自主的〉統一 方案이라고 생각될 려지 모르지만 客觀的으로는 統一을 반대하는 方案이 아닐 수 없다. 韓半島의 分斷은 源泉的으로는 美國과 蘇聯의 책임이오, 分斷의 공고화는 美·蘇兩大陣營의 冷戰 및 國際的 權力政治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蘇聯 또는 中共의 경우도 統一된 韓國이 자기야닌 그 어느 他方의 단독勢力國內에 들어 간다고 예견할 때는 비록 그것이 共產主義 統一이라고 해도 어느 한편이 이것을 방해할 것이다.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美國, 蘇聯, 中共의 3角을 기축으로 한 國際政治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金日成이 〈自主的〉統一을 論할때 韓半島의 軍事的 戰略關係를 第1次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中·蘇의

兩大國과 軍事同盟을 체결하고 있고, 國境을 접하고 있어서 불과 數10分내에 蘇聯軍 또는 中共軍이 入北할 수 있는 地理學的 條件을 가진 北韓에는 蘇聯 또는 中共의 軍隊가 常駐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 아무런 國際的 軍事條約도 없었던 1950年 10月에 中共軍은 <人民志願軍>이란 편이적인 이름에서 北韓에 進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와 다른 것이 大韓民國과 美國과의 關係이다. 美軍이 일단 南韓에서 撤收하면 韓半島에서 어떤 軍事的 紛爭이 일어 났을때 복잡한 美國內事情, 거리, 中共 및 蘇聯에 대한 政治的 또는 軍事的 고려 때문에 再派兵은 간단히 결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派兵되는 경우에도 時間을 요한다. 사실은 이 점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金日成은 <自主>라는 이름에서 美軍撤收를 끊임없이 강경하게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北韓의 勞動黨의 <自主的 平和統一>路線은 美軍의 韓半島撤收라는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兩韓에다 軍事的 空白상태를 조성하므로써 南北間의 軍事力의 均衡을 깨트리자는 戰略的 의미를 지니고 있다. 民族統一을 南北間의 緊張緩和, 軍事的 위기의 해소, 敵對意識의 消滅에서가 아니라 教條主義的 革命方法의 觀點에서만 추구하는 것이 金日成의 人民民主主義 革命路線이다. 따라서 그의 基本戰略은 武力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101)

### 3. 對南戰略의 構造

金日成이 統一問題에 關해서 言及할때마다 자주引用하는 勞動新聞社說의 內容을 要約해 보면, <南朝鮮에다 美帝와 그 앞잡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平和的 統一이란 생각할 수 없다. 統一은 美帝侵略者들을 우리 疆土에서 몰아내고 南朝鮮政權을 때려부셔야 한다.>는 것을 統一의 前提로 내세우고 그 方法으로 <南朝鮮人民>들이 美軍을 몰아내고 現政權을 뒤집고 民主主義的 勢力的 政權이 수립되면 우리는 그들과 平和的으로 協商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102) 여기서 北韓이 기대를 걸고 있는 <人民의 政權> 또는 <民主主義勢力的 政權>이라는 것이 金日成의 政治路線에 맹종하는 共產黨의 政權 또는 親共產主義 政權임은 물론이다. 金日成은 南韓에서의 親共產主義勢力을 <愛國的 民主主義力量>, <民主主義力量> 또는 <進步的 勢力> 등 恣意的인 이름을 붙혀 불러왔다. 金日成의 政治路線을 위하여, 그의 교시대로 美軍을 <몰아내고> 既存政權을 <때려부셔> 이른바 <南朝鮮革命>을 수행하려는 <愛國的 民主主義力量>이나 <進步的 勢力>이 존재하지도 않고 形成도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南朝鮮革命>을 매개로 한 統一路線은 現實的 절벽에 부딪치고 있다. 舊自由黨 政權에서 民主黨政權을 거쳐 現共和黨政權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政體가 실현할때 마다 그는 이것을 전복이라고 呼訴, 선동해 왔다. 過去 10 數年동안에 두차례의 政變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그 原因과 結果에 있어서 金日成의 主觀的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에 그一派에게는 심각한 고민

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南朝鮮에는〈反共〉思想이 뿌리 깊이 박혀있다〉고 自認하면서 〈이것은 南朝鮮革命의 발전에 하나의 큰 장애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革命의 天才의 首領〉(103)으로 예찬되는 金日成의 對南革命政策이 실패했다고 해서는 안된다. 金日成을 섬기는 勞動黨의 宣傳家들은 南韓大衆에 대한〈南朝鮮革命〉의 호소와 工作을 실패를 文言上으로나마 성공으로 逆轉시키기 위해, 北韓에서 특수한 軍事訓練을 받고 南派되었던 武裝部隊들—이들테면 1968年 1月の 金新朝一派와 그후의 武裝間諜團들—을〈南朝鮮革命家〉라고 불러야만 했다. 또한 그들은 大韓民國의 議會民主主義를 확립하기 위한, 그리고 그 높은 思想的 仙值가 大韓民國憲法前文에 까지 기록되어 있는 4·19 學生義擧를〈4·19 人民蜂起〉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마치 北韓의 共產主義者들의 호소에 호응하고 그들을 위해 일어났던 것 거침 眞爽의 進술적 軀例를 시도해 왔다. 韓日會談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大韓民國의 國家利益을 최대한도로 옹호하기 위해 있었던 韓日國交 正常化에 대한 批判的 言論과 일련의 시위는 大韓民國의 발전을 위한 것이오, 金日成一派가 희망적으로 묘사하듯이 大韓民國을 파국으로 몰아 넣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金日成은 1968年 9月 〈平和統一〉의 方法을 이렇게 제시했다.

美帝가 쫓겨나고 南朝鮮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승리하여 人民들이 自己손에 政權을 쥐게되면 北半部の 社會主義力量과 南朝鮮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祖國의 統一偉業은 성취될 것임이다. (104)

再言하면 南韓에 성립할 人民民主主義革命政權이 北韓의 社會主義  
 政權과 平和的으로 統合하여 平和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 幻  
 想的 公式은 政治意識이 어린 사람들을 착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개되는 〈平和統一〉論이지만 그 內容은〈南朝鮮革命〉論으로 구  
 성되고 있다. 그는 이미 定式化한 自己의 南朝鮮 革命의 이데올  
 로기를 1966年 10月 5日의 勞動黨代表者會에서는 소위〈맑스·레닌주  
 의 戰略術原則〉에서 보다 精巧化된 形式으로 제시하였다. 여기  
 서 그는 무엇보다도 南韓에다 〈革命의 참모부인 맑스·레닌主義黨  
 을 꾸미며, 그 주위에 社會의 基本群衆인 勞動者 農民을 결속하  
 여 강력한 革命의 主力軍을 편성〉할것을 요구하는 동시에〈英國  
 의 植民地統治下에서 다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人民들, 즉 勞  
 動者, 農民外에도 靑年學生, 知識人, 都市小資產階級, 그리고 물론〈良  
 心的인〉民族부르조아지 (等과 광범한 統一戰線을 형성하라고 지시  
 하고 있다. <sup>105)</sup> 歲킨대 이들을 南韓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勢力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타도되어야 할 革命의 敵,  
 즉 〈反美救國鬪爭의 組織力量인 統一戰線의 鬪爭對象은 美帝와  
 그와 結탁하고 있는 地主, 買弁資本家, 反動官僚〉들의 反人民的勢  
 力이라고 한다. 北韓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南韓에 있어서도  
 革命的 階級과 反革命的 階級을 분류할 때, 반드시 社會 經濟的  
 기준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勞動者라고 해도 共產黨  
 의 一黨獨裁體制를 용인하지 않는 한 그는 〈買弁資本家〉의 범  
 주에 속하게 되며, 〈買弁資本家〉라도 金日成의 政治路線을 추종

한다면 그는 <良心的인 民族資本家>로 일시적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金日成은 과거 20年동안 <南朝鮮革命>의 戰略과 戰術을 연마하면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 보았으나 南韓에서는 그가 기대하는 革命力量이 성장하지 않았다. 그 자신, 6.25南侵 당시 南韓의 國民들이 그에게 호응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共產主義革命을 南韓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극히 조심스럽게 告白한 일이 있다.

...祖國解放戰爭時期에 南朝鮮 사람들이 敵後方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人民軍隊의 진격에 호응하여 싸웠더라면 우리는 敵을 철저히 때려부시고 祖國統一問題를 벌써 풀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南朝鮮革命力量이 강화되었더라면 南朝鮮革命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 機會가 적지 않았읍니다.<sup>106)</sup>

그러나 그는 6.25南侵時에 보여준 共產主義者들의 잔인한, 학살과 非行, 가혹한 統制 政策, 中世期的 拉致行爲 등이, 특히 그 자신이 同族相殘의 戰爭을 도발하여 온 民族에다 처절한 비극을 안겨다 주고 國土를 황폐화했다는 사실이 南韓의 國民大衆을 反共產主義的으로 만들었으며, 共產主義運動을 그런대로 理解의 눈으로 보려든 일부 知識人들마저도 幻滅의 비애를 느끼게한데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南韓에 共產主義勢力이 퍼지지 못하는데 대한 共產主義들 자신의 책임을 南韓社會의 構成要因과 <日帝>와 <美帝>에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南朝鮮에는 <<反共>>思想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住民構成에서 小부르조아 階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大衆의 文化水準이 매우 낮은 데다가 지난날 36年동안 日帝가 악랄하게

《反共》思想을 붙여 넣었으며 解放後 美帝와 그 앞잡이들이  
《反共》선전을 더욱 더 強化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南朝鮮革命>에 관해 敗北主義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는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면 할 수록 南朝鮮 人民  
自身들이 革命的 鬪爭의 불길을 높이라고 더욱 강하게 호소하고,  
北朝鮮人民들은 그들을 <積極的>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지 않는 <南朝鮮革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계속 武裝間諜과 工作員들을 南派해야하는 상황에 몰려들게 된다.  
그의 對南工作의 연속적인 실패는 당연히 党内에서 준엄한 批判의  
대상으로 제기되어야 하지만, 강고한 一人獨裁權力을 확립한 그에 대  
해 누구도 감히 責任을 추궁할 수는 없다. 따라서 失敗의 責任  
은 의례히 余他的 党幹部들이 져야하며, 그리고는 党的 位階秩序에  
서 쫓겨 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南朝鮮革命>의 戰略, 戰  
術問題를 둘러싸고 党内에서는 숙청과 출당과 강등의 소동이 계속  
되어 왔다.<sup>107)</sup> 이것은 北朝鮮의 <革命基地>에서도 金日成의 <南  
朝鮮革命>의 戰略과 戰術에 관해 막후에서는 비판과 反對가 그치  
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証左이다.

金日成은 자기의 教条主義的 <南朝鮮革命路線>에 대한 党内의  
여하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그러한 비판의 태도마저 <修正主義>  
라고 규탄한다. 그가 <南朝鮮革命>을 강조하면 할 수록 이와  
아울러 党内 <修正主義>에 대한 鬪爭을 더욱 강조해 온 것은  
그만큼 党内의 반발요인이 강하다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  
문이다. 그는 1970年 11月の 第5次党大会에서도 계속 修正主義를

경계하면서 <오늘 党思想事業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黨員들과 勤勞者들 속에서 修正主義를 반대하는 思想教養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文化革命期の 中共의 《人民日報》나 《紅旗》의 論調를 그대로 의우듯이 修正主義의 해독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修正主義는 맑스·레닌主義의 革命的 進수를 거세하려는 反革命的 機會主義思想潮流입니다. 修正主義의 가장 큰 害毒性은 맑스·레닌主義黨의 영도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부인하고 階級鬭爭을 반대하여 敵我的 界線을 모호하게 하며 美帝의 원자공갈정책에 겁을 집어먹고 그 앞에 굴복하여 말로는 反帝的 立場에서 있다고 하면서도 제국주의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帝國主義와의 鬭爭을 拋棄하고 그와 타협하며 戰爭에 대한 공포심과 부르조아平和主義思想, 帝國主義와 反動들에 대한 幻想을 퍼뜨리면서 人民들을 思想的으로 무장해체시키며 被壓迫人民들이 革命하는 것을 꺼려하고 방해하는데 있습니다.<sup>108)</sup>

金日成의 <南朝鮮革命>政策은 이러한 思想的 기반 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南朝鮮革命>의 승리를 위한 <담보>로써의 北韓의 軍事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國防에서의 自衛>原則은 <全國의 要塞化>, <全人民의 武装化>, <全軍의 幹部化>, <全軍의 現代化>라는 党的 4大軍事政策으로 具體化되었다.<sup>109)</sup> 그리고 이러한 軍事政策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党은 최대한의 物的 人的 資源을 동원해야 한다. 全北韓社會를 要塞化하기 위한 불가피한 方法은 스탈린의 第1次 5個年計劃에서와 마찬가지로 大衆生活에서 극도의 耐乏을 강요하면서 먼저 重工業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住民과 社會를 統制化하여 建設事業에로 채찍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서 일어나는 人民大衆의 불만과 불평을 억제하고 그들의 精神  
力을 분발시키기 위해서는 革命的 이데올로기의 注入教育이 계속  
強化되어야 한다.

따라서 <思想教養事業>은 더욱 격렬해 질 수 밖에 없다. 그  
리하여 金日成은 南韓을 지옥 같은 美國의 殖民地라고 계속 선전  
하면서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自主性>을 열광적으로 고취하  
기에 이르렀고, 北韓住民의 모든 犧牲은 <祖國統一>이라는 궁극적  
目標에 의해 正當化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가혹한 民生에 대한 사소한 政策上의 불평  
도 黨의 성스러운 革命課業을 해치는 <反革命分子>로 몰리운다.  
政治-經濟-軍事, 社會生活의 모든 側面은 絶對로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위대한 首領>의 <하나의 思想>과 <하나의 意志>에 의  
하여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金日成의 이러한 <唯一思想體系>  
에 의하여 통치되는 北韓의 全体主義的 政治制度를 그의 一派들은  
큰 영광으로 謳歌하면서 이것을 <民主主義>라고 선전해 왔다.  
이러한 정치 작동 속에서 金日成 個人崇拜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金日成이 바라는 南韓의 이른바 <革命的 情勢>는 도저히 조성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20年 동안 南韓社會는 共  
産主義革命의 前夜에 있는 듯이 분석해 왔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大韓民國 自體內에서는 世界 어느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政治  
的 소란과 社會的 抗議와 學生示威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大

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니까

南韓内の 여러가지 事變은 金日成의 南朝鮮革命 路線을 실현하기 위한 階級的인 事變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韓民國自体를 개혁하고 社會正義와 自由를 신장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그러한 國民들의 의사표시였으며, 政權을 共産黨에 넘겨야 한다  
는 것과는 아무 인연도 없는 일이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이 南韓内の 사태가 金日成의 <南朝鮮革命> 路線을 실현시키기 위  
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日成一派는 南韓  
의 사소한 事件들도 마치 自己들의 思想的 影響 밑에서 일어난  
큰 事件인 것 처럼 基本的 錯覺을 일으켜 왔다.

이러한 착각은 南韓内の 自体矛盾이 共産主義革命에 有利하도록  
점점 침에 화 되고 있다는 그들의 樂觀主義的 認識態度에 의하여  
더욱 더 커졌다. 20年前부터 그들은 南韓의 社會가 날이 갈 수  
록 처참해지고 共産主義的 革命勢力이 온 南韓을 壓倒하고 있는 듯  
이 주장 해왔다. 第5次黨大會에서도 金日成은 <南朝鮮에서 民族  
的 및 階級的 모순은 더욱 침에 화되고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광  
범한 人民大衆의 革命的 進出이 적극화 되었으며 따라서 美帝의  
植民地統治에는 보다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었다<sup>10)</sup>고 언명하고 있  
지만, 이것은 南韓社會의 科學的 分析이 아니라 하나의 戰略的 宣  
伝이라는 것은 南韓의 現實을 이해하는 어떠한 사람도 곧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批判없는 獨裁主義는 自己自身이 만들어낸 宣傳  
에 의하여 自己自身도 속는다는 政治法則을 만들어 왔다. 가혹한  
全體主義的 獨裁體制의 北韓을 自由와 民主主義와 進歩가 爛漫하게  
꽃핀 <社會主義의 地上樂園> 으로, 그리고 南韓을 人間의 <生地獄>  
으로 그려온 金日成은 어느새 이것을 眞實로 믿고 싶어했기 때문에

남한 내부의 여러가지 사건은 김일성의 남조선혁명 선을 실현하기 위한 계급적 사건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南朝鮮革命路線 - 非科學的

그토록 非科學的인 <南朝鮮革命>路線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의 主觀的 꿈은 다음과 같이 非現實的이다.

우리는 經濟를 더욱 발전시켜 都市와 農村에서 勤勞者들이 더  
부유하고 文明한 生活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이  
렇게 하여 北朝鮮의 經濟力이 강화되고 南北朝鮮人民들의 生活에  
서의 差異가 樂園과 地獄 같이 더욱 뚜렷하여 질때 南朝鮮人民  
들은 더욱 더 共和國北半部를 동경하게 될 것이며 美帝의 植民  
地統治를 반대하여 용감하게 일어 설 것입니다.<sup>111)</sup>

<南朝鮮革命>을 일으키는 戰術로서 우선 金日成은 <敵我間의  
力量關係를 정확히 타산하지 않고 國內外情勢를 신중히 평가함이  
없이 冒險主義的인 鬪爭을 벌리는> 左傾的 偏向과, 반대로 <革命  
이 간고하다고 하여 有利한 情勢가 도래하기만 기다리면서 積極的  
인 鬪爭을 전개하지 않는> 右傾的 偏向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맑스·레닌主義의 戰術的 立場을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前提에서

한편으로는 <革命力量을 保存하고 축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는 南韓에 <조성된 主客觀的 情勢에 맞게 政治鬪爭과 經濟鬪爭,  
暴力鬪爭과 非暴力鬪爭, 合法鬪爭과 非合法鬪爭등 여러가지 鬪爭形態  
와 方法을 옹기 배합하여 革命運動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  
을 강조해 왔다. 第5次黨大會에서는 이러한 方法에다 <半合法鬪  
爭>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鬪爭方法을 첨가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重要視해온 <革命의 參謀部인 맑스·레닌主義黨>으로서

1969年 8月頃 부터는 統一革命黨을 내세웠다.<sup>112)</sup> 그는 이 <맑스·  
레닌主義黨>의 출현으로 南韓의 광범한 <人民大衆은 自己의 階級  
的 및 民族的 利益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었다>느니 <自

①  
統一革命黨

由와 解放을 위한 南朝鮮人民들의 革命鬪爭은 자기의 믿음직한 政治的 參謀部를 가지게 되었다>느니 말하고 있다.<sup>113)</sup> 그러나, 統一革命黨이라는 것이 몇명의 地下組織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될런지는 몰라도, 南韓의 大衆을 지도하고, 動員하고, 美軍을 내몰고, 政權을 탈취하여 <南朝鮮革命>을 수행하고 南韓에다 <人民民主主義> 政權을 수립할 勢力이 될수 있다고 생각할 者는 최소한 南韓社會에는 없을 것이다.

金日成의 戰略은 명백하다. 그는 <統一革命黨>을 핵심으로 <反美救國統一戰線>을 불과 몇 사람으로라도 형성하여 南韓에서 越南型 <民族解放戰線> (베트공)의 組織網을 확대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소위 <民族解放鬪爭>을 전개해 보려는데 그의 의도가 있다. 그는 印度支那半島의 정세에서 크게 격려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를 胡志明의 위치에 올려놓기 위한 民族的 英雄化運動을 近年에는 더욱 대규모로 전개해 왔다. 民族的 愛國者에 대한 韓國民의 一般的 尊敬을 金日成으로 하여금 強占케하기 위하여 北韓의 黨宣伝家들은 그의 <抗日武裝鬪爭>의 경력을 歪曲된 記述로부터 이제는 장엄한 神話로 만들어 버렸다. 더욱이 <自主性>의 선언 이후 金日成 個人崇拜運動은 그 절정에서 儀式化되고 있고, 그는 南北을 통한 <4千萬 朝鮮人民의 敬愛하는 首領>, <자애로운 아버지>, <民族的 太陽> 등등으로 구가되고 있다. 이러한 個人崇拜의 宣伝活動을 통하여 그와 그 一派는 南北을 통한 唯一한 正統的 愛國者로써의 金日成映像을 国内的으로 國際적으로 두각 시키고, 오직 그만이 統一朝鮮의 民族的 指導者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려 하고 있다.

〈政治權力은 銃뿌리로부터 나온다〉는 毛沢東이 애용하는 格言을 金日成도 굳게 신봉한다. 革命은 暴力에 의한 政治權力的 탈취요 現代의 組織的 暴力은 武力, 즉 軍事力이다. 그리하여 그는 〈朝鮮人民軍은 朝鮮勞動党的 軍隊〉, 〈勞動階級の 軍隊〉라고 규정했고 (114) 党的 〈革命武装力〉으로써의 그 力量을 높이 찬양해 왔다. 그리고 北韓에서 그러한 武装力을 強化하는것은 〈平和的 祖國統一의 決定的 담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南朝鮮革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南韓에서 大韓民國國軍을 전술상 自己便으로 돌려야 할 必要性을 그는 부단히 내세워 왔다. 이 경우에도 그는 國軍의 成分을 社會階級的으로 분석하면서 〈南朝鮮〈國軍〉兵士들과 中下層將校들의 絶대다수는 勞動者, 農民들을 비롯한 勤勞人民의 出身〉이라는 기계적 결론을 내리면서 國軍의 兵士들과 將校들은 〈銃뿌리를 美帝國主義者들과 그 主君들에게 돌려야 한다〉 (115) 고 허망한 기대를 걸어 왔다. 義務兵役制下的 大韓民國에서는 그러한 分類方法이 근본적인 오류라는 點은 論外로 하고라도, 이러한 期待는 모든 勤勞階의 出身子弟들은 당연히 共産黨을 지지 한다는 놀랄만큼 單純化되고 획일화된 思考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大韓民國의 國軍兵士들과 將校들은 볼셰비끼 革命 당시의 帝政로시아의 軍隊나 第二次世界大戰 직후의 混亂期の 中國國民軍과 는 紀律, 政治宜識, 訓練, 教育, 士氣面에서 근본적인 差異가 있음을 자신의 어데올로기에 의하여 政治的 色盲이 되었었기 때문에 산파할 수가 없는 것이다.

金日成은 <南朝鮮人民들>이 자기의 革命路線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意識上의 장애를 南韓에 뿌리깊이 박힌 事大主義思想과 <反共>思想에서 찾고 있으며, 이 뿌리는 <美帝>와 <親美反動勢力>에 의하여 부식되었다고 한다.

南朝鮮人民들을 각성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大衆속에서 美帝에 대한 幻想과 事大主義思想을 극복하여 <反共>思想을 뿌리뽑는 것입니다. 南韓에서 崇美事大主義思想과 <反共>思想은 오랜 歴史的 根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日帝敗亡後 美帝國主義者들과 그와 결탁한 地主, 買辦資本家, 反動官僚輩등 親美反動勢力에 의하여 더욱 깊이 부식되었습니다.

이러한 南韓의 <事大主義>를 극복하고 反共思想을 <뿌리뽑는> 方法으로 그는 南韓의 대중에다가 階級意識과 民族意識을 고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革命은 大衆을 각성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人民大衆을 意識化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組織적으로 묶어 세울 수도 없으며 大衆運動을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南朝鮮革命組織들은 勞動者, 農民들의 階級意識과 人民大衆의 民族意識을 높이고 그들을 政治적으로 계몽하여 각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努力하여야 할 것입니다.

南韓의 이른바 <反共思想>에 관하여 말 한다면, 그 누구가 이것을 부식했다고 해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것도 成長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南韓의 社会的 實態가 北韓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人間의 <地獄>이오 모든 條件이 共產主義革命에 적합하게 성숙해가고 있다면, 그리고 北韓이 진실로 <社會主義의 地上樂園>이라면 南韓의 大衆으로부터 反共思想은 벌써 뿌리 뽑힌지 오래될

남한  
의  
階級  
의식  
과  
民族  
의식을  
고취  
하라

것이다. 全体主義의 一人獨裁體制의 暴政과 억압을 몸소 체험도 했고 그 本質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고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批判과 저항과 反對鬪爭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南韓에서의 反共思想을 뿌리뽑으려면, 北韓에서 人民들에 대한 共產黨의 一黨獨裁와 一人專制의 폭압을 지양하여 政治와 經濟와 社會를 民主化하고 人民大衆에게 基本的 自由를 보장하면 될 것이다. 金日成은 尊嚴한 自己批判없이 감미로운 共產主義宣傳만으로는 南韓의 人民大衆을 政治思想的으로〈작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金日成이 南韓의 勞動者 長民들의〈階級意識〉을 論할때, 그는 어느 社會에도 있는 南韓社會內的 階級的 갈등, 착잡한 利害上의 分규를 共產主義革命으로 유도하여 소위〈反革命을 孤立시키는〉戰術의 일환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南韓의 國民들은 내부적 問題를 非共產主義的 方法으로 해결해 왔으며, 장차도 그렇게 하려는데서 南韓社會는 北韓의 共產主義的 호소가 뿌리를 박을 수 없는 不毛地가 되었다. 民族意識을 높히는 問題에 관하여서는, 金日成의 교시를 기다리기 前에 日帝時代로부터 現時期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추구되어 왔다. 지금도 大韓民國의 主權을 옹호하는 많은 知識人들이 民族意識의 양양, 民族的 主体性의 확립을 위하여 끊임없는 努力을 기우리고 있음은 南韓의 教育과 言論과 學問的 勞作에 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즉각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그 內容과 方向과 究極的 目的이 金日成이 바라는 것과 다를 뿐이다. 한편 그는 南韓에서 격렬한 反美運動

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것을 民族的 解放에 큰 장애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 南朝鮮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美帝의 侵略的 本性을 보지 못하고 마치 美國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을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美國을 승배하며 美國에 의존하여 살려는 영향은 民族的 解放과 獨立을 위한 鬪爭의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前提에서 金日成은 美國에 대한〈事大主義 思想〉을 반대하고〈民族主体意識〉을 높이며〈外勢依存思想〉을 배격해야 한다고 한다. 그의 이 와같은 兇言에는 大韓民國의 國際的 協力關係를 단절시켜 南韓을 孤立無援의 상태를 몰아 넣으려는 戰略性이 숨어 있다.

1945年에서 1948년까지 北韓에 진주했던 소聯軍과 1950年에서

1958년까지 8年間 주둔했던 中共軍에 대해 최대의 예찬과 존경을

표시 해온 그가, 그리고 소聯 및 中共을 위사한 共產主義諸國들의 北韓에 대한 軍事的, 經濟的 援助에 대해 뜨거운 〈충심으로 부터의 感謝〉를 드러온 그가 大韓民國이 美國의 원조를 받아왔다는 점을〈外勢依存〉으로 비방하는것은, 大韓民國의 強化를 혐오하는 때문이다. 이에다 더 註釈을 붙일 必要는 없다. 北韓自身 日本을 비롯한 資本主義國家들로 부터의 資本導入을 분망하게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南韓의 對外經濟關係의 확장을〈売國〉 또는〈植民地化〉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하나의 公式이 되었다. 〈修正主義〉라고 규탄하는 유고슬라비아는 論外로 하고라도, 自主的 立場을 표방하고, 이것을 공고화하여온 루마니아까지 美國의 經濟援助를 받고 있는 사



실에 직면하여, 그의 對南誹謗은 客觀的 妥當性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毛沢東의 말대로 <革命은 嚮宴이 아니다> 金日成이 부르짖는 <南朝鮮革命>도 그것이 어떤 형태를 取하던 비극적인 同族相殘의 流血劇임은 물론이다. 革命, 즉 流血에 의한 <平和統一>이란 개념 자체가 自己矛盾을 안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方式으로는 平和統一은 고사하고 南北間의 긴장만을 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南朝鮮解放革命>의 方式을 통하여 <南朝鮮解放>을 이룩하고 <人民民主主義政權>을 수립하고 나면, 이것을 北韓의 <社會主義力量>과 통합시켜 自主的으로 南北을 統一하겠다는 金日成의 <自主的 平和統一>路線은, 要件대 南韓을 폭력에 의하여 北朝鮮化하겠다는 公公然한 선언이다. 正義를 그지 없이 애호한다는 平壤의 共產主義者들은 결코 侵略戰爭을 도발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共產主義들이 하는 모든 戰爭은 帝國主義의 공격으로부터 人民을 방위하는 防衛戰爭이요, 帝國主義의 압박으로부터 植民地를 해방하는 解放戰爭이므로 그들의 戰爭은 언제나 正義의 戰爭이며, 侵略戰爭은 他國 또는 他民族을 壓制화 하려는 <帝國主義者들>만이 도발할 수 있는 不正義의 戰爭이라고 스탈린에 의하여 公式化된 觀點<sup>(116)</sup>을 그들은 自己 合理化의 유산으로 물려받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操作方法에 의하여 그들은 6.25의 전격적 奇襲南侵戰爭을 <美帝의 侵略>에 대항하는 朝鮮人民의 <祖國解放戰爭>이라고 규정하면서 自己自身을 正當化해 왔다. 이러한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남조선  
해방  
전쟁

立場에 비추어 볼때, 1967年 12月 16日 金日成이 천명한 〈共和国政府綱領〉이란 文言에는 실로 위태로운 意味가 내포되어 있다.

共和国政府는 朝鮮人民들을 해방하며 祖国統一을 실현하기 위하여 北半部人民들을 항상 南朝鮮人民들의 聖스러운 反美 救国鬭爭을 지원하며 革命的 大擧發을 主動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精神的으로 物質的으로 튼튼히 준비시킬 것입니다.

共和国北半人民들은... 南朝鮮에서 人民들의 鬭爭이 고조되고 革命情勢가 성숙되어 우리의 支援를 요구할 때는 언제나 南朝鮮人民들과 힘을 합하여 祖国統一偉業을 성취할 決定的 鬭爭에 동원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17)  
(傍点是 筆者)

여기서 〈革命的 大擧發을 主動的으로 맞이 한다〉느니 〈決定的 鬭爭에 動員된다〉느니 하는 戰略的 命題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무엇인가. 이 말을 조만간 조건이 성숙되는 때는 南韓의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위해 직접적 軍事行動을 취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맑스·레닌主義 自体에 의해서도 左翼的 軍事冒險主義라는 낙인을 찍혀 마땅하다. 南北이 각각 3大核保有國들과 軍事條約을 체결하고 있는 現實에서 金日成이 새로운 軍事行動을 취한다면, 自己破滅은 물론이요, 民族自滅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일 이상의 말을 東南亞型 〈民族解放鬭爭〉 방식에 따라 對南武裝遊擊隊의 침투로 大韓民國을 전복하려는 戰略으로 해석한다면, 그는 南韓의 基本的 防衛力, 國民의 政治意識과 결의, 地理的 條件, 治安上의 기동력을 전적으로 무시한채 협소한 계릴라穢 心理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金日成

의 〈南朝鮮革命〉戰略은 軍事行動이란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平和統一은 어디까지나 平和의 方法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지 流血的革命, 武力의 方法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19世紀의 小統時代가 아닌 오늘의 가공할 核時代에, 특히 世界 第1級의 軍事的 強國들이 軍事條約에 의하여 관련되어 있는 韓半島에서는 武裝革命이나 戰爭에 의해서는 統一問題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金日成은 南韓으로부터 美軍을 철거시키기 위한 鬭爭을 벌릴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美軍의 철수를 원한다면 먼저 美軍이 철수할 수 있는 要因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金日成一派가 험위없는 平和와 友好的 接近의 태도로 南韓을 바라다 보는데도 美軍은 北韓을 侵略하기 위해 南韓에 강제 주둔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릴 政治的 見解은 스탈린主義的 敎條主義者 外에는 가질 수 없다. 그는 〈南朝鮮革命〉의 일환으로 國際的 反美國爭을 세계적 규모를 전개하여 美國을 孤立化시킬 수 있다는데 큰 기대를 걸어왔다. 非共產主義國家 상호간의 協力關係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共產主義國家인 소聯, 루마니아, 폴란드 등은 美國과의 긴장상태를 대폭 완화하고 人士往來, 交易擴大, 文物交流, 留學生派遣, 學者 言論人 교환등 다양한 關係를 맺으면서 冷戰을 해소시키고 있다. 共產主義國家들의 對美 接近政策을 일괄하여 〈現代修正主義者들〉의 〈美帝國主義者들〉과의 野合이라고 강렬하게 규탄해 오던 中共마저 美國과의 現實主義的 接觸을 개시하고, 상호간의 關係正常化를 위한 회

기적 조처를 취하게 된 현시기의 國際情勢는 美國의 孤立化와는 정 반대의 코스를 걷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의 對南 人民民主主義 革命路線은 南北間의 階級鬭爭을 통하여 <平和的> 統一을 실현하려는 戰略 戰術로 要約된다. 그리고 韓半島內의 계급鬭爭을 國際的 階級鬭爭에 의해 支援받고져 하는點에서 金日成은 南北統一을 世界革命의 轉點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의 理論은 피상적으로는 論理整然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体系化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모든 敎條主義的觀念은 언제나 体系的이오, 敎條主義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体系化 되면서 現實과 멀리 유리되어가는 경향을 가진다. 그의 論擧가 수다한 假想과 단순한 主觀的 希望을 토대로 하고 있음은 이미 이상에서 論評한 바와같다. 무한히 지연되고 있는 <南朝鮮革命>을 金日成은 이른바 <革命的 樂觀主義> (이것도 中共의 用語)를 견지하면서 信念을 가지고 참고, 더욱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黨幹部들은 그의 非科學的이오, 非現實的인 <南朝鮮革命>路線에 内心 비판의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1956年 이후 부단히 계속되고 있는 黨內의 權力鬭爭과 對立狀態에 의해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는 黨幹部들의 自己에 대한 不信과 새 世代들의 思想的 動搖를 막기-위해 黨員들과 全人民들을 自己의 <唯一思想体系>를 통한 이데올로기 強化에 의해 더욱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 운동을 맹렬히 전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앞으로 <南朝鮮革命>이 지연되면 될수록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革命思想을 더욱

옹호해야 할 必要에서 熱狂的 이데올로기教育은 계속 강행 될  
것이다. 따라서 勞動黨의 <平和統一>路線이 兩韓을 <解放>하기  
위한 戰略戰術로써가 아니라 悲劇을 絶한 民族分斷問題를 合理的  
으로 해결하려는 허위없는 平和的 方案으로 本質的인 전환을 하리  
라는 것은 現時点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超스탈린主  
義的 1人獨裁體制가 맑스·레닌主義의 이름에서 서서하게나마 變  
化하고 狂氣에 찬 敎條主義的 對南攻勢가 理性的 對話의 자세로  
바뀔때 비로소 統一問題는 平和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  
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歷史的 時期는 그가 獨裁權力的 頂  
上을 찾아하고 있는 限은 도래하지 못할 것이다.

[ 註 ]

註 60) : < 김일성저작선집 > I, 1967년판, 평양, p. 389

註 61) : < 김일성선집 > 4, 1960년판, 평양, pp. 197 ~ 98

註 62) : < 김일성선저작선집 > 3, 1968, 평양, p. 62. 第1次5個年計劃에  
관해 金日成은 第三次党大会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3個年計劃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므로써 우리는.....좀더 장  
기적인 計劃, 즉 第1次5個年 人民經濟計劃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0년부터 실시에 옮겨질 第1次5個年  
기간에는 전후에 달성한 모든 成果들에 근거하여 共和國  
北半部에서의 社会主義建設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 < 김일성선집 > 4, 1960년, 평양, p. 475

註 63) : < 김일성저작선집 > 3, 1968년, 평양, p. 62

註 64) : < 근로자 >, 1968년 9월호, p. 14

註 65) : < 김일성저작선집 > 3, 1968년, p. 75

註 66) : Ibid., p. 108

註 67) : < 김일성선집 > 4, 1960, 평양, p. 445

註 68) : < 大 10月社会主義革命 41週年紀念 平壤市慶祝大会 >에서 당  
시 党中央委員會 副委員長의 자리에 있던 金昌滿 (현재는 탈

락)의 報告演說. 〈新しい朝鮮〉, 1968年 26号, 別冊附録(1)

註69):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 446~47

註70): 〈정치 경제학〉 (하), 1962년, 평양, p. 14

註71):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 447

註72): 〈劉少奇主要著作集〉, 前掲版, 第四卷, p. 69

註73): 李維漢, 〈中華全国工商連合会會員代表大会での講演〉, 毛沢東他  
著〈社会主義への移行〉, p. 112

註74): 1967年版 〈김일성저작선집〉 1卷에는 金日成이 1945年  
10月 13日 各道党責任일군들 앞에서 했다는〈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라는 演說이 수록되어 있다. 그 內  
容은 毛沢東의 統一戰線戰略을 그대로 自己의 것처럼 옮긴  
것이며, 文句, 表現方法까지도 毛沢東의 말과 同一하다. 이  
演說은 北韓이 中·소紛爭에 있어서 中共側の 입장을 지지  
하던 어떤 시기엔, 45年 당시의 金日成이 한 조작한 연  
설을 毛沢東의 理論에 따라 철저히 改作한 것으로 판단  
된다.

註75): 〈조선통사〉 (하), 1959年, 평양, p. 75

註76): 〈정치경제학〉 (하), 1962年, 평양, p. 28

註77) : 申佐鎬 〈わが国における生産力と生産関係〉, 〈きょうの朝鮮〉, 平壤, 1960年4月号 p. 52

註78) :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 206

註79) : 金日成이 1954年11月3日 党中央委员会에서 발표한데 의하면, 그 당시의 全体工業生産에서 国营工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約90% 이상이고, 나머지 10% 중 7~8%가 協同經理에, 個人經理는 2~3%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 177

註80) : 〈김일성저작선집〉 3, 1968년, p. 65

註81) :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 204

註82) :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 173

註83) : 〈김일성선집〉 5, 1960년, 평양, pp. 283~88

註84) : 이에 관해서는 金日成의 연설 〈朝鮮人民軍은 항일 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1958年2月8日), 〈第1次 5년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1958年3月6日), 〈우리黨 司法政策의 관철을 위하여〉 (1958年4月29日) 등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註85) : 〈김일성선집〉 5, 1960년, 평양, p. 240



註86) : 이 점을 金日成은 〈黨員들의 階級敎養事業을 더욱 強化 할데 대하여〉라는 1955年 4月 1日의 党中央委員會 全員 會議報告에서, 南韓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더불어 무의식 중에 시인했다.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p. 214~87

註87) :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 199~201

註88) : 〈김일성선집〉 5, 1960년, 평양, p. 445

註89) :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 6

註90) : 〈근로자〉, 1968년 9월호, p. 40

註91) : 〈로동신문〉, 1970년 11월 3일

註92) : 〈김일성선집〉 4, 1960년, 평양, pp. 188~89

註93) : 스탈린은 1952年 〈불세비끄〉誌 第8号에다 〈소聯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經濟的 諸問題〉라는 戰略的 論文을 발표하고 社會發展의 法則, 世界資本主義体制의 崩壞의 法則, 社會革命의 法則과 方法을 國際共產主義運動의 觀點에서 간략하게 분석하면서 몇개의 命題와 結論을 제시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는 第2次世界大戰以後의 資本主義世界の 특징을 여전히 〈資本主義의 全般的 危機〉라는 상투적 公式에 의하여 規定했다. 이러한 前提에서 그는 第2次世界大戰後에 조성된 새로운 國際的 발전으로 말미암아 資本主義諸國間的 戰爭이 不可避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는 소聯學者들의 잘

못을 지적했다. 그는 戰後에 強國으로 再抬頭하고 있는 日本, 西獨의 資本主義國家들은 美帝國主義에 대한 예속을 단절하고 〈自主적인 길〉을 택하여 美國의 支配權에 도전하게 되리라고 豫見하는 한편, 英國, 프랑스도 자기들의 販賣市場을 약탈하고 있는 美國의 資本이 자기들의 高利潤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음으로 美國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그리하여 그는 第1次世界大戰後 美, 英, 獨, 日 등 〈資本主義諸國의 市場獲得鬭爭과 競爭相對를 滅亡시키겠다는 念願은, 資本主義陣營과 社會主義陣營 사이에 諸矛盾보다도 실제로는 훨씬 強했다〉고 쓰고, 이와 同一한 현상이 第2次大戰後의 世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資本主義諸國間의 戰爭의 不可避性은 여전히 아직도 強하다〉고 樂觀的 判斷을 내렸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結論은 소聯 共産黨 第20次大會에서 否認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各國共産主義者들의 思考에 미치고 있었다. 스탈린 〈ソ同盟における社會主義의 經濟的諸問題〉, 1953年, 國民文庫版, pp. 41~46 參照

註94) : 〈김일성선집〉 4, 1960년, p. 191

註95) :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 社說

註96) : 이 原則들은 金日成이 〈自主性〉을 公式로 발표하기 이전에, 즉 195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社會科學院에서의 그의 강의에서 제시되었던 것이다. 〈김일성 저작선집〉 4, 1968년 p. 220. 金日成이 그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호루시 초프 首相이 실각한 후 1965年

2月 그의 후계자인 코쉬긴首相이 平壤을 방문하고, 金日成이 소聯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北韓의 共產主義陣營內에서의 自主的 革命路線을 인정할 수 있다는데 대해 일종의 묵계가 兩者間에 성립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코쉬긴의 平壤訪問後부터 平壤의 모스크바에 대한 直接的 공격은 현재까지 중단되어 온 것이다.

註97) : < 김일성 저작선집 > 4, 1968년, p. 536

註98) : < 김일성선집 > 4, 1960년, p. 5

註99) : < 김일성 저작선집 > 4, 1968년, p. 239. 이 말은 모두 金日成이 인도네시아의 < 알르함 > 社会科学院에서 한 연설에서 인용했다. 이에 앞서 1964年 2月 27日에 열린 党中央委員會 第4期 第8次 全員會議에서도 그는 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위해 세가지 革命力量, 즉 첫째로 < 北朝鮮의 革命力量 > 둘째로 < 南朝鮮의 革命力量 >, 셋째로 < 國際的 革命力量 > 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꼭 같은 설명을 했던 것이다.

Ibid. pp. 80~96

註100) : < 로동신문 >, 1970년 8월 22일 社說

註101) : 金日成은 攻擊的 戰爭準備를 하고 있다는 말은 절대로 하고 있지 않지만 北韓의 軍事力 強化를 南朝鮮革命과 分離시켜 論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1964年 2月 27日 그는 이렇게 말했다. < 물론 南朝鮮人民들이 革命的으로 일어서나 하더라도 北朝鮮人民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美帝와 그 앞잡이들을 때려 부실 수 없습니다. 南北朝鮮에서 革命力量이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南北

朝鮮全体人民이 힘을 합하여 美帝國主義者들에게 타격을 주어야만 民族解放革命을 勝利的으로 완수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 1968년 p. 81 여기서 北朝鮮人民이 南朝鮮人民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한다는 것은 말로만의 聲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는 武裝間諜과 政治工作員의 南派는 물론 軍事力의 動員까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그의 〈南朝鮮革命論〉에는 항상 戰爭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에도 金日成은 같은 말을 무수히 되풀이 해왔다.

註 102): 〈로동신문〉 1970年 8月 22日

註 103): 〈로동신문〉 1970年 9月 16日. 이러한 찬사는 北韓에서는 이미 상투어가 되었다.

註 104): 〈근로자〉 1968년 9월호, p. 49

註 105): 〈김일성저작선집〉 4, 1968년 pp. 392 ~ 95 여기서 金日成은 여태까지 사용해온 〈예속 資本家〉라는 개념 대신 〈매판資本家〉, 〈親日 親美派〉라는 개념대신 〈反功官僚〉란 개념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用語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과거보다 정밀화되었다는 한치이다.

註 106): Ibid., pp. 80~81. 이런말에는, 동시에 그가 이러한 失敗의 책임을 南朝鮮勞動黨을 조직 지도했던 朴憲永一黨에게 돌리려는 의도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註107): 1967年4月末頃 党内序列 第4位에 있던 朴金喆과 第5位에 있던 李孝淳은 둘연 党中央委员会政治委员会 常務委员会에서 거세되었다. 朴은 党組織을 담당했었고 李는 对南工作 總責任者였다. 이에 뒤따라 숙청된 党高位幹部들은 다음과 같다.

高赫(副首相)

許錫瑄(中央党 文化藝術部長)

金道滿(中央党 宣傳煽動部長)

朴容国(中央党 國際部長)

朴春秋(党中央政治委员会候補委員·对日 对南工作副局長)

裴基雲(檢事總長)

朴雄傑(前文化相)

金日龍(職業同盟中央委委員長)

洪淳植(社会主義勞動青年同盟中央委委員長)

鄭俊基(로동신문사主筆)

黃杜燁(金日成大学總長)

黃元輔(農業勤勞者同盟委員長)

이들의 숙청은 党内의 对南革命政策의 分裂 및 이에 수반되는 派爭과 關聯된다. 그리고 1967年 11月 以後에는

보다 兇 戰鬪的인 軍幹部들로 지목되던 金昌奉(民族保衛相), 崔光(總參謀長), 許鳳学(党中央委·政治委·候補委員)

등이 모두 제거되고 吳振宇, 崔賢, 金光俠, 朴成哲등이 党

最高位層에 등용되었다. 그러나 얼마후 金光俠도 둘연히

숙청되었다. 1967년 봄 이후 <修正主義>에 대한 공격

이 맹렬히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中·소紛爭과 관련이 있

는 동시에 对南(修正主義)路線과도 관계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註 108): <로동신문>, 1970年 11월 3일

註 109): <근로자>, 1966年 10월호, p. 30

註 110): <로동신문>, 1970년 11월 3일

註 111): <김일성저작선집> 4, 1968년, p. 85

註 112): <로동신문>, 1970년 6월 20일. 여기에는 1969년 8월 統一革命黨 中央委員會가 서울에서 발표했다는 同黨의 <宣言>과 <綱領>이 실리고 있다.

註 113): <로동신문>, 1970년 11월 3일. 金日成個人崇拜는 그들 무를때 사용하는 神格化한 장엄한 찬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北韓에서는 많은 集會에서 그를 <絶世의 愛國者이시며, 民族的英雄이시며, 百戰百勝의 鋼鐵의 英將이시며, 國際共產主義運動과 勞動運動의 탁월한 領導자의 한 분이신 4千萬 朝鮮人民의 위대한 首領 金日成同志>라고 호칭하는 것이 하나의 儀式으로 化해 버렸다.

註 114): <김일성선집> 5, 1960년, p. 319

註 115): <김일성 저작선집> 4, 1968년, p. 396

註 116): 스탈린主義思想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소聯共產黨中央委員會所屬特別研究會編 <소聯共產黨小史(불세미끼)> (1938年)는 戰爭을 <正義의 戰爭, 侵略的이 아닌 解放의 戰爭>과 <不正義의 戰爭, 侵略戰爭>으로 区分하고 共產主義者들은

後者は 반대하지만, 前者는 支持한다고 言明했다. Histoire  
du Parti Communiste (Bolchevik) de U. R. S. S., 1949,  
Moscow, p. 186

註 117) : < 김일성저작선집 > 4, 1968년 pp 540~45





## 六. 結 論



## 六. 結 論

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이데올로기의 側面을 中心으로 그 理論的 背景과 實踐過程을 分析·批判해 보았다.

요컨대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은 基本的으로 赤化統一路線에 입각하고 있으며, 對內外的 條件을 (감안하여 그 樣相이 平和統一構想과 6.25와 같은 軍事的 手段 그리고 60年代後半期에 보여졌던 第3의 手段인 게릴라戰術에 코미트하는, 多樣的 戰術的 可變性을 노정하여 왔음을 直視했다.

그런데 70年 11月的 第5次黨大會에서 提起하고 있는 人民民主主義革命 路線은 종래의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路線보다 한층 發展된 對南人民革命戰略이라는 엄연한 事實을 똑바로 認識하고, 모든 要素에서 이러한 새맛이 孕胎되지 않도록 보다 한층 警戒心을 發揮해야 할 일이 切實히 要望된다.

그리고 對南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의 一環으로서의 平和政勢나 71年度 後半期부터 끈질기게 展開하고 있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南統一어프로오취는 50年代後半期, 60年代前半期에 提起하고 있는 이른바 「平和統一構想」하고는 그 偽裝性에 있어서, 高次元的인 「戰略的·高地」를 構築하고자 狂奔하고 있다는 冷澈한 主·客觀的 情勢를 드라이하게 파헤쳐, 이에 彈性性있게 對應하여 그 底意를 우리의 國家能力發揮와 國民의 自發的 參與하에서 粉碎해 나가는 果敢한 政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